

인천을 품고 세계로 1

들어가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인천

인천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인천은 과거에는 한반도의 관문을 여는 항구도시로, 현재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국제교류의 주요 허브도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 도시로 영종-강화 평화도로와 인천-남포-천진 항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추진의 핵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 교육이 나아가 할 방향은 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시작은 인천 시민으로서 인천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의 출발은 인천 바로 알기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 인천,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인천이 격동의 세월 속에서 어떤 아픔과 시련을 겪고 이겨냈는지 미처 모르고 지나쳤던 돌부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었는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부터 관심을 갖고 잊혀져 가는 기억을 되새기는 일, 이것이 동아시아시민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해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렸듯, 자기 것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인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굳건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천을 품고 세계로

「인천을 품고 세계로」 자료집을 통해 과거로부터 인천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이야기와 숨결을 느끼며 인천 시민으로 든든한 뿌리를 내려 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도성훈

목차



01 중구·동구·미추홀구

P A R T

1-1 인천의 근현대	10
1-2 인천의 포구와 삶	26
1-3 인천의 도시형성과 근대교육의 탄생	38
1-4 개항장 일대와 종교의 전파 과정	50
1-5 인천 민주항쟁의 발자취	68
1-6 인천의 철도교통과 항만	80

02 부평구·계양구·서구

P A R T

2-1 삶의 현장	92
2-2 인천 근대 산업과 역사의 흔적을 따라	108
2-3 원부평인 계양의 역사유적	118
2-4 서구의 과거에서 미래로	128
2-5 환경과 생태	140

03 남동구·연수구

P A R T

3-1 인천의 과거와 눈부신 미래	154
3-2 인천의 포구와 산업발달	166
3-3 인천의 염전과 생태	176
3-4 평화와 교류의 중심지, 인천	188
3-5 인천의 오늘, 그리고 미래	198
3-6 저어새 구하기	208

04 강화군

P A R T

4-1 강화의 역사와 문화	220
4-2 석도모의 지형과 간척사	238
4-3 교동의 역사	248

인천을 품고, 세계로

자료 사용 안내

이 자료집은 인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초·중·고 교육 과정에 적용 가능한 교사용 자료로 제작되었습니다.

01 코스 안내

인천을 4개의 권역을 중심으로 총 20개의 코스를 개발하였습니다.

권역	권역별 총코스
중구·동구·미추홀구 권역	6개
부평구·계양구·서구 권역	5개
남동구·연수구 권역	6개
강화 권역	3개

* 답사 할 때 경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요 건물을 표시하였습니다.



02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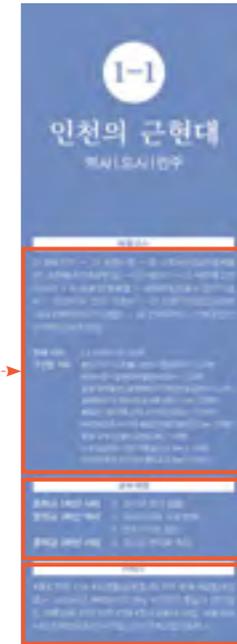
각 코스는 인천의 역사, 지리, 교통, 산업, 민주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스별 3개 정도의 관련 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03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도움자료 제시

코스 구간별 거리, 소요 시간 제시

전체 거리는 고등학생 도보 이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도보 이동 시 소요되는 예상 시간도 제시하였습니다. (학교급별로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각 구간별 거리와 시간을 참고하여 경로를 재구성 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 학년, 교과, 단원 제시

교육과정에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 학년, 교과, 단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시자료이므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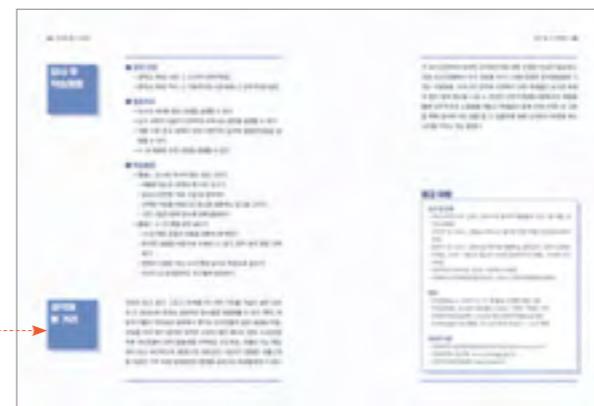
키워드 제시

코스별 주제와 특징을 알기 쉽도록 키워드를 제시하였습니다.

04 학습활동 도움자료 제시

학생용 답사 활동지 및 답사 후 수업 활동 제시

답사 활동 과정 중에 적용할 수 있는 활동지를 제시하였으며, 필요 시 이 부분을 복사하여 학습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활동으로 답사 후 관련 교과와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제시 하였습니다.



생각해 볼 거리

각 답사 코스와 관련하여 좀더 생각해 볼 내용이나 학생들과 심화 학습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 등을 제공하는 생각해 볼 거리를 제시 하였습니다.



01 PART

중구·동구·미추홀구

1-1 인천의 근현대

1-2 인천의 포구와 삶

1-3 인천의 도시형성과 근대교육의 탄생

1-4 개항장 일대와 종교의 전파 과정

1-5 인천 민주항쟁의 발자취

1-6 인천의 철도교통과 항만

1-1

인천의 근현대 역사 | 도시 | 민주

체험코스

① 화도진지 → ② 송현시장 → ③ 수도권산(달동네박물관, 송현배수지제수변실) → ④ 배다리 → ⑤ 싸리재고개 사거리 → ⑥ 수봉산(현충탑 →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 → 인천지구 전적 기념비 → ⑦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4.19학생의거기념탑) → ⑧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수준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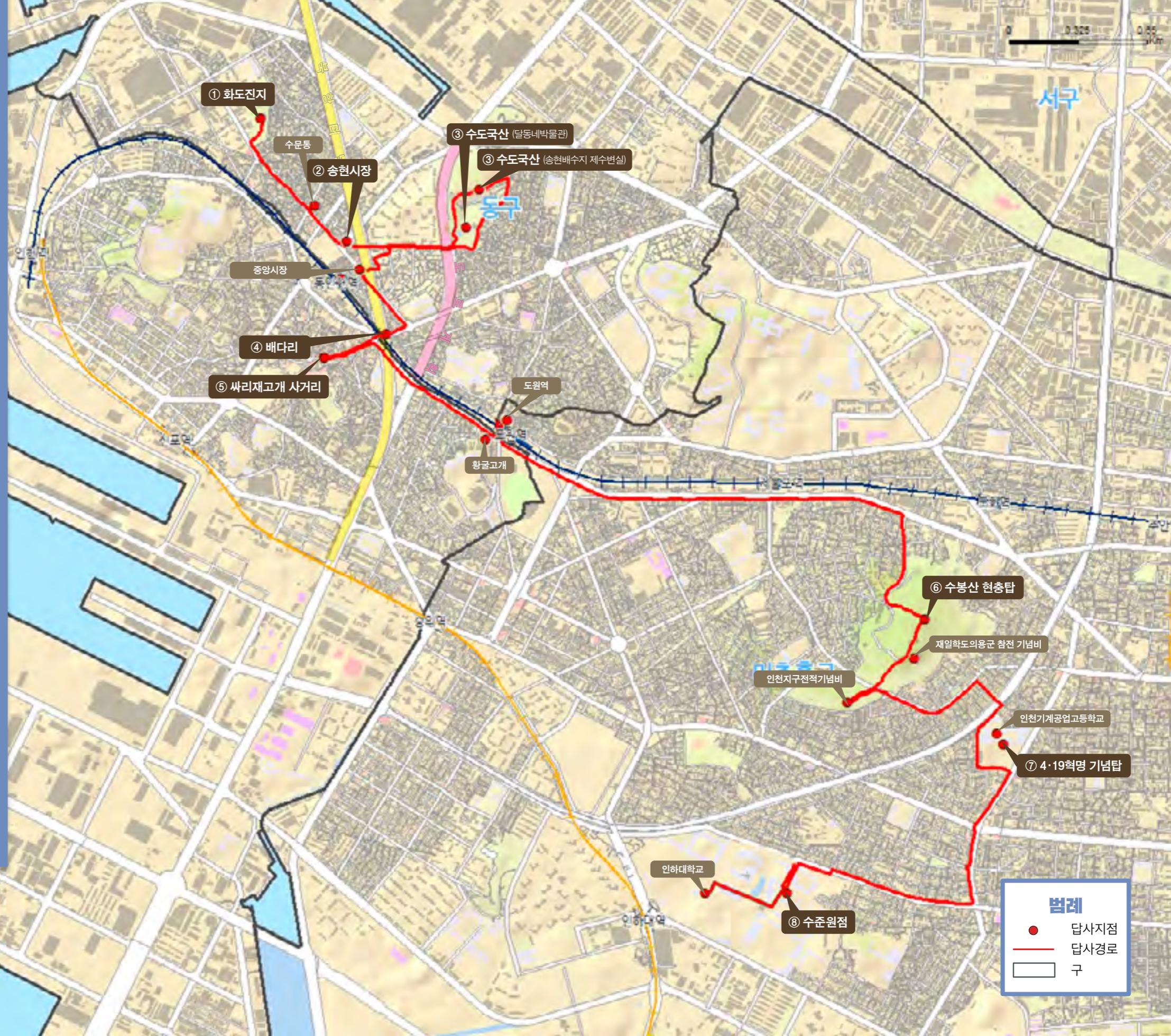
전체 거리 12.0km(3시간 20분)
 구간별 거리 화도진지~수문통~송현시장(800m / 15분)
 송현시장~달동네박물관(600m / 10분)
 달동네박물관~송현배수지 제수변실(200m / 5분)
 송현배수지 제수변실~배다리(1.2km / 20분)
 배다리~싸리재고개 사거리(500m / 10분)
 싸리재고개 사거리~황금고개(도원역)(1.2km / 20분)
 황금고개~수봉산공원(3km / 50분)
 수봉산공원~인천기계공고(2.0km / 35분)
 인천기계공고~인하대학교(2.5km / 40분)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사회 1. 정치와 정치 생활
 중학교 3학년 역사 2. 자본주의와 사회 변화
 3. 민주주의의 발전
 중학교 3학년 사회 1. 도시의 위치와 특징

키워드

#화도진의 기능 #수문통(송현동)의 지역 변화 #달동네의 효시, 수도권산 #배다리의 역사 #인천의 옛길과 경인철도 개통으로 인한 지역 변화 #호국공원의 상징, 수봉공원 #4.19.학생운동의 시작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범례

- 답사지점
- 답사경로
- 구

1-1

인천의 근현대

- 화도진공원의 기능과 수문통의 지역 변화
- 달동네 수도국산과 배다리 일대의 역사
- 인천의 옛길, 경인로와 경인철도의 기능
- 인천의 호국 공원과 학생 민주화 운동지



옛길을 따라가 본 인천의 어제와 오늘 - 역사 속 인천(중구·동구·미추홀구)

개항 이후 인천의 옛 모습을 보기 위해선 어디로 가야할까요?

한때 인천의 중심이라 불렀던 개항의 역사가 점점이 묻어 있는 중구, 어수선한 피난민들이 모여 달동네를 이루며 살던 서민 생활의 애환이 깃든 곳 동구. 술한 흔적을 가진 배다리 중앙시장이며, 양키시장 등으로 더 많이 불렸던 송현동 자유시장은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지역으로 과거 인천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다. 1890년대 개항기 이후부터 형성된 이곳의 역사는 한 세기를 훌쩍 넘어 오늘까지 이어져 온 역사의 한 발자취다.

과거 동구 지역의 대부분은 바다와 접해 있어 바닷물이 드나들었던 갯골 수로(수문통)로 넓은 갯벌과 갈대밭이 무성한 저지대였다. 제물포항 서북쪽 만석동에서 북쪽 지역인 송현, 송림동까지 해안이 이어졌 있었다.

복개 및 개간의 역사를 지닌 오늘날의 동구는 경인선을 따라 중구, 미추홀구와는 백범로를 따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구, 동구 일대의 도심의 변화를 인천의 옛 길, 경인로를 따라 살펴 보고 우리나라 최초의 경인 철도의 개통으로 인한 변화, 호국 공원의 상징적인 장소 수봉공원, 4.19 혁명 당시의 인천 학생 운동의 중심지였던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함으로써 인천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내 나라와 내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

첫 번째 만남

화도진지

개항기, 해안경비대

진(鎭)은 지방의 군사를 관리하던 지방관제의 하나인 진영(鎭營)으로 품계에 따라 주진, 거진, 제진의 3등급이 있었는데 화도진은 이종 만호, 도위가 주재하는 제진에 속한다. 강화도조약 이후 무리하게 개항을 요구하는 일본 등 외세에 대항하기 위하여, 고종이 1878년 어영대장 신정희를 파견하여 진과 포대를 설치하게 하면서 화도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주요시설은 병영 11동, 유물 전시관, 야포전시장, 4개 마당(동헌마당·내사안마당·내사 큰마당·사랑채) 등이 있다. 5월이면 철쭉꽃이 만개하여 장관을 이루고, 중요무형문화재 및 국악공연, 체험교실 등을 주제로 화도진 축제가 열린다.



▲ 화도진 공원 전경

두 번째 만남

송현동

갯골을 따라 시장이 형성된 곳

지금은 복개해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동구 송현동 일대의 수문통은 원래 바닷물이 드나들었던 수로로 넓은 갯벌과 갈대밭이 무성한 저지대였다. 수문통의 유래는 이렇다. 제물포항 서북쪽 동구 만석동에서 북쪽 지역인 송현·송림동까지 해안이 이어졌고, 팽이부리(묘도)에서 지금은 육지가 된 간석오거리 원통이고개 부근까지 넓은 갯골이 형성되어 있었다. 과거에 수문통은 화수·화평동, 송현·금곡동 등 인천 시가지 중심부로 깊숙이 이어져 있었다. 옛 화도진도를 보면 지금의 화수동과 송현동 사이로 여러 갈래의 꾸불꾸불한 작은 실개천이 한줄기로 모여 흐르는 것으로 그려 있다. 당시 수문통은 배다리경인철교까지 이어

져 1930년대 까지만 해도 해산물을 비롯 다양한 물건을 실은 배들이 드나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복개된 아스팔트도로 위로 차들이 달리고 있어 이 곳에 작은 배들이 다니던 갯골이었다는 얘기가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동국제강 후문 인근에 '송현교(松峴橋)'라고 쓰인 화강암 교각 두개가 당시 바닷물이 드나들었던 곳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최근 인천시 동구청은 도심 내 친수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화평파출소에서 동국제강까지 복개한 이



▲ 수문통의 과거 모습



▲ 수문통의 오늘날의 모습

곳을 다시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려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송현교' 화강암 교각

세 번 째 만 남

수도국산

인천 달동네의 원조

수도국산의 원래 이름은 만수산(萬壽山), 송림산(松林山)으로 이 주변 일대가 매립되어 공장이 지어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는 바닷가의 조용한 소나무 숲이었다. 송림산은 산언덕에 소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며 소나무를 베어내고 언덕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달동네 역사가 시작되었다. 송림산이 수도국산으로 산 이름이 바뀌게 된 데에는 근대 개항기 인천의 역사와 관련이 깊다. 인천은 우물이 적고 수질이 나빠서 개항 이후 증가한 인구와 선박을 위한 물확보가 큰 고민이었다. 이에 일제 통감부의 강압에 의해 한국 정부는 1906년 탁지부에 수도국을 신설하고 인천과 노량진을 잇는 상수도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수도국산이라는 명칭은 이곳에 수돗물을 담아두는 배수지를 설치하면서 생긴 명칭이다. 수도국산에 본격적으로 동네가 형성된 것은 러·일전쟁을 전후한 1900년대 초반으로 일본군이 지금의 전동 근처에 주둔하면서 그곳 주민들을 강제로 철거시켜서 송현동 산언덕에 새로 주거지를 정해주면서라고 한다. 해방 이후 6·25전쟁이 터지면서 이번에는 이북에서 피란민들이 이곳으로 대거 몰렸다. 70년대 이후엔 실향민들의



▲ 수도국산 배수지 제수변실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 대신 호남·충청지역 사람들이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주거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고 주민들도 대부분 영세민이어서 나라 안에서도 대표적인 '달동네'로 꼽혔을 정도였다.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가 팽창하면서 부평이나 주안 등 신흥 개발지로 빠져나가지 못한 수도국산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수도국산은 2001년까지 불량주택 1천 780동을 철거하고 아파트 3천



▲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전경

여 가구를 짓기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송현지구(수도국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99년 말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모두 떠났다. 집을 허문 자리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수도국산으로 올라가는 여러 골목길을 통해 그 당시의 경관을 떠올릴 수 있다.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은 2005년 10월 25일에 개관한 제1종 근현대생활사 전문박물관으로 1960~1970년대 달동네 서민의 생활

상을 테마로 한 체험중심의 박물관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3,000여 가구가 모여 살던 달동네 모습을 재현한 박물관으로 방 안의 인두와 재봉틀,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와 빛바랜 사진들이 어려웠던 시절 추억을 되살린다. 아궁이에서 연탄을 갈아보거나 물지게를 저보는 체험활동도 할 수 있다. 현대세대에게는 기성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네 번 째 만 남

배다리

갯골 따라 바닷물이 드나들던 마당



▶ 배다리 일대



▲ 양키시장

인천 지역의 상설시장이 형성, 운영되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문헌들에 의하면 개항을 전후로 형성되고 급격히 성장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에 근대적 상설시장을 개설한 인물은 정홍택이다. 그는 동생들과 함께 1895년 중구 신포동에 최초로 생선전을 개설했다. 이후 개항으로 유입 인구의 급증, 철도 부설로 인한 교통난 해소로 동인천 일대가 새로운 유통의 중심지가 되면서 1935년을 전후하여 박영섭이 동



▲ 배다리 헌책방 거리



▲ 배다리 전통 공예상가

인천 인근에 시장을 개설하고, 인천상공회의소 창립자인 유창호가 중앙시장 개천가에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지금의 중앙 시장, 양키 시장의 터전을 마련하여 동구의 시장 시대를 열어갔다. 동구의 대표적인 시장은 중앙, 양키 시장이다. 인천인 모두에게 향수어린 곳이기도 하지만, 애환의 역사를 떠올려본다면 각국 지계가 형성되고 조선인은 용봉산 뒤쪽으로 밀려 주거지를 형성함에 이곳에 시장이 형성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일대는 정보와 물산의 집산지이자 한국인들의 생활 중심지가 되었다. 수문통의 갯골을 따라 배다리까지 물이 찬 곳에 시장이 형성되어 '배다리 시장'으로도 불렸고, 동구와 미추홀구의 중심이 바로 동인천역(축현역)을 끼고 있어 '중앙시장', 부평 등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물건을 밀거래하는 이들이 몰려들면서 이곳은 '양키시장'이란 별명도 얻게 됐다. 이런 중앙시장에도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어 중·저가용 옷가게 등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사제 군복과 미국산 물품을 주고 파는 상점과 옷 수선업소들이 남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배다리는 바닷물이 드나들면 작은 배들이 철교 아래까지 드나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 강점기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이곳은 한때 성냥공장과 양조공장이 성시를 이루기도 했지만 세간의 사람들에게는 헌책방 거리로 더 이름이 알려진 곳이다. 동구 금곡동과 창영동의 경계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헌책방 골목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거리에 리어카와 노점상들이 하나 둘 씩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형성됐다. 70~80년대에 신학기 철이면 책을 구하는 학생들과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이 책을 구하기 위해 자주 찾아가는 곳이었다. 당시 수십 개 달하던 책방들이 영업을 했었지만 80년대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빛바랜 헌책보다는 새 책을 선호하는 시류에 밀려 하나 둘 씩 떠나고 이제는 몇 곳 남아 있지 않다. 배다리 헌책방 거리에서 우측으로 접어들면 바로 보이는 2층 붉은 벽돌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곳이 1926년부터 약 70여 년 간 인천의 명물인 소성주를 생산했던 공장이다. '소성(郇城)'은 통일신라 경덕왕 때 붙여진 인천의 옛 지명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옛스러움이 묻어나는 트러스트 구조와 천장과 벽에 붙어있는 당시의 구호들, 내부 곳곳에는 양조장이었던 때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이곳은 2007년부터 각종 체험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대안문화예술공간 스페이스 빔이 자리를 잡고 있다.

다섯 번째 만남

싸리개길^{경동}과
황굴고개^{도원동}

인천의 옛길,
경인가도를 아시나요?

인천 동구 배다리 지하상가에 들어선 배다리 전통 공예상가는 전통 공예가들이 1996년도부터 이곳에 작업실 겸 공방을 열고 창작 활동과 함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전통 공예 체험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의 예술인들은 모두 자기 분야에서 손꼽힐 정도로 알아주는 공예가들로 대부분 인천 출신이다. 인천의 '인사동'이라 할 수 있는 배다리 전통 공예 상가는 단순한 상점이 아닌 작업실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작업하는 모습을 관람할 수 있고, 주말이면 민화를 그리는 장면을 견학할 수 있어 인천의 전통문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전통 공예 마당이란 공간을 마련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열기도 한다.



▲ 경동 싸리재길



▲ 황굴고개(황굴고개는 과거 인천과 부천의 경계였다.)

경인철도가 놓여지기 전 서울로 가는 길이자, 우리나라의 관문 길은 개항로(신포동, 내동)~경동 싸리재(기독병원 앞)~황굴 고개(도원교회 앞)~쇠뿔 고개(구, 한국예루살렘교회 뒷길)~제물포역~주안~원통이 고개~부평~소사~서울로 이어지는 경인가도였다. 이 길은 개항 이후 경인철도가 본격 운행되고 일제에 의해 서울(경성)과 인천(제물포) 간의 새로운 도로가 닦일 때까지 사용되었다. 경인가도는 사람들이 도보로 다닐 수 있는 보잘 것 없는 소로길이었다가 1883년 11월 길 폭을 2m 정도로 확장하여 우마차가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비포장길은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특히 비가 오거나 장마 때가 되면 쉽게 땅이 질어지고, 한강이 범람하게 되면 통행이 수개월씩이나 중단되는 등 매우 불편했다. 그 후 1905년에 이 길이 정비되면서 자동차가 다닐 만한 도로로 변하게 되었고 1915년에는 본격적인 노면 확장 공사가 이루어져 10m의 넓은 도로로 발전하였으며 1931년에 이르러서 현재와 같

은 경인도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경인가도는 중앙로 4가와 신포동의 개항로로부터 시작되어 경동사거리를 지나 경동 싸리재를 넘어야 했다. ‘높은 곳’ 또는 ‘맨 꼭대기’의 뜻을 갖고 있는 순우리말 ‘수리’에서 변형된 말로 보여지는 ‘싸리재’ 고갯길은 하도 높아서 특히 우마차의 통행에 지장이 많아 1913년과 1917년 두 차례나 지면을 깎아 내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경동(京洞)은 ‘경성으로 가는 길목 마을’이라는 뜻에서 경정(京町)이라 했고, 이것이 광복 뒤인 1946년 경동이 되었다. 싸리재를 넘어 경인가도는 광성중·고등학교가 위치한 도원산의 아랫자락인 황굴고개(현, 도원교회 앞 도로)를 지난다. 개항 당시 인천부와 부천군의 행정 경계인 황굴 고개는 인천의 일반 서민들로부터 인천의 끝으로 인식되었다. 경인 철도가 놓이기 전 황굴 고개 맞은 편에는 쇠뿔고개(우각현, 牛角峴)가 이어져 있다. 쇠뿔고개는 인천 세무소가 있는 창영동 일대이다. 창영동의 옛 이름은 우각리(牛角里)다. 마치 언덕의 모양이 소뿔처럼 휘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1897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 철도의 기공식이 열렸던 곳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경인가도는 현재의 제물포역 앞을 지나는데 제물포역의 원래 이름은 승의역이었는데 1963년 1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물포역으로 이름이 바뀌어 제물포역 주변을 개항의 중심지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1876년 강화조 조약으로 인천, 부산, 원산, 군산, 목포 등이 개항되어 항구도시가 성장하였다. 1899년 경인철도 개통을 시작으로 경부선, 경의선 등 철도가 차례로 개통되면서 항구와 내륙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인천은 1883년 개항이후부터 1905년 경부철도가 개통되기까지 약 20여 년 동안 해상과 육상 교통이 연결되는 결절지역으로 조선 근대화의 중심지였다. 인천으로의 진입은 곧 ‘조선으로의 입성’을 의미하였고 이로써 인천은 조선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개항 당시 조선의 교통수단은 인력과 축력을 기반으로 하는 도로 교통과 자연력을 이용한 소규모 선박을 중심으로 하천 교통이 전부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의 자원 수탈과 상품 시장화를 위해서는 근대화된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한 여러 정책이 실시되었다.

1897년 3월 22일 도원역 부근의 우각리 언덕(우각현, 쇠뿔 고개)에서 경인철도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한강 철교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지형이 평탄하여 공사가 쉽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개통 당시 정차장은 인천~축현~우각동~부평~소사~오류동~노량진(영등포역에서 서울역 쪽으로 치우친 지점)~용산~남대문~서대문(현 이화여자고등학교)이었다.

1899년 경인철도의 개통으로 도보와 우마차에 의존하던 조선의 육상 교통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일본은 항구와 주요 내륙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를 조선 교통망의 기본축으로 삼았다. 경인 철도의 개통으로 보행 또는 가마, 마차로 하루 하고도 만나절이 걸리던 인천~서울 길이 철도의 개통으로 1시간 45분으로 단축되어 물자·인력 수송에 있는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경인 철도는 경부선, 경의선 운행으로 개통 당시의 노선이 변경되었다. 1909년에 경인철도의 모든 곡선 구간이 직선화되었고 일부 구간은 복선화되었다. 1918년에는 경인선의 종착역이던 서대문역이 시가지 확장으로 폐지되었고 남대문역은 물동량 증가에 따른 증축공사로 1925년 경성역으로 바뀌었다.

1911년 도로 건설·개선을 위한 법령을 일원화하여 조선총독부령 도로규칙을 제정·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년간 대대적인 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때 생겨난 것이 ‘신작로’이다. 개항 직후 인천은 항만이나 철도교통에 비해 도로교통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경인 철도가 개통되기 전까지 인천과 서울을 이어주는 유일한 육상 교통로는 경인가도였기 때문에 경인가도에 대한 개·보수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1917년 자동차 보급에 대비하여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실시되어 새로운 경인로가 건설되었다. 1920년대 이후 인천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의 관문으로써 항구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인천항의 물동량이 증가하였고 도로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였다. 일제는 경인로를 단순히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교통로 이상으로 인식하여 서울~인천을 축으로 하는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기초로 삼기 위해 수 차례

경인철도 기공식이 열렸던 쇠뿔고개의 과거(좌)와 현재(우)
(출처: 화도진도서관)



개·보수 및 확장 사업을 추진하였다.

여섯 번째 만남

수봉공원
호국공원의 산실

수봉공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주안동과 송의동을 경계로 한 수봉산(107m)을 중심으로 하는 공원이다. 과거 이 지역은 만월산(주안산)에서 이어진 산줄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다. 지금의 주안역 뒤편은 바다와 접한 지역이었다. 당시 송의동, 용현동일대

까지 갯골을 따라 바닷물이 들어와 이곳 일대는 밀물 때면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는 섬처럼 보였을 것이다. 1970년대에 갯골이 매립되어 시가지로 바뀌었고 이곳에 1976년 공원이 조성되었다.

수봉공원은 인천 시민들에게 현충 행사가 많이 진행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수봉산 정상에는 1972년에 만들어진 현충탑이 있다. 6·25전쟁 때 인천 수복의 감격과 조국을 지키고 겨레를 구하다가 전몰한 장병 379위의 영령을 추모

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아울러 통일을 염원하는 인천 자유 회관, 1979년에 건립된 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 인천 지구 전적 기념비, 자유 평화의 탑 등이 있어 호국 정신을 기리는 6·25전쟁과 관련이 깊은 호국 관련 시설이 집중된 공원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현충일 추념식을 갖고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망향의 한을 달래기 위한 실향민들이 제사 및 참배를 드리는 망배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봉공원에는 1979년에 인천 최초로 민간 자본을 투자하여 만든 놀이동산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18종의 놀이 시설이 있어서 어린이와 청



▲ 현충탑

● 수봉놀이공원의 과거(출처:부평구청제공)와 현재



▲ 수봉산 인공 폭포 전경

소년들의 인기 장소였다. 이후 인천 시민들의 휴식 공간 역할을 하였던 대표적인 놀이동산은 시설이 낡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자 2007년 문을 닫고, 노후한 놀이 시설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150석 규모의 야외 무대와 잔디 피크닉장, 야생 화원 등을 조성하였다. 수봉공원 안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인공 폭포가 있다. 원래 이곳은 1960년대 경인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산을 깎아내던 채석장으로 쓰였던 장소였다. 1975년에 인천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AID 아파트가 세워졌다가 구

도심 개발 사업의 하나로 2006년에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 폭포를 조성하였다. 상부 인공 폭포와 육각형 주상절리 형상의 하단 폭포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해주고 있다.

일곱 번째 만남

인천기계공업
고등학교

인천 4.19 혁명의 기폭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규탄시위에 인천의 고등학교 학생들도 앞장서서 참여하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탑이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교정에 있다. 4월 19일을 전후로 학생들은 시위를 계획하였고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는 인천 4.19혁명의 시작점이었다.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위는 주변 학교들을 자극했다.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졌고 경동과출소가 위치해 있던 경동사거리는 시위대의 중심축이었다. 학생들은 시위대를 형성하여 ‘부정선거 다시하자’, ‘경찰국가 타도하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싸리재를 넘어 경동사거리로 나아갔다. 인천 지역의 4.19혁명은 경동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답동 광장, 자유공원, 배다리, 시청 앞 등을 주요 지점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대학생, 시민 등이 가세한 시위의 규모도 다른 지역에 비해 뒤지지 않을 만큼 대규모였다.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교정에 있는 기념탑에는 “젊은 학도들은 겨레의 힘이요 나라의 기둥이다. 특히 정의를 위



▲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4.19 학생의거기념탑

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화랑의 후예들은 이 정권의 부패와 3.15 부정 선거에 항거하여 학생 혁명을 일으켰고 4.19날 인천에서 의거의 횃불을 먼저 높이 밝힌 이가 우리 공고 학생들이라, 이들의 피 끓는 울부짓음은 먼 하늘에 메아리 쳤고 우렁찬 발자국 소리는 지축을 흔들었나니 이 씩씩하고 장한 행동은 천추만대에 빛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덟 번째 만남

인하대학교와 인하공업 전문대학교

학생운동의 중심지,
수준원점이 설치된 곳

인하대학교는 1954년 ‘한국의 MIT 공대 설립’이라는 목적으로 하와이 동포들의 뜻으로 단과대학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인하’라는 명칭은 인천과 하와이의 앞 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 1970년대 유신독재 정권과 80년대 군사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수 많은 학생들이 제적과 투옥을 무릅쓰고 학생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후 인하대학교 학생들도 인천대학교 학생들과 더불어 인천 지역 노동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에 투신하는 등 인천 지역 민주화 운동의 길로 나아갔다.

인하대학교 옆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정에는 우리나라 수준원점이 있다. 측량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토의 높이는 대한민국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수준원점이 인하공업전문대학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수준원점은 벽돌로 쌓은 보호각 내부에 있는 설치대에 자수정으로 ‘4’표시가 음각되어 있다. 수준원점은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 상으로부터 약 26m의 높이에 있다. 이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토 높이(해발 고도)의 기준이 인천이 된다는 것이다. 1913년부터 1916년까지 약 3년 간 인천 앞바다의 간만의 차이를 측정하여 평균 해수면을 정하고, 이 평균 해수면과의 차이를 측량한 뒤 육지에 설치하여 기준으로 삼았다. 1963년 인천 중구 향동 1가에서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⑦ 인하대학교(좌)와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수준원점(우)



답사활동

01 제시된 설명글과 관련된 답사 장소의 이름을 적어보자.

- ① 높은 산자락에 위치해 달이 잘 보인다는 의미로, 유래는 ‘달나라 천막촌’에서 비롯되었다. 1950년대 말-1960년대 중반 사이에 도심에서 쫓겨난 판자촌 주민들은 정부가 정한 지역에 임시 천막을 치고 살면서 방에 누우면 밤하늘의 달과 별이 보인다고 해서 생겨났다.
- ② 점포 주인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부채, 필통 만들기, 종이공예, 도예, 자수, 규방 공예, 염색, 가죽 등 다양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 ③ 강화도조약 이후 무리하게 개항을 요구하는 일본 등 외세에 대항하기 위하여, 당시 고종이 1878년 어영대장 신정희를 파견하여 진과 포대를 설치하게 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 ④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동네, 개항 이후 일본인들에게 개항장 일대 삶의 터전을 넘겨줘야 했던 조선인들이 모여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 주변에 헌책방이 들어서면서 지성인들의 사랑방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 ⑤ 싸리재를 넘은 경인가도는 광성중·고등학교가 위치한 도원산의 아랫자락인 고개(현, 도원교회 앞 도로)를 지난다. 개항 당시 인천부와 부천군의 행정 경계인 이 고개는 인천의 일반 서민들로부터 인천의 끝으로 인식되었다.
- ⑥ 정상에는 6·25전쟁 때 인천 수복의 감격과 조국을 지키고 겨레를 구하다가 전몰한 장병 379위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탑이 있다. 아울러 통일을 염원하는 인천 자유 회관, 학도의 용군 참전기념비, 인천지구 전적기념비, 자유평화의탑 등 6·25전쟁과 관련이 깊은 곳이다.

02 【자료 1, 2】와 관련된 체험 내용을 답사 노트에 정리해 봅시다.

【자료 1】 “학생들은 시위대를 형성하여 ‘부정선거 다시하자’, ‘경찰국가 타도하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싸리재를 넘어 경동사거리로 나아갔다. ...<중략>...정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화랑의 후예들은 이 정권의 부패와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학생 혁명을 일으켰고 4.19날 인천에서 의거의 횃불을 먼저 높이 밝힌 이가 우리 공고 학생들이라.

【자료 2】



활동	답사노트
①【자료1】의 밑줄 친 ‘부정선거 다시하자’, ‘경찰국가 타도하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②【자료1】과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것인지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정리해 보자.	
③【자료2】와 같은 시설을 설치한 이유를 간단히 서술해 보자.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 단원

- 중학교 3학년 사회 : 1. 도시의 위치와 특징
- 중학교 3학년 역사 : 2. 자본주의와 사회 변화, 3. 민주주의의 발전

■ 활동목표

- 도시의 의미와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도시 내부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 개항 이후 한국 경제가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영향받았음을 설명할 수 있다.
- 4·19 혁명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습활동

- 활동1 : 도시의 역사적 명소 상상 그리기
 - 체험한 장소와 관련된 옛 사진 모으기
 - 장소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정리하기
 - 선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소를 설명하는 밑그림 그리기
 - 그린 그림과 함께 명소에 대해 발표하기
- 활동2 : 4·19 혁명 관련 글쓰기
 - 4·19 혁명 과정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기
 -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와 시, 일기, 편지 등의 방법 선택하기
 - 현재의 시점이 아닌 4·19 혁명 당시의 학생으로 글쓰기
 - 자신이 쓴 글 발표하고 친구들과 공유하기

인천의 동구, 중구, 그리고 미추홀구의 여러 거리를 거닐다 보면 인천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상징적인 장소들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개항과 더불어 자유공원 일대에서 쫓겨난 조선인들이 살던 송현동 마을, 갯골을 따라 배가 들어와 정겨운 시장이 열린 배다리 일대, 6·25전쟁 직후 피난민들이 모여 달동네를 이루었던 수도국산, 서울로 가는 옛길에서 만난 싸리재고개, 황굴고개, 경인선의 기공식이 열렸던 쇠뿔고개 등은 지금은 기억 속에 잊혀졌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과

생각해 볼 거리

거 인천에서 어떠한 곳이었던지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6·25전쟁에서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 헌화한 호국영령들을 기리는 수봉공원,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인천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치 참여 정신을 느낄 수 있었던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의 체험을 통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학생들과 함께 우리나라와 내 고장을 위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지리교과연구회, 1995, 인천사랑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인천시교육청
- 조민선 외, 2012, 선생님과 떠나는 즐거운 인천 여행, 인천남부교육지원청
- 장양기 외, 2015, 인천사랑 테마형 체험학습 길라잡이, 인천시교육청
- 이영민, 2005, 『경인선 철도와 인천의 문화지리적 변화』, 인천학 연구 제4호
- 인천지리의 재조명, 2014, 인천역사자료관
- 인천에서 민주화운동을 만나다, 2014,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영상

- 인천방송뉴스, 2019. 9. 17, 옛 물길 수문통 복원 시동
- 부천문화원, 2019년 경인철도 119년, 기적이 가져온 기적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2019년 청소년민주체험교실 영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협회, 2011년 역사다시보기 - 4.19 혁명

인터넷 자료

- 인천광역시교육청 화도진도서관 <http://history.ice.go.kr/>
- 인천광역시 동구청 www.icdonggu.go.kr/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https://idph.kr/>

1-2

인천의 포구와 삶

지리|역사

체험코스

인천역 → ① 북성포구 → ② 만석부두 → ③ 갯이부리마을
→ ④ 화수부두

전체 거리 5.6km(1시간 23분)
구간별 거리 인천역~북성포구(1.1km / 16분)
북성포구~만석부두(2.5km / 36분)
만석부두~갯이부리마을(1km / 15분)
갯이부리마을~화수부두(1km / 16분)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2-8. 사람이 만든 삶터, 도시
중학교 역사 2-3 대한민국의 수립

키워드

#포구 #부두 #갯이부리 아이들 #실향민



범례

- 답사지점
- 답사경로
- 구

1-2

인천의 포구와 삶

- 항구도시 인천
-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꿈

인천은 '해양도시'다. 바다는 인천이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그렇다. 바다와 사람을 연결하는 항구는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자원이다. 바다와 함께 한 중·동구는 1883년 개항 이래 항구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발전해왔던 곳이다. 개항기와 전쟁, 산업화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 몰려왔고, 인천을 대표하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중구에 있던 인천광역시청이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면서 도시의 기능이 점점 축소되어 인천 시민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다. 어제의 빛과 오늘의 어둠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다.

도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중·동구는 투자 가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지만 아직도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곳이기도 하다. 중·동구는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를 대변하는 곳으로 이곳은 수많은 시간을 품고 있다. 그 시간 속에는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녹아 있고, 어떠한 개발로도 흉내 낼 수 없는 잠재력이 있다. 이 장에서는 가장 치열한 삶의 모습이 녹아있는 포구의 모습을 통해 중·동구의 미래를 상상해보고 어떠한 공간이 삶의 조건을 나아지게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보자.

첫 번째 만남

북성포구

노을이 아름다운 포구



현덕의 소설 「남생이」 첫줄에 '호두형으로 조그만 항구 한쪽 끝을 향해 머리를 들고 앉은'이라 소개되는 호두형 포구인 북성포구는 인천 유일의 갯벌포구로 개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북성의 지명은 조선시대 제물포에 있던 군사진지인 진성(鎭城)의 북쪽에 있다 하여 '북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인천역을 중심으로 한 중·동구 지역은 개항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1895년부터 2004년까지의 지도를 보면 이 일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항-일제 강점기-근대화-산업화를 거치면서 지난 세대의 굴곡과 시대의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인천지역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삼국시대 이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려 건국 이후 기록에서 무역기지·말 목장·해안 방어의 요충지, 행궁으로 영

종도, 삼목도¹, 용유도, 월미도에 대한 기록 정도만 있을 뿐 중·동구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1876년 강화도조약과 1883년 인천의 개항 이후 중·동구 지역에 지도상에서도 알 수 있을 정도의 큰 변화가 일어난다.

개항 이후 일본, 청나라, 서구 열강은 우리나라에 대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인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계를 설치하였다. 그 결과 중구 일대 지역에 일본 조계, 청국 조계, 각국 조계가 형성되었고 인천항 주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일어났다. 이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던 조선인들은 만석동, 북성동 등지로 밀려나게 되었다. 일본 조계지가 설정된 지역은 지금의 중구청 일대로 굉장히 협소하였다. 조계지 설정 후 얼마되지 않아



▲ 인천항 주변 지역의 변화(1895) 고종20년(1883) 개항 이전에 인천부 다소면 선창리(중구 지역), 인천부 다소면 고잔리와 송림(동구 지역)리, 장천리(미추홀구 송의동 지역)의 일부를 개항 후에 제물포(濟物浦)라 하였다.

<출처 : 인천역사자료관, 2011, 역사와 문화지리로 보는 인천, 인천광역시>

1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에 있던 섬으로 현재는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매립되어 사라졌다.



▲ 인천의 조계지
 <출처: 나채훈, 박한섭, 2006, 인천 개항사, 미래지식>

일본은 설정된 조계의 자치부담금과 지세 등의 이유로 조선거주지(내동, 답동, 전동)로 확장을 피하면서 항동, 해안동, 만석동 등지의 해변을 매립해서 거주지역을 확장하였다. 그 결과 조선인은 점점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하의 인천항은 경인지역의 관문항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조수 간만의 차가 커 항구 운영에 불리하였다. 1917년 지도에서 월미도 연육 제방과 도크(dock)²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1년에 착공

하여 1918년에 완성됨에 따라 인천은 명실상부 국제적 관문도시이자 무역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인천항은 남항과 북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남항(지금의 연안동 일대)은 무역 중심의 상업항이었고, 북항은 북성동에서 울도(지금의 신현동, 원창동 일대)에 이르는 공업지대를 배후기지로 삼고 있는 공업항이었다. 192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대륙 침략 병참기지 정책의 일환으로 북항에 대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 인천항 주변 지역의 변화(1917)
 인천부의 영역은 인천부청(현 중구청)을 정점으로 한 중심 시가지와 그 외곽의 송현리, 송림리, 화평리, 우각리까지였다. 중심 시가지는 화방정, 해안정, 본정, 산수정, 송판정, 중정, 항정, 화정 등과 같이 일본식 지명이 붙었고, 조선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외곽 지역은 모두 10개의 리로 편성되었다.
 (출처: 인천역사자료관, 2011, 역사와 문화지리로 보는 인천, 인천광역시)

해방 후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가 도래하자 1966년부터 1974년까지 8년에 걸쳐 제2선거를 완공하였고, 1990년과 2005년에도 갑문을 증설하는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인천부의 영역은 인천부청(현 중구청)을 정점으로 한 중심 시가지와 그 외곽의 송현리, 송림리, 화평리, 우각리까지였다. 중심 시가지는 화방정, 해안정, 본정, 산수정, 송판정, 중정, 항정, 화정 등과 같이 일본식 지명이 붙었고, 조선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외곽 지역은 모두 10개의 리로 편성되었다.

2005년에 갑문을 증설하는 공사를 마무리되었다. 현재 인천항의 갑문과 수로는 월미도와 소월미도 사이에 건설되어 있으며, 제1부두부터 제8부두까지 총 8개의 부두가 각기 특화된 물품을 처리하고 있다.

북성포구는 1960년대부터 좋은 생선과 새우젓을 구입할 수 있는 파시가 열렸다. 지금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상파시가 남아있는 곳이다. 파시(波市)는 바다나 부두에 있는 배 위에서 열리는 생선 시장을 말한다. 갯벌에서 만조 시에 배가 들어오면 주로 선상에서 매매가 이루어진다. 북성포구의 파시 역사는 길다. 196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 밀물과 썰물의 차가 가장 낮을 때 대형 선박의 접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다.

는게 어민들의 이야기이다. 물때에 맞춰서 열리기 때문에 1주일에 2~3일 정도 파시가 열린다. 새우젓, 주꾸미, 꽃게, 망둥어, 광어 등 다양한 어류를 싱싱하고 값싼 가격에 살 수 있어 단골들이 잊지 않고 찾고 있다고 한다.

북성포구는 '똥마당'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피란민들이 만석동과 북성동에 모여 살던 시절, 화장실과 하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공동화장실의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그때 배설물들이 밀물을 만나 마을에 떠다니던 모습 때문에 '똥마당'이라는 오명이 지금껏 전해오고 있다.

예전에는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획량의 대부분이 선상에서 모두 판매될 정도로 호황을 이루었지만, 어민들의 고령화, 환경오염과 바다 매립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항구로서의 기능은 점점 쇠퇴하고 있다. 현재는 공장지대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변하였다. 최근에 이곳은 비가 온 후에 뜨는 무지개가 일품이고 일몰이 아름다워 그 모습을 담기 위해 사진 동호인들의 출사지로 손꼽힌다.

이곳에서는 북성포구 준설도 투기장 매립 공사가 진행중이다. 주민들의 악취 민원 등이 계기가 되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시, 중·동구가 함께 협약을 맺고 추진된 사업이다. 북성포구 일대 갯벌 7만 6,010㎡(동구 5만 7,560㎡, 중구 1만 8,450㎡)가 매립되었다. 어민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착공과 중단을 반복해오다가 2018년 11월 북성포구 매립 관련 주민 간담회에서 '어항구 지정'을 약속하는 등 민원을 해결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두 번 째 만 남

만석부두

만선의 꿈을 꾸다

만석부두는 화수부두, 북성포구 중 수심이 제일 깊고 바다와 제일 가까운 부두이다. 만석은 나라에 바치던 삼남지방(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현물(벼, 콩, 보리) 등을 각 고을에서 한양으로 납부하기 위해 곡식을 운반해 이곳에 쌓았는데 그 수량이 만 석이나 된다고 해서 만석이라 부르던 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름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이래로 이곳이 해상교통의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1960~70년대의 인천을 대표했던 부두 중 한 곳인 만석부두는 화수부두와 함께 연안부두³가 생기기 이전까지 인천의 수산물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왕성한 상권이 형성되었던 곳이다. 영종도를 왕복하는 정기선이

3 연안여객터미널과 국제여객터미널 일대를 연안부두라 한다. 1960년 후반에 급증하는 무역량을 소화하기 위해 인천 내항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흙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곳이다.



오갔고, 인천 앞바다의 여러 섬들을 운항하는 여객선들의 출발지이기도 하였다. 1973년 연안부두가 건설된 이후, 만석부두에서 영종도로 가는 항로는 1976년 폐쇄되고 그 기능이 인천항 연안부두로 통합됐다. 어항으로서의 만석부두의 흔적은 동구 만석동 일대에 자리한 주꾸미 음식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 주꾸미 집이 많은 이유는 1970~80년대 만석부두의 어선들이 주꾸미를 많이 잡았기 때문이다. 한 때 이 일대에서 '주꾸미 축제'가 열리기도 했지만,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축제도 사라졌다.

만석부두에는 만석동에 살아온 피란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굴막이 있었다. 부두가 가까운 만석동에서 살아온 피란민들은 만석부두에서 배를 타고 영종도, 팔미도 등지로 나가 직접 캐온 굴을 까서 연안부두 상인들이나 굴막을 찾는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만석부두 굴막은 활기가 넘쳤지만, 지금은 대형 마트 등에서 손쉽게 손질된 굴을 구입할 수 있기에 굴막에서 굴을 사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세 번 째 만 남

팽이부리 마을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팽이부리마을은 김중미 작가의 창작동화 '팽이부리말 아이들'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의 배경이 된 곳이다. 바닷가엔 고양이(팽이)같은 울음소리를 내는 갈매기가 많이 있어 고양이섬(팽이섬, 묘도)이라 불리는 섬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때만 해도 주민이 20~30가구밖에 되지 않던 작은 마을이었지만 일본에 의해 이 일대가 매립되어 육지화되고 중국 침략을 위한 군수품 공장 건설과 주거지가 조성되면서 팽이부리마을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다고 한다. 6·25 전쟁



▲ 경로당



▲ 해맑은 김치공장



▲ 팽이부리마을 보금자리 아파트



▲ 우리미술관

중에 황해도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거처를 마련해 정착하면서 쪽방촌이 형성되고 마을을 이루었다. 김중미의 소설 '팽이부리말 아이들'에는 황해도 피란민의 구체적 생활상이 소개되어 있다. 인천에는 황해도 출신의 피란민이 제일 많은데 그 이유는 지리적 접근성 때문이다. 황해도의 남쪽 지역(웅진, 연백, 해주)과 인접해 있어 뱃길을 이용한 피란처로 인천을 택하였다. 피란민들은 인천으로 바로 오거나 강화도, 연평도의 섬을 피란지로 택했다. 피란 시기 1951년 1·4후퇴 때가 가장 많았다. 그들은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 믿었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바닷가 근처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부두를 따라 만석동, 송월동, 화수동, 수도국산 등이 피란민촌을 이루었다. 가진 것 없던 피란민들은 나무로 열기설기 지은 판자촌을 유일한 보금자리로 삼았고, 이런 무허가 주택들이 모여 팽이부리마을이 만들어졌다.

현재 팽이부리마을은 변화하고 있다. 2013년 보금자리 아파트단지 건설이 부족하지만 거주시설이 개선되었고,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과 기획전을 통해 동네 주민분들이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미술관', 인천시 사회적 기업인 '해맑은 김치공장'과 굴막 공동작업장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지자체-지역기업-주민 간의 상생은 피란민촌, 쪽방촌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팽이부리마을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데 기여 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팽이부리마을은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어, 팽이부리마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방문하고 있다.

네 번 째 만 남

화수부두

화려했던 시절은
기억 너머로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진행된 갯벌의 매립을 통해 북성포구와 만석부두, 그리고 화수부두가 생겼다. 화수부두는 1970년대까지 수도권에서 알아주는 새우젓 전문시장이었으며, 웅진, 강화, 충청권의 어선들이 드나들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항 중의 하나였다.

화수부두의 발전은 한국전쟁 이후 황해도 연백, 웅진 등 이북에서 피난 온 실항민들이 정착해 살면서부터이다. 자연항으로서 태풍이 와도 안전하게 어선을 보호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실항민들이 모여들어 보금자리를 마련하였다. 지리적으로 화수부두는 긴 갯골로 이루어진 포구이다. 긴 갯골을 따라 배가 정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1970년대까지 화수부두는 100여 척의 배들이 연평·백령 등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싣고와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호황을 이루었다. 화수부두는 조기항으로 유명하지만 새우젓항으로도 유명했다. 1970년대까지 한달에 두 번씩 새우젓 전용어선들이 입항해 대규모 새우젓시장이 열렸으며 충남지역 어선까지 화수부두를 찾아 새우젓을 내렸다. 한번 새우젓 시장이 열리면 부두 입구에서부터 상인과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한때는 인천 제2의 어항으로 호황을 누리던 화수부두는 무분별한 매립으로 갯벌이 줄어들고 바다가 오염되면서 어획량이 줄었다. 게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안부두와 대형어시장이 생기면서 지금은 어부들이 잡은 고기들은 연안부두에 넘기고 화수부두는 정박지 역할만 하고 있다.

답사활동

01 답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써보자.

북성포구

만석부두

괭이부리마을

화수부두

02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친구들과 이야기 해보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

해결방안

03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괭이부리 마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공통점

차이점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 단원

- 중학교 사회 : 2-8. 사람이 만든 삶터, 도시
- 중학교 역사 : 2-3. 대한민국의 수립

■ 활동목표

- 도시 문제를 해결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 살기 좋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6·25 전쟁이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 학습 활동

- 활동1 :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
 - 갱이부리마을의 도시 재생사업에 대해 조사하기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 중 만족하는 점과 만족하지 못하는 점 적어보기
 -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기
- 활동2 : 6·25 전쟁이 남긴 것들
 - 6·25 전쟁 당시의 피란민의 이동 경로 조사하기
 - 피란민의 생활상에 대해 정리하기
 - 6·25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조사하기
 -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기존의 구도심 개발 사업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단순한 건설 사업이었다. 개발의 혜택은 원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의 구조였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역사와 문화는 파괴되고, 살아 숨쉬는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삶의 질이 나아지기는 커녕 원주민을 세상 끝으로 몰고갔다. 이에 대한 대안은 마을 공동체성을 보존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어야 하고, 마을 만들기의 모든 사업은 삶의 터전, 삶의 질의 개념에서 출발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볼 거리

갱이부리마을 정비 사업은 마을 공동체 문화와 기존 주거지는 살리고 임대주택, 공원, 주차장, 마을 공동 작업장 등을 조성해 주민 자활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쇠퇴하던 마을에 숨결을 불어 넣었다. 이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어 공간의 지속 가능성과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재생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경인일보 특별취재팀, 2019, 인천항 이야기, 다인아트
- 경인일보 특별취재팀, 2001, 격동 한세기 인천이야기, 다인아트
- 도시재생사업단, 2017,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이야기, 한울 아카데미
- 인천역사자료관, 2011, 역사와 문화지리로 보는 인천, 인천광역시
- 나채훈, 박한섭, 2006, 인천 개항사, 미래지식

인터넷 자료

- 지역N문화 www.nculture.org
-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https://enews.incheon.go.kr/>

1-3

인천의 도시형성과 근대교육의 탄생

역사 | 문화

체험코스

① 동인천역 → ② 수도권산달동네박물관 → ③ 동명초
→ ④ 배다리 → ⑤ 창영초 → ⑥ 영화초 → ⑦ 도원역
→ ⑧ 인천축구전용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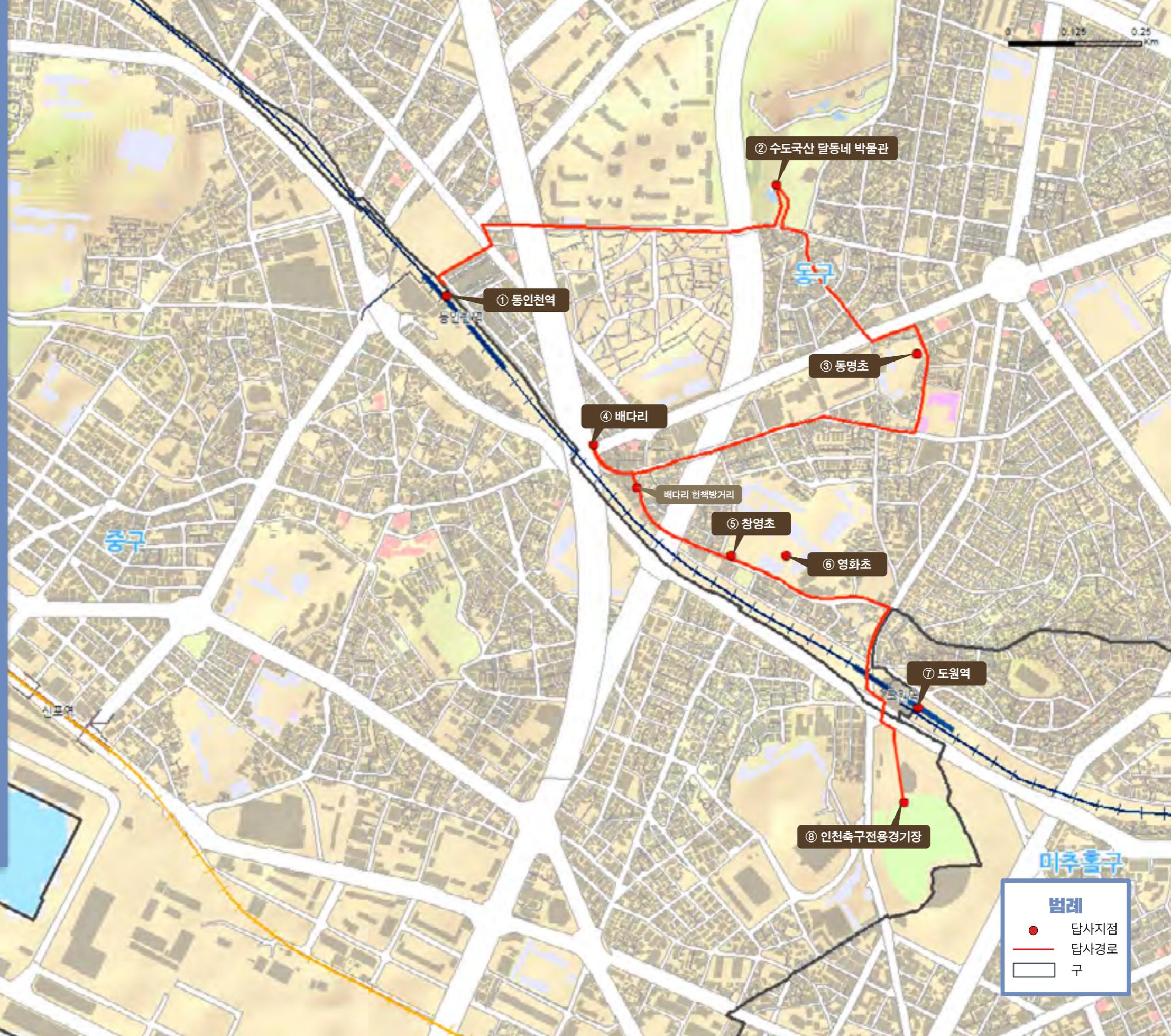
전체 거리 3.4km(48분)
구간별 거리 동인천역~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800m / 10분)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동명초 (600m / 8분)
동명초~배다리 (550m / 8분)
배다리~창영초 (350m / 5분)
창영초~영화초 (100m / 2분)
영화초~도원역(경인철도최초기공지비) (600m / 10분)
도원역~축구전용경기장 (400m / 5분)

교육과정

초등학교 3-1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초등학교 3-1 사회 3. 교통과 통신 수단의 변화
초등학교 4-1 사회 1. 지역의 위치와 특성
초등학교 4-1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키워드

#인천의 과거와 현재 #수도국산 달동네 형성 #인천의 근대교육



범례

- 답사지점
- 답사경로
- 구

1-3

인천의 도시형성과 근대교육의 탄생

- 경인선(역)의 역할
- 인천의 도시형성 과정
- 인천 근대교육의 탄생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해주는 인천 시간 여행

바다가 땅으로, 판자촌이 아파트로?

인천국제공항, 송도국제도시 등으로 대표되는 인천의 현대적인 모습만을 알고 있는 어린 세대들과 외국인에게는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과거에 인천의 모습이 어땠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성세대라면 그 시절,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달동네의 모습을 통해 옛 추억과 향수를 떠올릴 수도 있고, 어린 세대라면 부모님(또는 조부모님)이 유년기, 학창 시절을 보냈을 과거의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1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통해 근대교육이 어떠한 변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인천의 옛날' 모습은 '현재의 인천'과 연결하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인천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인천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첫 번째 만남

동인천역

20세기 인천의 중심지



동인천역 모습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경인선의 역이다. 축현역, 상인천역 등의 이름으로 불리다가 1955년에 동인천역으로 변경되었다. 구한말 인천부 지역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 일대를 동인천이라고 불렀으나, 현재의 지리상으로는 인천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이 일대를 통상적으로 동인천이라 칭하고 있다. 인근에는 답동성당이나 신포시장, 대한서림, 애관극장, 내리교회 등 다소 오래된 구시가지가 있다. 특히 자유공원과 신포동 일대에는 구한말 일제강점기 개화기 유적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남부역 앞(신포동 방향)은 역 남측을 중심으로 답동사거리까지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북광장 앞(송현동 방향)은 창영동 배다리 인근까지 중앙시장(일명 양키시장)과 송현시장 등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일대 상권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인선 북복선 마지막 역으로, 용산 - 동인천 간 급행열차가 시·종착한다.

두 번째 만남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 여행

수도국산의 원래 이름은 만수산(萬壽山) 또는 송림산(松林山)이다. 주변 일대가 매립되어 바다가 땅으로 변하고 공장이 지어지고 사람이 몰려들기 전에는 바닷가의 조용한 소나무 숲이었다. 소나무를 베어내고 언덕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달동네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송림산이 수도국산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데에는 근대 개항기 인천의 역사와 관련이 깊다. 인천은 본래 우물이 적을 뿐 아니라 수질 또한



▲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전경

나빠서 개항 이후 증가한 인구와 선박으로 물 확보가 큰 고민이었다. 일제 통감부의 강압에 의해 대한제국은 1906년 탁지부에 수도국을 신설하고 인천과 노량진을 잇는 상수도 공사에 착수하였다. '수도국산'이라는 명칭은 이곳에 수도물을 담아두는 배수지(配水池)를 설치하면서 생겼다.

달동네는 높은 산자락에 위치해 달이 잘 보인다는 의미로, 유래는 '달나라 천막촌'에서 비롯되었다. 1950

년대 말-1960년대 중반 사이에 도심에서 쫓겨난 판자촌 주민들은 정부가 정한 지역에 임시 천막을 치고 살면서 밤에 누우면 밤하늘의 달과 별이 보인다고 해서 생겨났다. 달동네 주민들은 국가 소유의 땅을 무단 점거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자주 철거되거나 집단 이주되었다. 따라서 쫓겨나면 다시 도시의 다른 곳에서 무허가 집을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였다. 달동네는 산비탈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집들이 자리하면서 이루어졌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1960~70년대 달동네 서민의 생활상을 테마로 한 체험중심의 전문박물관으로 2005년 10월 25일에 개관하였다. 인천에 오래 거주한 분들이 고향처럼 느끼는 수도국산 달동네의 최초 시작은 1908년 송현배수지가 만들어질 무렵이다. 이후 한국전쟁과 1960~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며 크게 번성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 도시 재개발로 인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수도국산 달동네의 삶을 되살리고자 옛 달동네 터에 박물관을 건립하였다. 박물관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수도국산 달동네 서민의 평범한 삶과 생활을 박물관의 테마로 삼아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이해하기 쉽게 전시함으로써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세 번 째 만 남

인천동명초등학교

애국, 애족의 민족정신

1930년 9월 10일 개교한 뒤, 1939년 일제의 강압으로 '소화강습회'로 명칭을 변경했고, 1945년 다시 교명을 '동명'으로 복원했다. 창립자 박창례는 일제강점기 인천 여공들의 대모와 같은 존재다. 방 한 칸을 빌려 공장에서 일하며 공부하지 못한 소년·소녀 100여 명을 모아 야학을 시작하여 우리 말과 역사를 가르쳤다. 광복 후 동명초등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으로 지내면서 식모 생활 등을 하며 어렵게 지내는 8~18세 소년



▲ 인천동명초등학교 전경

120명을 교육했다. 교지 총면적은 6,893㎡이며, 교육목표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춘 어린이, 정보 사회를 살아갈 정보 활용 능력을 갖춘 어린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갖춘 어린이를 육성하는 것이다.

네 번 째 만 남

배다리

추억과 낭만이 있는
헌책방 거리

배다리는 오래전, 작은 배가 바닷물이 들어오던 수로를 통해 철교 밑까지 드나들었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인천 동구 금창동과 송림동 일부를 가리킨다. 개항 이후 일본인들에게 개항장 일대를 빼앗긴 조선인들이 모여 형성된 마을이다. 피난민들이 궁여지책으로 헌책을 배다리 시장에 내다 팔면서 자연스럽게 배다리 헌책방 거리가 형성되었다. 현재 헌책방 거리에는 5개 남짓의 책방만이 남아 있다. 한때 학생들과

지성인들로 북적였던 책방은 세월을 품은 채 추억의 향기를 불러일으킨다.

배다리 헌책방 거리를 걷다 보면 골목 담장에 그려진 벽화를 만날 수 있다. 이곳 사람들의 옛 모습과 현재의 삶이 벽화로 그려져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조용히 붙잡는다. 배다리에 서면 오래된 풍경들이 한달음에 확 다가오지만 느끼고 잔잔한 풍경 속에서도 새로운 문화가 꽃피고 있다.



▲ 배다리

다섯 번째 만남

인천창업초등학교

인천 최초의 공립초등학교

1907년 5월 6일 신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인천의 선각자들이 뜻을 모아 세운 인천 최초의 공립학교였다. 1919년 3.1 독립선언이 발표되자, 인천공립보통학교 학생 김명진(당시 18세), 이만용(18세), 손창신(16세), 박철준(19세) 등이 인천공립보통학교 학생들과 함께 1919년 3월 6일 동맹휴학을 일으키고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1992년 본관 교



▲ 인천창업초등학교 전경

사(校舍)가 인천광역시 지방유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되었다. 이 건물은 외국의 도움 없이 우리 민족의 자본으로 건립되었으며, 초기 근세사회의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일자형 단순 배치 형태이다. 특히 3·1운동, 6·25전쟁 등 역사의 흔적이 교내 곳곳에 남아 있는 학교로서, 각종 유물들을 수집 분류해 학교 역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유명 졸업생으로는 자신의 몸으로 수류탄을 감싸안아 많은 부하의 생명을 구하고 순국한 강재구 소령과 미술사학자 고유섭 그리고 야구선수 류현진등이 있다.

여섯 번째 만남

영화초등학교

인천 최초의 사립초등학교



▲ 영화초등학교 전경

영화초등학교는 인천 지역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으로, 기독교 선교와 여성계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892년 4월 미국 여선교사 존스(G. H. Jones)가 인천 중구 내동에 있던 내리교회에서 사립 영화학당으로 설립하였다. 영화초등학교 본관동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9호로 지

일곱 번째 만남

도원역

복숭아밭의 상전벽해(桑田碧海)



인천광역시 동구 금창동 179-1번지에 있는 경인선(지하철 1호선) 역 이름이다. 경인선에 있는 기차역으로 제물포역과 동인천역 사이에 있다. 1994년 7월 11일 영업을 시작하였다. 옛날에 주위에 복숭아밭이 많이 있어 유래된 마을 이름을 따서 지하철 개통 때 역 이름으로 붙였다. 역 앞에는 한국철도최초기공지비(韓國鐵道最初起工址碑). 1897년 인천부 우각현에서 가진 한국 철도의 최초 노선인 '경인선 철도 기공식'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다. 광역전철이 운행되며 여객 업무를 담당한다.

여덟 번째 만남

인천 축구전용경기장

인천에서 '유럽 축구'를 즐긴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인천 유나이티드 FC가 2012년 시즌부터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3년 9월 6일에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평가전인 아이티전이 개최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원래는 '송의 아레나파크'로 불렸으나 2012년 2월 23일 경기장 명칭이 '인천축구전용경기장'으로 결정되었다.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수용 인원은 약 20,300명이다.

흔히 그라운드와 관중석의 거리가 가까운 경기장을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는 그라운드의 터치 라인과 관중석 첫 번째 줄의 가장 짧은 간격이 약 1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거리가 가깝다. 선수들의 움직임과 숨소리를 웅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모습

씬 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박진감 넘치는 경기 관람을 할 수 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유럽식 축구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경기 중 선수단이 앉아 있는 벤치가 관중석 앞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대부분의 국내 축구장에서는 본부석 1층에 앉아 경기를 볼 경우, 그라운드와 동일한 높이의 지면에 설치된 벤치 탓에 시야에 방해를 받곤 한다. 하지만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벤치를 관중석으로 포개어 넣어 이러한 맹점을 해결했다.

답사활동

01 제시된 네임카드에 동인천역 일대에 위치한 장소 및 건물(기관)의 이름을 적어보자.

문제 1	문제 2	문제 3
Q1. 인천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야.(5점). Q2 미국 여선교사 존스가 설립했어.(3점). Q3 처음에는 '영화학당'이라고 불렸어.(1점). 내 이름은 _____이야.	Q1. 제물포역과 동인천역 사이에 있는 기차역이야.(5점). Q2 역 앞에는 한국철도최초기공지비가 있어.(3점). Q3 옛날에는 주위에 복숭아밭이 많이 있었다.(1점). 내 이름은 _____이야.	Q1. 바닷물이 들어오던 수로를 통해 철교까지 지나들었던 곳이래.(5점). Q2 개항 이후에 형성된 마을이래.(3점). Q3 지금은 헌책방 거리로 유명해.(1점). 내 이름은 _____이야.
문제 4	문제 5	문제 6
Q1. 위치한 곳의 원래 이름이 만수산, 송림산이었어.(5점). Q2 달동네 서민의 생활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야.(3점). Q3 수돗물을 담아두는 배수지 덕분에 산 이름이 수도국산으로 바뀌었다.(1점). 내 이름은 _____이야.	Q1. 원래 이름은 송의 아레나파크였어.(5점). Q2 그라운드와 관중석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3점). Q3 K리그1 인천유나이티드 FC의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어.(1점). 내 이름은 _____이야.	Q1. 인천 최초의 공립초등학교야.(5점). Q2 본관 교사(校舍)가 인천광역시 지방유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되었어.(3점). Q3 미술사학자 고유섭 선생이 이 학교 졸업생이야.(1점). 내 이름은 _____이야.

02 동인천역 일대를 답사하면서 체험한 내용을 답사 노트에 정리해 봅시다.

답사 중 인상에 남는 건물이나 기관의 사진을 찍거나 스케치하여 이곳에 붙여(그려) 봅시다.

건물(기관)의 이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하게 적어 봅시다.

학생 활동	답사 노트
① 동인천역과 도원역은 중심지로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② 옛날의 배다리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고, 생활 모습은 어땠을까요?	
③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의 답사를 통해 부모님(또는 조부모님) 세대의 생활 모습을 상상해봅시다.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 단원

-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사회 :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교통과 통신 수단의 변화
-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 : 지역의 위치와 특성,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 활동목표

-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교통의 발달에 따른 생활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고장을 이해하고 자긍심을 기를 수 있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징을 파악하고 중심지를 탐색할 수 있다.
-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인물을 알 수 있다.

■ 학습활동

- 활동1 :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소개하기
 -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조사하기
 -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소개 계획서 작성하기
 - 문화유산 소개 자료 제작하기
 - 모둠별(개인별)로 제작한 자료 발표 및 공유하기
- 활동2 : 중심지의 역할과 특징 알아보기
 - 중심지의 역할과 특징 조사하기
 - 중심지 소개 자료 제작하기
 - 모둠별(개인별)로 제작한 자료 발표 및 공유하기

1. 동인천역과 도원역은 경인선의 정차역이다. 동인천역과 도원역에서 전철을 타면 어디를 갈 수 있을지 알아보자.
2. 근대교육이 시작될 당시, 인천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어떤 모습의 교육을 받았을지 생각해보자. 당시의 근대교육과 지금의 학교 교육의 모습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자.
3. 수도권산 달동네 박물관에서 경험한 모습을 오늘날의 생활 모습과 비교해 보자.
4. 인천의 도시형성 과정을 통해 지역별로 서로 다른 도시의 모습으

생각해 볼 거리

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학급 친구들과 토의해보자.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인천민주로드 길잡이, 2019,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 수도권산달동네박물관 http://www.icdonggu.go.kr/open_content/museum/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 인천광역시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incheontogi>
- 인천투어 <http://itour.incheon.go.kr/>
- 집요정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tarvwhy/221388191878>

1-4

개항장 일대와 종교의 전파 과정

역사 | 종교 | 교육

체험코스

① 인천신사터 → ② 답동성당 → ③ 애관극장 → ④ 내리교회
→ ⑤ 성공회 내동교회 → ⑥ 자유공원 → ⑦ 의선당 →
⑧ 공화춘 → ⑨ 대불호텔 → ⑩ 인천개항박물관 → ⑪ 근대건축전시관
→ ⑫ 한국근대박물관 → ⑬ 신포우리만두

전체 거리 4.1km(1시간 12분)

구간별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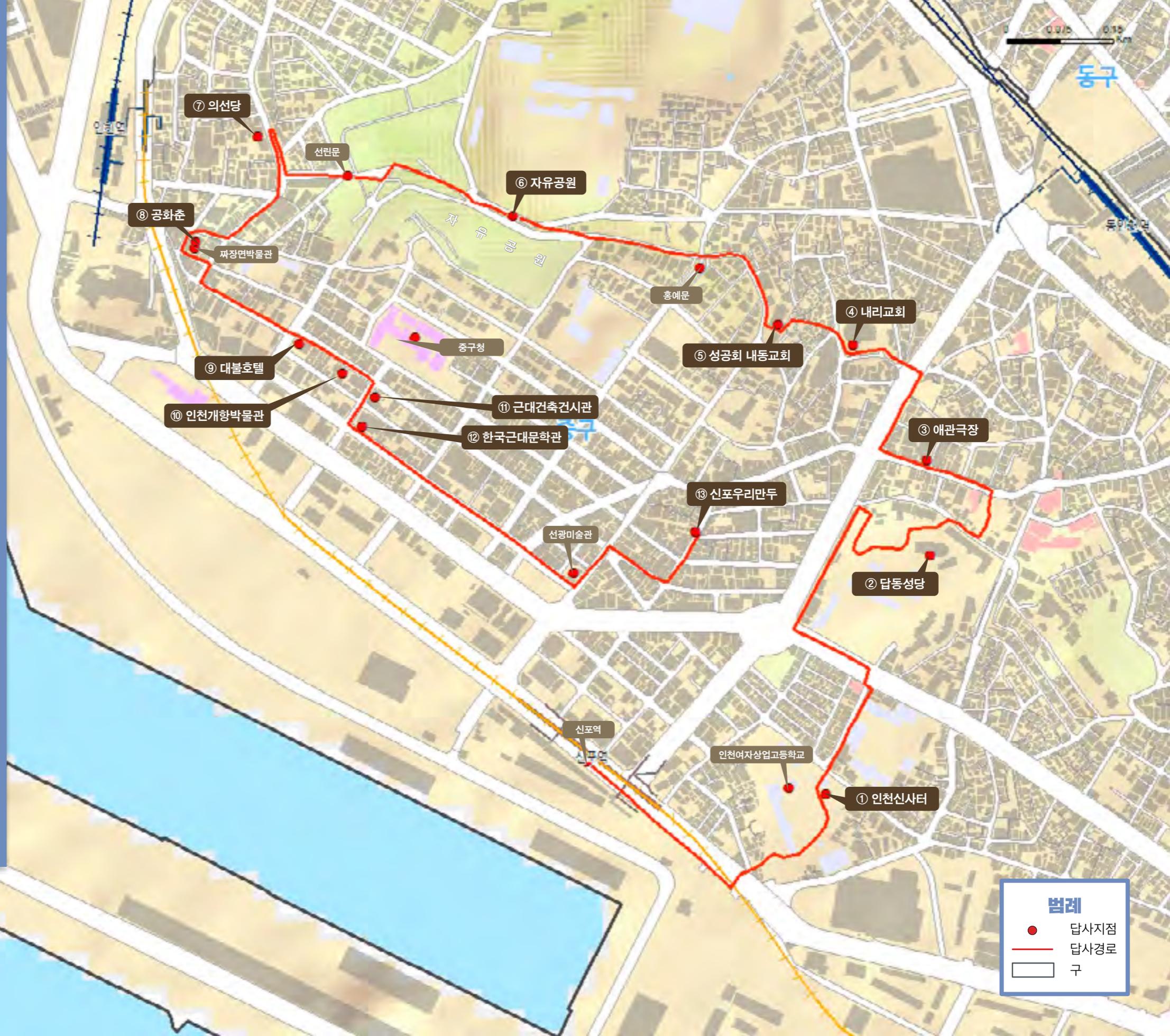
- 신포역~인천신사터(인천여상 내) (450m / 7분)
- 인천신사터~답동성당 (600m / 10분)
- 답동성당~애관극장~내리교회(150m,260m / 10분)
- 내리교회~내동교회 (200m / 2분)
- 내동교회~자유공원 (520m / 10분)
- 자유공원~의선당 (450m / 8분)
- 의선당~공화춘(짜장면박물관) (260m / 5분)
- 공화춘~대불호텔~개항박물관~근대건축전시관
~한국근대박물관(250m,100m,100m,100m / 10분)
- 한국근대박물관~신포우리만두(650m / 10분)

교육과정

중학교-3학년-역사 6. 근현대사회의 전개

키워드

#개항장 #최초 #조계지



범례

- 답사지점
- 답사경로
- 구

1-4

개항장 일대와 종교의 전파과정

- 개항장에서 시작된 다양한 종교
- 조계지의 역사가 남긴 이국적인 풍경
- 레트로 감성, 낡은 건물과 거리의 재탄생



인 천 의 정 체 성 과 종 교 의 역 할

인천은 도시가 간직해온 세월만큼 다양한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공간이다. 인천을 떠올릴 때 어떤 사람은 배가 다니는 항구 도시를 생각하는 한편, 또 어떤 사람은 고층 빌딩에 외국인들이 오가는 거리를 상상한다. 이처럼 인천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빛깔 중에서 가장 “인천다움”이 묻어나는 색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개항장이 소재한 인천 중구 일대를 돌아보면 이미 130여 년 전부터 국제도시의 기능을 갖췄던 인천의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개항기 인천은 격동하는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맞이한 도시였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문을 열게 되면서 생소한 문물과 낯선 이들이 밀려들었고, 각국의 조계지가 조성되며 다채로운 모습의 생활 터전이 만들어졌다. 워낙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그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전해줄 수 있는 다양한 종교들이 자리하기도 했다. 일본의 신사, 중국식 사찰, 기독교계 교회 등이 밀집되었던 이유이다. 또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인천은 최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개항장 거리를 문화관광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며 그 시대를 추억할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고,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켜나가고 있다. 과거의 것을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항장 거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과거의 흔적들은 인천의 정체성과 뿌리를 투영하는 것들이다. 여기에서는 중구 일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근대 인천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과거의 삶을 체험함으로써 인천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첫 번째 만남

인천신사 터 (현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치열했던 역사를 지나,
여성 교육의 요람으로

해방 직전인 1945년에 개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독특한 구조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 깔끔한 교정과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유독 오래되어 보이는 돌기둥, 돌담 같은 것들이다. 이는 일본식 석등, 도리이(신사의 입구에 세워진 문)의 하단부를 이루던 석조 기단으로 이 곳이 본래 어떤 장소였는지를 전해주는 매개물들이다.

1890년, 이 자리에는 인천신사가 세워졌다. 인천신사는 개항기 인천으로 몰려든 일본인들이 세웠으며, 타지에서 나름의 고초를 겪으며 생활하던 그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는 종교 시설이었다. 또한 인천신사 주변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당시 일본인들은 이곳을 동(東)공원이라 불렀으며 각종 행사나 연회가 열려 그들에게 휴식과 유희를 제공하는 쉼터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 도로에서 본 인천여성사 외관 모습

또 이곳은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신사 자체가 천황을 숭배하는 곳으로 식민지인 조선과 본국인 일본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기 위한 의도에서 건축되었다. 이곳에서는 신사 참배가 강요되어 일본 천황에 대한 충정을 보여야 했으며, 태평양 전쟁 당시에는 전승을 기원하는 행사까지 열리던 곳이었다. 일본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장소였겠지만, 일제 강점 아래 놓인 우리 민족에게는 폭력과 압제의 상징이었을 것이다. 광복 이후에는 일제 청산 과정에서 신사 건물들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를 세웠으며, 인천지역의 여성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으로 거듭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교정에 남아 있는 신사의 모습
(석등과 도리이 : 신사의 입구에 세워진 문)

이처럼 인천신사 터는 근현대사의 출발점부터 일제 강점기를 지나 지금까지 세월을 함께 해온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인천의 근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길목에 자리한 이곳은 공간이 품고 있는 세월과 감성만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매력을 느끼게 한다.

두 번 째 만 남

답동성당

서로를 의지한 신앙,
스스로 일어선 역사

대한민국 가톨릭은 수많은 외래 종교중에서도 유독 애환과 시련이 깊은 역사를 갖고 있다. 서학이라는 학문의 형태로 실학자들을 통해 소개되었던 가톨릭은 당시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어 위로가 절실하던 계층들, 예컨대 남인 양반, 중인, 상민, 아녀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성리학을 맹신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톨릭은 철저하게 배척당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대규모 박해까지 벌어지며 많은 희생을 낳기도 했다. 이러한 굴곡을 거친 끝에 신앙과 포교의 자유를 획득한 것은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직후이다. 조약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서로에게 의지하며 신앙을 지켜오던 대한민국 천주교 신자들은 당당히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인천에서는 1889년 제물포 본당이 설립되고 1897년 답동성당 건물이 완공되며 천주교 인천교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답동성당은 개항기 조선에 들어온 다른 외래 종교들처럼 박문학교와 보육원 등을 만들며 근대 교육과 의료 사업, 사회봉사에 힘쓰며 전교 활동을 벌였다. 이와 같은 답동성당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천지역 곳곳에 공소(사제가 상주하지 않는 예배당)가 설립되어 교세를 확장시켜 나갔으며, 이 공소들이 현재 인천지역 가톨릭 신앙의 근간을 이루었다. 또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사에도 굽적한 발자취를 남겼다. 유신 반대운동이나 6월 민주화 운동 등에서 서울의 명동성당이 민주 투사들의 성지였던 것처럼, 인천에서는 답동성당이 그 역할을 도맡았던 것이다.

답동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에 따라 세워진 건축물로, 전형적인 유럽의 성당처럼 붉은 벽돌로 두껍고 높게 건물을 쌓아 올려 웅장한 느낌을 주고 있다. 또 아치형의 출입구를 지나 내부로 들어가면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전해지는 화려한 빛들이 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와 같은 답동성당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특히나 그 정체성을 진하게 전해주는 공간은 성전 전면에 있는 세 개의 종탑이라고 할 수 있다. 완공 당시 종탑에는 종이 들어있지 않았다. 공사 과정에서 종까지 설치할 재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1900년에 와서야 지역 신자들의 기부금을 모아 걸게 되었는데, 힘들게 마련한 만큼 종소리가 개항장 일대로 울려 퍼질 때는 그 감회가 유독 남달랐을 것이다. 약 30년 후 일제강점기 말,



▲ 답동성당 모습

중일전쟁 이후 끝없이 전선을 확대해가던 일본은 물자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의 고철들을 공출하기 시작했다. 답동성당의 종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주임신부였던 임종국 신부가 기지를 발휘하여 종들을 해안동과 승의동에 옮겨 걸어 인천지역의 경계에 활용하자고 제안하였다. 덕분에 종들은 그 원형을 보존하였으며, 해방 이후 뿔뿔이 흩어진 종들을 다시 모아 종탑에 걸 수 있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신도들의 저력만으로 박해까지 이겨내며 성장한 천주교처럼, 답동성당의 세 종탑은 대한민국 가톨릭 특유의 자생력과 의지를 투영하고 있다.

이처럼 답동성당은 대한민국의 고달픈 근현대사를 함께 견뎌준 고풍한 공간이다. 때로는 힘들고 병든 이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불의에 저항하는 이들과 보조를 맞춰 나아가며 역사의 변곡점마다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앙 불모지에 민중의 힘으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약자들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던 대한민국 가톨릭의 정신을 바로 이곳, 답동성당에서 느껴볼 수 있다.

세 번 째 만 남

애관극장

역사를 상영하는 영화관

보통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영화관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와 같은 멀티플렉스 상영관들을 답할 것이다. 그러나 인천 시민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예상외의 이름을 들을지도 모른다. 바로 친숙한 동네 영화관 느낌의 애관극장이다.

애관극장은 1895년 경동 사거리, 당시 이름으로는 싸리고개라 불리는 곳에 험물사라는 이름으로 개관한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다. 당시에는 인형극, 창극 등의 공연이 주로 열렸으며, 축항사라는 이름을 거쳐 1925년에 애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6.25전쟁 때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1960년에 재건하게 되면서 지금의 애관극장이라는 간판을 걸

게 되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던 400석의 좌석과 영화와 악극을 함께 올릴 수 있는 무대를 갖추었고, 연 수십 만명의 관람객이 오가는 지역 명소로 거듭났다.

지금은 비록 낡은 영화관이지만, 애관극장이 인천지 역사회에서 갖는 문화적·역사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역사적 가치 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들이 애관극장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각자의 향수가 짙게 묻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 애관극장 외관

처럼 애관극장은 사람들과 함께 세월을 보내는 듯한, 삶과 추억을 상영하는 따스한 영화관이다.

네 번째 만남

내리교회

대한민국 개신교의 시작

내리교회는 1885년 미국 출신 선교사 아펜젤러가 설립하였다. 이후 내리교회는 신앙 불모지였던 조선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군분투하였다. 최초의 근대식 초등 교육 기관인 영화학교를 세워 기초 교육에 힘쓰고, 청년회를 만들어 선교 활동과 함께 사회에 봉사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으며, 최초의 해외 선교, 최초의 한국인 목사 배출 등 교회사에 있어서도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이러한 활동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도 일관성을 갖고 이어졌다. 내리교회의 담임 목사를 역임하였던 신흥식 목사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에 포함되어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며, 이후에도 민중을 계몽하고자 민족운동의 중심에 있었

어왔다. 또 해방 이후에도 유치원과 요양원을 운영하는 등 사회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하는 종교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내리교회는 같은 기독교 내에서 갖는 의미를 넘어서 대한민국 역사의 일축을 담당하는 유서깊은 문화 유산이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이 자양분이 되어 지금의 대한민국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리교회 역사관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내리교회 건물 외관

다섯 번째 만남

성공회

내동교회

낮선 이들에게도
아낌없이 베풀어진,
고결한 봉사 정신의 산실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로, 로마교황과의 갈등으로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 현재에 이어지고 있는 종교이다. 이 종교는 대한민국에서 근대화 물결과 함께 1890년부터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며, 그 중심에 바로 성공회 내동 교회가 있었다.

내동 교회를 세운 인물은 성공회 주교 존 코프이다. 지금의 내동 교회가 있는 자리에는 본래 존 코프 주교와 함께 조선에 온 의사 랜디스가 세운 성 누가 병원이 자리하고 있었고, 내동 교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성 미가엘 성당은 지금의 송학동 3가, 인성여중·고등학교 건너편 즈음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공회는 그 시작부터 교회와 병원을 함께 운



▲ 내동교회 건물 모습

영하며 선교와 동시에 의료 구호 사업에 힘쓰기 시작했다. 특히 랜디스는 송림동 자택에서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돌보는 선행을 베푸는 등 주변 주민들에게 인망이 높은 모습을 보였다. 성 누가 병원의 또 다른 이름인 “낙선시(樂善施, 선행으로 기쁨을 주는) 병원”에 담긴 의미는, 의료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전파하고자 했던 랜디스의 진심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이후 이곳은 6.25전쟁으로 소실되었으며, 복구

된 이후 잠시 중학교 교사로 사용되다 지금의 내동 교회가 되었다.

성공회라는 종교는 우리에게 생소하게 다가오지만, 인천 내동 교회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서 우리 곁에 머물며 따뜻한 위안이 되어주었다. 다소 낯은 거리 속에서 행인들의 눈길을 끄는 내동 교회 건물의 모습처럼 내동 교회의 역사도 우리를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있다.

여섯 번째 만남

자유공원

인천의 랜드마크

인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의 하나인 자유공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 1888년에 조성되었다. 처음에 붙였던 이름은 각국공원으로, 인천에 만들어진 각국 조계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이었다. 때문에 자유공원 주변으로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존스톤 별장, 세창양행, 오레당과 같은 서양풍 저택들이 위치해 있었으며, 외국인들의 사교클럽이었던 제물포 구락부가 여전히 자유공원 아래쪽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인천신사 주변(현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의 공원을 동공원, 자유공원을 서공원이라고 부르며 인천의 양대 공원 중 하나가 되었고, 수려한 주변 경관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지역 명소가 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만국 공원으로 불리다가 1957년 맥아더동상이 들어서면서 자유공원으로 바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오가며 교류하고 휴식하는 곳으로 개항의 상징과 같은 장소였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3.1운동 이후에 있었던 임시정부 수립 논의 속에서 한성 정부 수립을 위한 13도 대표자 회의를 한 곳으로 우리 민족의 강렬한 독립 의지가 담겼던 공간이었다. 6.25전쟁 이후에는 인천상륙



▲ 벚꽃이 핀 자유공원길

작전을 기념하며 맥아더 장군 동상과 위령탑을 세우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소망하는 곳이기도 했다. 이처럼 자유공원은 인천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함께 한 귀중한 유적이다. 인천항과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풍광처럼, 13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아픔과 극복의 서사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다.

일 곱 번 째 만 남

의선당

화교들의 정신적 고향

개항 이후 인천으로 몰릴듯이 들어온 일본인들에게 신사가 있었다면, 중국인들에게는 의선당이 있었다. 의선당은 1893년에 문을 연 중국식 사당이다.

우리나라 불교는 그 고유의 색깔을 뚜렷하게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불교는 오랫동안 도교나 여러 토착 신앙과 결합된 형태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의선당 역시 그러한 중국 불교의 특징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건물의 외양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절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으며, 부처, 관음보살뿐 만 아니라 옥황상제, 용왕, 관운장 등 다양한 신을 모시고 있는 것에서도 그러한 특성을 엿볼 수 있다.

본래 이곳은 1850년에 세워진 화엄사라는 사찰이었다. 그러나 개항과 함께 고향을 떠나 인천으로 들어온 중국인들은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안식처가 필요했고, 그러한 소망에서 기존의 사찰에 “서로 의롭고 착하게 협력하며 살자”라는 의미를 담아 의선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이후 이곳은 화교 사람들이 힘든 타향살이 속에서 기도를 올리거나, 사교모임을 갖고 축제가 열리는 곳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의선당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 정신적 위안을 찾는 기능을 넘어 화교들이 정착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정보와 문화를 공유하는 사회적 기능까지 담당하며 화교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징성이 이어져 현재는 대만 정부와 화교의 지원으로 차이나 타운을 대표하는 명소 중 한 곳으로 자리할 수 있었다.



▲ 의선당 건물 외관



▲ 의선당 내부 5개 사당 모습

여 덩 번 째 만 남

공화춘

너도 나도 좋아하는 그 맛, 짜장면의 역사를 한 눈에!

짜장면은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남녀노소의 사랑을 온 대표적인 중국 음식이다. 어느 지역에서 접하던 일관된 맛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스타일의 변주로 특색을 살리면서 항상 새롭고 질리지 않게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처럼 대중음식의 대명사로 꼽히는 짜장면의 진짜 원조가 차이나타운에 있었는데, 바로 공화춘이었다.

공화춘은 1905년 산동회관이라는 간판을 달고 출발했으며, 공화춘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1912년의 일이었다. 주 고객층은 고향을 떠나 인천에 정착한 화교들로, 인천항을 오가며 무역을 하는 상인, 부두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공화춘은 힘든 현실을 잊고 잠시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그들만의 감성이 담긴 공간이었을 것이다. 이후 이 곳은 선린동 일대에서 유명한 고급 청 요리집으로 거듭났으며, 해방 이후에도 그 명맥을 이어 1983년에 경영난으로 간판을 내릴 때까지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

최근 공화춘은 짜장면 박물관으로 다시 문을 열어 차이나타운에 뿌리내린 화교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인천 근현대사 속에 녹아 있는 화교의 삶과 애환들을 짜장면을 매개로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며, 인천 지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매우 교육적인 장소이다. 차이나타운을 본격적으로 돌아보기 전에 이곳에 방문한다면, 폭넓은 배경지식과 함께 알차고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짜장면 박물관 입구

아 홉 번 째 만 남

대불호텔

특급 호텔로 호캉스를 떠나보자

대불호텔은 1883(1888년개축)년에 지어진 최초의 근대식 호텔이다. 당시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았던 관계로 인천항에 내린 외국인들이 서울로 가기 전에 투숙하거나, 인천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 배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머물던 곳이었다. 이곳에 머물렀던 유명한 투숙객 중에는 대표적인 선교사인 아펜 젤러가 있는데, 그가 남긴 숙박 후기는 대불 호텔과 그 주변 거리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 의미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하지만 1899년에 경인선이 개통하자, 개항장 주변의 숙박업이 쇠퇴하면서 대불호텔을 이용하는 투숙객들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결



▲ 대불호텔 외관

국 1907년에 폐업한 대불호텔 건물은 이후 중국집으로 변모하여 중화루라는 간판을 걸고 1970년대까지 영업을 하다가 1978년 철거되는 운명을 맞이한다.

2018년에는 대불호텔 터에 과거의 대불호텔을 그대로 재현한 건물을 세우고, 중구 생활사박물관으로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곳에서는 과거 대불호텔의 객실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으며, 더불어서 1960년대~1970년대 중구의 생활상을 전하는 공간도 함께 만들어 놓았다. 이처럼 현재의 대불호텔은 꼼꼼한 고증을 거쳐 옛 건물을 성공적으로 재현하여, 주변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훌륭한 사례이다.

열 번 째 만 남

인천개항박물관 (구 일본제1은행 인천지점)

개항장 역사탐방 플코스!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모아봤어...

앞서 근대건축전시관이 개항기 인천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특색있는 건물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었다면, 인천개항박물관에서는 개항기 인천의 전반적인 모습을 종합적으로 모아 놓은 곳이다. 이곳 역시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박물관으로 만들었는데, 본래 1899년에 지어진 일본 제1은행 인천지점이었다고 한다.

박물관 내부에는 크게 4개의 상설 전시실이 있다. 제1전시실은 인천의 개항과 근대 문물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다. 이 곳에서는 최초의 갑문식 도크에 대한 영상자료, 최초의 해관에 대한 기록, 최초의 군함, 최초의 서구식 호텔, 우편 및 통신 제도 등이 전시되어 있는 등 대표적인 근대 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제2전시실은 경인철도와 한국 철도사라는 테마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는 철도 모형, 표, 전호등 등 당시 쓰이던 철도 관련 유물을 찾아볼 수 있으며, 철도가 놓이던 당시 상황부터 현재의 모습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3전시실은 개항기의 인천 풍경을 입체 거리 모형과 시청각 자료로 연출하고 있다. 현재의 박물관 앞 거리 풍경과 개항을 전후한 인천항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으며, 기념촬영을 할 수 있도록 포토존도 제공하고 있다. 제4전시실은 인천 전환국과 금융기관을 주제로 꾸며진 곳이다. 당시 쓰이던 금고를 활용한 곳으로 동전이나 돈을 찍어내던 압인기 등의 유물을 확인



▲ 인천 개항 박물관 외관

할 수 있으며, 개항장에 위치해있었던 은행들을 소개하는 자료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개항박물관은 풍부한 자료와 세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130여년 전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또 오랜 세월 개항장 거리를 지켜온 건물 그 자체의 가치가 높은만큼 박물관이 방문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역시 훨씬 의미있게 다가갈 것이다.

열 한 번 째 만 남

근대건축전시관 (구 일본제18은행 인천지점)

개항장 거리의
과거와 미래가 모여 있는 공간

인천 개항장 거리는 개항 당시의 이색적인 건물들을 잘 보존하고 있어 마치 박람회 내지는 영화 세트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중에서도 근대건축전시관은 그 시절 개항장의 매력을 압축해서 모아놓은 듯한 공간이다.

현재 근대건축전시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은 본래 1890년부터 일본제18은행 인천지점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은행으로 사용할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전시관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개항기 근대 건축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건물이 개항장의 근대 건축물들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특색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내부로 들어가면 간략하게 개항장의 역사를 소개하고 개항장의 전경을 담은 공간이 나오는데, 이곳을 지나면 개항장의 시작을 함께했던 건축물들이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먼저 내리교회와 같은 종교 건물부터 자유공원(만국공원)이나 체물포구락부와 같은 휴식 공간, 제1은행이나 제18은행과 같은 공공기관까지 개항장 일대를 돌아다니며 봤을 다양한 용도의 현존 건물들을 관람하고 그 건물에 얽힌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존스톤 별장, 영국 영사관, 인천 해관과 같이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소실된 건물들도 전시되어 있어 아름다웠던 개항장의 과거를 전하며, 그 당시 개항장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전시관의 마지막에는 탁본 체험 및 엽서가 준비되어 있어 개항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소소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처럼 근대건축전시관은 전시물의 개성과 수준, 흥미를 두루 갖추고 있는 곳으로, 개항장에 대해 그 역사



▲ 근대건축전시관 외관

와 매력을 자세히 느끼고 싶은 사람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장소이다.

열 두 번째 만남

한국근대문학관 시대를 담은 창고

개항기에 인천항을 거쳐 들어온 온갖 물건들이 집하되던 창고를 2013년에 한국근대문학관으로 리모델링하여 문을 열었다. 한국근대문학관은 1890년대부터 1948년 사이의 문학자료를 중심으로 상설전시, 로비를 활용한 작은 전시,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진행되는 기획전시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상설 전시실은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근대 계몽기(1894년)에서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1948년)의 시대를 배경으로 그 시절의 문학의 양상을 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894년~1910년, 1910년~1919년, 1919년~1925년, 1925년~1935년, 1935년~1945년, 1945년~1948년의 작품으로 구역을 나누고 있다. 각 시대별로 특징이 두드러지는 시나 소설 등의 문학 작품과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사적 흐름에 조용하여 변화하는 근대 문학의 다양한 색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로비에서는 분기별로 다양한 주제의 문학 자료를 비치

하고 있으며, 휴식 공간과 도서 열람 공간이 함께 조성되어 있어 방문객들에 대한 소소한 배려를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획 전시관에서는 매번 참신한 주제를 바탕으로 근대 문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 방식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또 한국근대문학관은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체험 프로그램까지 갖추고 있어 생동감있는 경험을 전하고 있다.

문학은 작가가 살던 당시의 시대적 맥락을 담고 있는 매개체이다. 근대 문학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이곳이 과거에 물건을 보관하던 창고였던 것처럼, 이곳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많은 문학작품 하나하나가 모두 각자의 시대를 보관하는 창고이다. 물론 개항장 거리를 직접 돌아다니며 건축물들의 기원과 의미를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도 인천의 역사를 알아가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한국근대문학관의 전시를 관람한다면, 여러 작품 속에서 감춰져 있는 시대적 메시지를 찾는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근대문학관 모습



▲ 과거 창고 모습

열 세 번째 만남

신포우리만두 (졸면)

오늘 점심은 가볍게 이 음식으로 할까?

졸면은 인천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음식이다. 제면 기계의 구멍 크기를 잘못 조절하여 실수로 탄생한 우연의 산물이라는 설과 다양한 면 품목을 만드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발의 산물이라는 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 분식 문화에서 졸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되었다는 점이다.

졸면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등장하는 점포가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졸면의 면을 처음으로 뽑은 “광신제면”이라는 곳이다. 간판에 졸면을 최초로 만든 곳이라고 적혀 있으며 아직까지 활발히 영업 중이다. 또 하나는 최초로 졸면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한 “신포우리만두”

이다. 본래의 이름은 “우리집”이었지만 지금의 이름으로 바꾼 이후 현재는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내며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분식집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졸면이 처음부터 대중의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면이 너무 질겨 고무줄 국수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외면 받은 적도 있었고, 한때는 불량식품 딱지가 붙어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새콤한 양념과 아삭한 야채, 쫄깃한 식감의 면발의 조화는 70~80년대 인천에서 가장 변화한 신포동 일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인천 지역의 대표 음식으로 당당히 내세울 수 있을 만큼 대중적인 음식이 될 수 있었다. 현재는 여러 음식에 졸면을 사리로 넣어 먹기도 하고, 졸면에 들어가는 고명도 훨씬 다양해졌으며, 물졸면이나 간장졸면 등 다양한 방식의 변주로



▲ 광신제면 간판 사진



▲ 신포우리만두



▲ 졸면뽑는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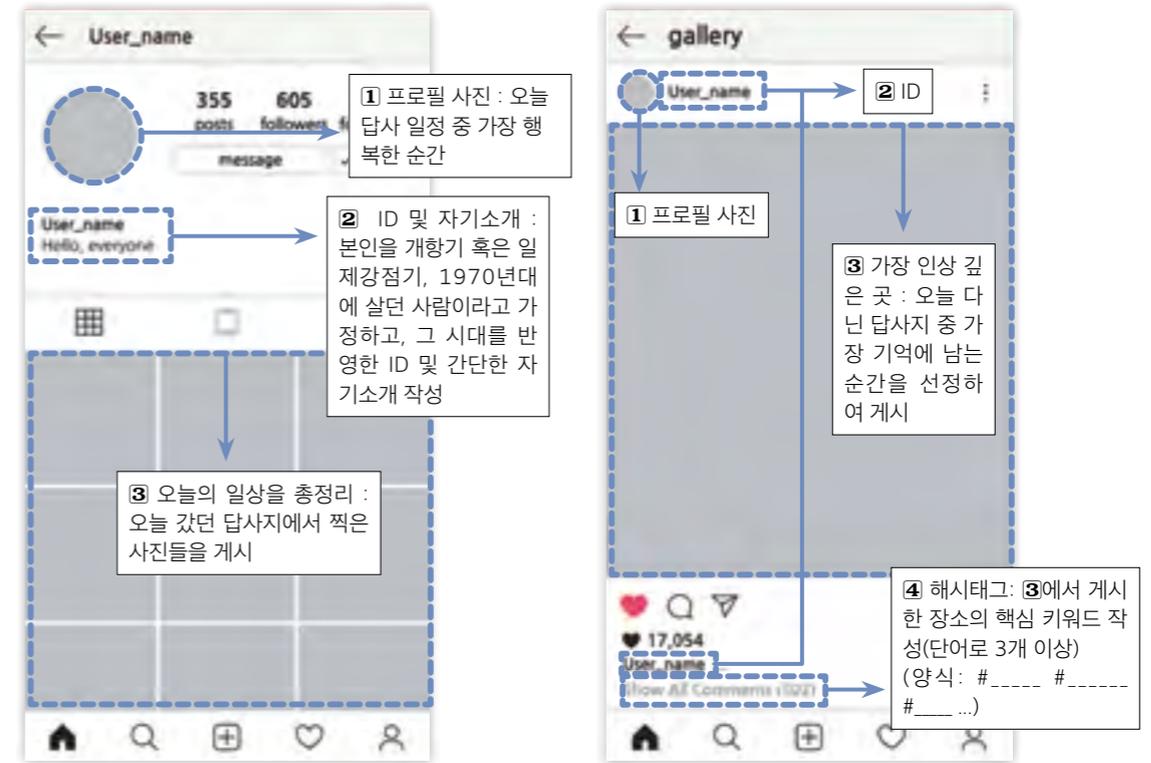
▲ 졸면 사진

항상 새로운 모습을 내세우고 있다. 지금의 쫄면은 비단 인천 지역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분식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는 음식이다. 신포동에서 먹는 쫄면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의 쫄면과 맛이 크게 다른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서사를 알고 먹는 음식은 의미가 남다르기 마련이다. 신포우리만두의 쫄면에 담긴 1970년대, 잘나가던 그 시절의 추억은 이 일대의 거리, 시장을 눈에 담기 전에는 절대 느껴볼 수 없는 것들이다.

쫄면을 먹을 때 이러한 감성을 함께 느껴본다면 한층 진한 쫄면의 맛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답사활동

01 그 시절 인싸라면 반드시 가야 할 핫플레이스! 인스타그램에 오늘의 일상을 업로드 해보자.



02 위의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사진을 찍으며 내용을 정리해보자.

답사지	해당 답사지의 과거 역할 및 기능	과거 인천사람들은 이 곳을 무슨 생각으로 들렀을까?
1. 인천신사터		
2. 내리교회		
3. 성공회 내동교회		
4. 답동성당		
5. 의선당		
6. 공화춘		
7. 자유공원		
8. 신포우리만두		
9. 근대건축전시관		
10. 인천개항박물관		
11. 한국근대문학관		
12. 대불호텔		
13. 애관극장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 단원

- 중학교 3학년 역사 : 6단원. 근현대사회의 전개

■ 활동목표

- 조계지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개항장 인천의 삶을 소재로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
- 과거 인천 사람들에게 감정이입하여 그들에게 종교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고려해보고, 종교의 전파와 지역사회 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학습활동

- 활동1 : 과거 인물이 되어 인스타그램 업로드하기(답사활동 관련)
 - 인스타그램 업로드를 위한 사진 선정 및 답사지의 키워드 정리하기
 - B4 용지에 인스타그램 레이아웃을 그리고, 사진 첨부 및 키워드 작성하기
 - 친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확인하고, 과거 인물이 되어 댓글 작성하기
- 활동2 : 일기쓰기
 - 답사활동 과정에서 찍은 사진 모으기
 - 인상 깊었던 장소를 생각하며 과거 인물이 되어 그날의 일기를 작성하기
 - 구체적인 활동과 느낀 점이 들어갈 것
 - 주변 친구들과 일기를 바꿔보며 피드백하기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은 일본의 요구에 따라 3개의 항구를 열었는데, 부산, 원산, 그리고 인천이었다. 흔히 이 3개 항구가 갖는 의미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때, 부산은 오랫동안 일본과 교류를 해오던 곳으로 경제적 목적으로 개항했고, 원산은 동아시아 세계에서 커져가는 러시아의 존재감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개항했으며, 인천은 한양의 입구로써 갖는 기능이 주목받아 정치적 목적으로 개항했다고 한다.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단순히 교과서적인 지식에만 매몰되어 인천을 이해한다면, 그 시절 인천의 많은 부분을 놓치는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답사를 다니며 과거를 느끼고, 과거 사람들과

생각해 볼 거리

함께 호흡하며, 같은 공간을 바라보는 수고가 필요한 것이다. 싸리재부터 시작하여 중구 일대에 조성된 각종 조계지를 바탕으로 인천에는 아주 이국적인 모습의 건물들, 음식들, 그리고 각종 종교들이 자리하며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는 진풍경을 이루었다. 현재 송도를 국제도시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러한 국제적인 특성은 인천을 제물포라 부르던 그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그렇게 조성된 개항장은 아직까지도 100여년 전 사람들이 살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며, 그러한 흔적을 바탕으로 과거의 삶을 상상해보는 재미가 있는 곳이다. 이처럼 학생들과 함께하는 답사 현장에서도 교실에서 배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과거 사람들이 살았을 실제 삶을 추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경험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박진한. (2013). 식민지시기 '인천대신궁'의 공간 변용과 재인천 일본인: 유락과 기념의 장소에서 식민지배의 동원장으로, (162), 391-433.
- 백승임. (1994). [역사와 교회 12 : 인천내동교회] 낮은자 향한 '낙선시'(樂善施) 교회로 다시 선다. 새가정, 18-23.
- 박철호. (1994). [인천내리교회] 순교와 탈선교사적 주체의식으로. 새가정, 18-23.

인터넷 자료

- 인천일보 [사진에 비친 인천 100년] 38. 인천여상과 인천신사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58932>
- 국가문화유산포털 www.heritaghe.go.kr/
- 내리교회 www.naeri.co.kr/
- 대한성공회 www.skh.or.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www.encykorea.aks.ac.kr/
- 나무위키 www.namu.wiki/
-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 www.icjg.go.kr/
- 공화춘 www.gonghwachun.co.kr/
- 인천항만공사 www.incheonport.tistory.com/77
-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www.icjgss.or.kr/
- 한국근대문학관 www.lit.ifac.or.kr
- 중구 생활사전시관 jihm.icjgss.or.kr/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www.folency.nfm.go.kr/

1-5

인천 민주항쟁의 발자취

민주 | 문화

체험코스

①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4.19민주항쟁기념탑) → ② 옛 시민회관 쉼터(5.3인천민주항쟁터) → ③ 주안1동성당 → ④ 영화공간주안, 주안미디어영상센터 → ⑤ 주안역 → ⑥ 주안5동성당 → ⑦ 천일염전 표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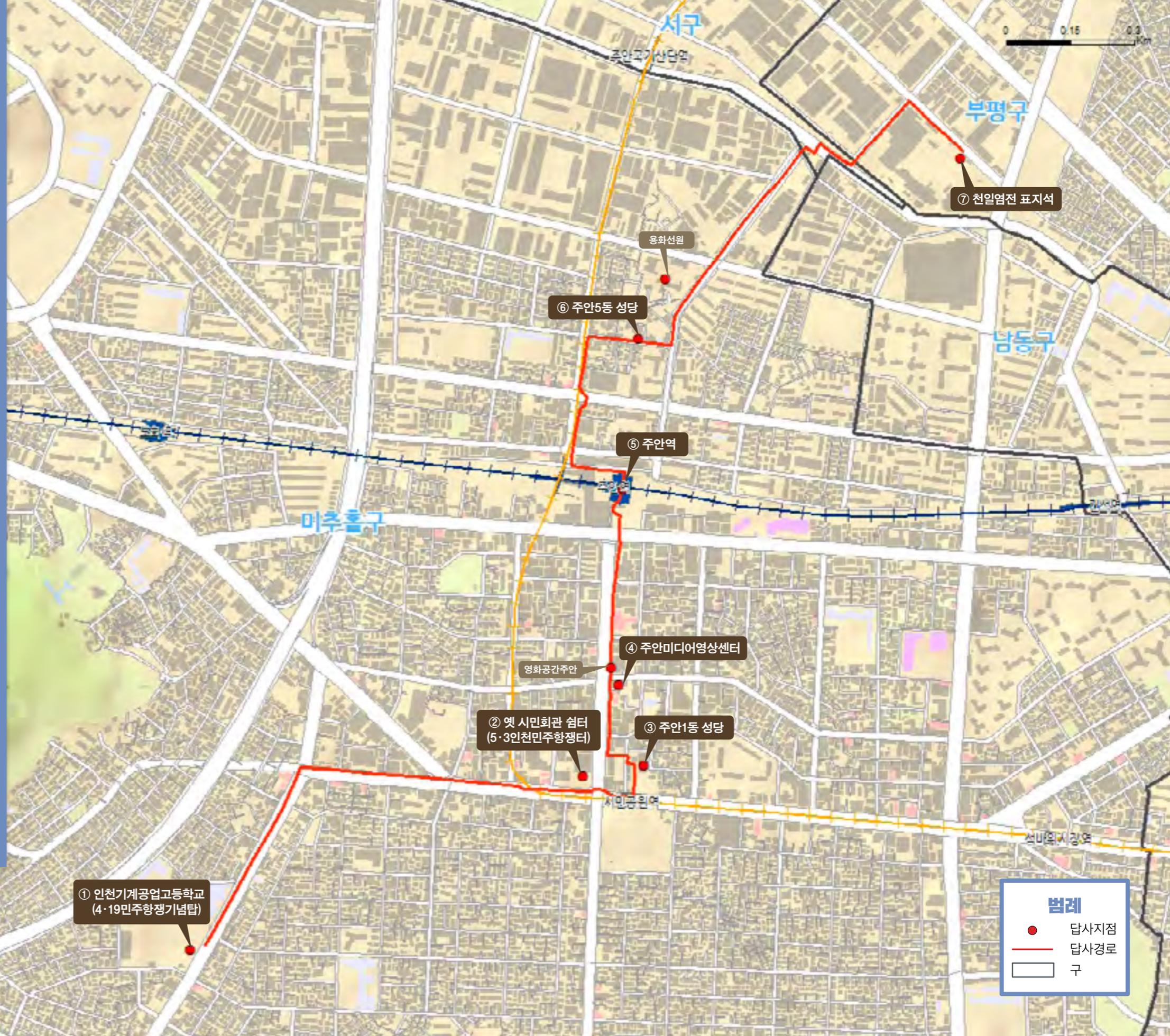
전체 거리 3.4km(48분)
구간별 거리 인천기계공고~옛시민회관쉼터 (1.2km / 15분)
옛시민회관쉼터~주안1동성당 (200m / 3분)
주안1동성당~영화공간주안 (260m / 3분)
영화공간주안~주안영상미디어센터 (450m / 8분)
주안영상미디어센터~주안역 (100m / 2분)
주안역~주안5동성당 (600m / 10분)

교육과정

고등학교-정치와법 정치과정과 참여
고등학교-한국사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키워드

#4·19학생의거기념탑 #5·3인천민주항쟁터 #주안1동성당



①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4·19민주항쟁기념탑)

② 옛 시민회관 쉼터
(5·3인천민주항쟁터)

③ 주안1동 성당

영화공간주안

④ 주안미디어영상센터

⑤ 주안역

⑥ 주안5동 성당

용화선원

⑦ 천일염전 표지석

범례

- 답사지점
- 답사경로
- 구

1-5

인천 민주항쟁의 발자취

- 5·3인천민주항쟁
- 인천시민회관
- 4·19학생의거기념탑



5·3 인천 민주 항 쟁 은 6 월 민 주 항 쟁 의 도 화 선

독재권력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이들이 뿌린 씨앗이 전국으로 퍼져 민주화의 꽃을 피웠다.

1960년대는 '민주화'에 대한 갈망의 시기였다. 1960년에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하기 위해 인천시내 초·중·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산업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공장이 많았던 인천은 1970년대에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1978년 동일방직 여성 노동조합원에게 똥물을 끼얹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노동자 126명이 해고되자, 전국의 노동계가 동일방직 사건 해결을 위한 집회에 나섰다. 1980년대는 노동운동의 열기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학생운동이 전개되면서 인하대학교 교수들이 언론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인하대 학생 3천 여명도 군사 정권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시위에 나섰다. 이 시기 가장 주목할만한 사건은 1986년 5월 3일 주안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있었던 5·3인천민주항쟁이다. 이로 인해 군사정권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친 경찰서 성고문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어져 6월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첫 번째 만남

인천기계 공업고등학교

민주를 향한 학생들의 함성

인천의 학생들은 제4대 대통령 선거 전날인 1960년 3월 14일, 백주 대낮에 관권을 동원하여 노골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던 이승만정권에 맞서 반기를 들어올렸다. 4월 19일에는 구(舊) 인천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오전 수업을 받던 중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후 26일까지 학생들의 시위는 계속되었다. 인천의 4월혁명은 이처럼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도하였다. 전국적으로 학생들과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고 이에 당황한 이승만 정부는 서울 외곽과 다른 지역에 계엄군을 보내 시위를 진압하다



▲ 4·19학생의거기념탑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통령이 해야 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독재로 부터 벗어날수 있었다. 또한 인천학도의용대의 대표학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학도의용군을 배출하였다. 6·25전쟁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참전해 국가 수호를 위해 소중한 생명과 꽃다운 젊음을 바치신 참전유공자 105분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애국심을 기리고, 후배 학생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건립한 '6.25 참전학도병 명비'도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 만남

5·3인천 민주항쟁터

6월민주항쟁의 도화선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 개헌을 요구합니다.”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1986년 5.3인천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신한민주당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가 옛 인천시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학생·노동자 등은 도로를 장악하고 시위를 벌였다. 1980



▲ 옛 인천시민회관(출처:인천시)

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6월항쟁으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위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 현장에서 129명이 구속되고 60여명이 지명수배되는 등 가혹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대대적인 검거선봉으로 구속, 수배, 고문 등 민주화운동 단체를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 들었다. 군부독재정권의 무리한 탄압은 부친경찰서 성고문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이어져 87년 6월항쟁의 불길로 타오르게 되었다. 6월항쟁으로 지금



▲ 5.3민주항쟁기념비

우리 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직선제’가 실시되었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권’이 생겼고, ‘헌법재판소’가 생겼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끔찍한 비극이 발생한 지 7년 만에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반환된 것이다. 5.3인천민주항쟁은 이런 6월항쟁의 도화선이요 시발점이 된 것이다.

세 번째 만남

옛 시민회관 쉼터

5.3인천민주항쟁의 흔적을 찾아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시민공원보다는 시민회관으로 익숙한 이곳은 1974년 개관하였으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생기면서 2000년에 철거되었다. 2천명을 수용할 수 있어 당시로는 큰 규모였던 시민회관도 다른 도시들처럼 인천 시청을 신시가지인 남동구 쪽으로 옮기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새 건물로 역할을 넘긴 다음 철거되어 시민공원으로 변모하였다.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1986년 군부정권에 맞서 일어난 인천5.3민주항쟁터와 기념비, 표석이 마련되어 있다. 2,000여명이 넘는 인천지역의 학생, 시민, 노동자가 주축이 되어 일어난 항쟁으로 군사 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6월항쟁의 불씨가 되었다. 이렇게 민주항쟁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인천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이며 인천시민의 도심 속 휴식의 공간으로 열려있다.

옛 시민회관 북쪽자리에 푸른색 컨테이너 박스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듯한 건물이 ‘뜸 문화창작지대’이다. 국책사업으로 문화콘텐츠 창작자를 양성하여 인천지역의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교육실2에서는 창문을 통해 옛 시민회관 쉼터를 내려다 볼 수 있다.



▲ 옛 인천시민회관(출처:인천시)과 현재의 옛 시민회관 쉼터

네 번째 만남

주안동 성당

민주화운동의 에너지

천주교 주안 1동 성당은 초기 설립부터 지역의 빈민과 의료 활동을 통해 지역의 사회 복지 활동을 벌여왔으며 1980년대에는 5·3 항쟁 등에 대한 지원 등 지역 민주화 운동에 기여하였다. 인천의 인구는 항구 주변에 동일방직을 비롯한 대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었고, 주안과 부평공단을 중심으로 약 40만 명의 노동자가 살고 있었다. 따라서 인천 지역의 6월항쟁은 노동자들의 비중이 컸다. 물론 인하대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 시장 상인들, 신부와 목사, 스님 등 종교인, 의사와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과 계층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민주화운동의 에너지를 제공한 중심지는 성당 특히 담동성당과 가톨릭회관이었다. 1987년박종철 열사가 고문사 당했을 때 인천 교구는 <인천주보>에 열사의 죽음을 추모하는 글을 실었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중대한 국가범죄로 인식하고 이례적으로 지역별 미사를 동시에 봉헌하였다.



▲ 주안1동 성당

4월 13일 전두환이 호헌조치를 발표하자, 4월 30일,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 39명이 민주개헌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가톨릭회관에서 단식기도에 들어가 5월 6일까지 농성을 전개하기도 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생활이 평화로운 것은 노동운동, 빈민운동, 시민운동이 그동안 자체 역량을 쌓아 자립해왔기 때문이다. 그 때 그시절 종교인들과 많은 시민들이 실천했던 헌신과 용기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섯 번째 만남

주안역 문화공간

인천미디어문화공간

주안역 인근에는 미디어 관련 문화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인천의 대표적인 미디어교육시설인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청소년미디어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 미추홀구청이 2007년도에 설립한 공공문화시설로 미디어교육의 기회 제공 및 콘텐츠 제작기반 마련을 위해 설립되었다. 영화공간 주안은 지방 자치 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세워진 예술 영화 전용 공간으로서 100~150석 규모의 상영 전용관 4개관과 다목적 ‘컬처팩토리’관 1개관을 갖추고 수준 높은 예술 영화와 다양한 저예산 영화는 물론 주부와 노인을 위한 추억의 영화,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시민 영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화관이다. 5.3인천민주항쟁터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인천 민주화운동센터는 민주·평화·인권 운동 역사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발간·보존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인천시민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시다가 먼저 가신 민주화운동 열사 희생자 추모사업과 지역의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도 쉽 없이 추진하고 있다. 사전에 연락을 취해 민주화운동에 관한 해설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안역에는 국내 최초로 지하철 역사 안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무인도서관 시스템이 설치되었는데, 주안역 ‘책 나루’는 인천광역시립 수봉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 예약 후,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주안역 앞에 설치되어있는 도서 예약 대출·자동 반납기를 통해 편리하게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 영화공간 주안

여섯 번째 만남

주안5동성당
염전본당

주안 5동 성당은 천주교 주안 1동 성당에서 분할되었으며 주위에 공장, 상업 지대를 끼고 있다. 이곳은 1907년부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 제염 생산지인 주안 염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설립 당시의 ‘염전 본당’이라는 명칭은 주님을 모시고 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천주교 주안 5동 본당의 뿌리를 다진 신자들이 당시 염전 인근에 살며 천일염제염에 종사하고 있어서 1962년 주안 공소 설립 당시 주안 공소 ‘염전 구역’으로 불리었다. 1960년대 말 염전이 폐지되고 주안 5동 일대는 공단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성당은 인근 공단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교



▲ 주안5동 성당

일곱 번째 만남

천일염전 표지석
‘소금의 인천’

주안역 북쪽은 바닷물이 들어오고 갯벌이 발달하여 천일염전이 생기기 전부터 오랫동안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의 결정을 얻는 자염(煮鹽)의 생산지였다. 주안이 천일염전지로 주목받게 된 이유는 인천이 비가 적게 내려 천일염 생산에 유리하고, 경인선 철도가 있어 주안역에서 소비가 많은 서울로 소금을 옮기기가 수월했기 때문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인천항을 통한 일본으로의 수탈이라는 지리적 여건이 천일염 생산에 맞았기 때문이다. 1907년 주안에서 처음 시험 생산된 천일염이 비용대비 수확량이 많자 대대적으로 국책사업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오늘날의 국산천일염의 시조가 되어 ‘소금의 인천’을 만든 것이다. 바둑판 모양의 염전과 바닷물을 퍼올리는 물레방아, 밀짚모자를 쓰고 햇볕에 마른 소금을 가래로 긁어 모으는 염부의 풍경이 천일염전의 모습이다. 한때는 우리나라 소금의 메카로 인천 소재의 소금장사를 통하지 않고는 소금을 구할 수가 없게 되자 “인천짠물”이라는 은어가 탄생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천일염전 확장 정책은 식용 때문만이 아니었다. 부산물인 마그네슘 제품들은 자동차·비행기 제작의 재료가 됨은 물론, 독가스와 같은 화학무기에도 사용되었다. 국내 최초로 천일염을 생산했던 주안염전은 1965년 공업지구로 지정되어 한국수출산업 5·6공단이 들어섰다.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지 표지석은 홈플러스 간석점 인근에 고철을 취급하는 업체의



▲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 표지석



▲ 주안 북부역 일대의 도로명 표지

담장구석에 이를 알리는 표지석만 남아 있다. 주안 북부역 인근의 도로 명이 염창로(염전 소금창고가 있었던 곳), 주염로(주안염전), 염전로로 불리우고 있으며 간석 홈페이지 바로 앞에 제염소가 있었다.

답사활동

01 4·19혁명기념탑 앞에 서서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목청껏 외쳤던 구호가 무엇이였을지 상상하여 써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자.



학생1 : _____

학생2 : _____

학생3 : _____

학생4 : _____

학생5 : _____

02 ‘민주화’에 대한 갈망으로 거리로 나와 독재권력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이들을 생각하며 4행시를 지어 발표해 보자.

민
주
주
의

(직선제 / 도화선 / 학생운동 / 시민회관)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 단원

- 고등학교 정치와법 : 정치과정과 참여
- 고등학교 한국사 :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 활동목표

- 해방 이후 시대별 연표를 통해 인천 민주화운동의 연속성을 말할 수 있다.

■ 학습활동

- 해방 이후 인천의 민주화 운동을 시대별 주요 사건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여 발표해 보자.

시기별	민주화 운동의 성격
해방후	해방과 전쟁 등 혼란의 시기에 있었던 민중억압에 대한 저항 ①1945년 인천부두자유노동조합(현 인천항운노조) 설립
1960년대	민주화에 대한 갈망의 시대/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동운동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시기 ①1961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조직 ②1963년 대우자동차(현 한국GM)의 전신인 신진자동차 노동조합 출범
1970년대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불타오르던 시기 ①1973년 삼원섬유 노조 설립 ②1978년 동일방직 뚝물 투척 사건
1980년대	노동운동의 열기가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되던 시기 ①1980년 인하대학교 교수 시국선언 ②1986년 5.3인천민주항쟁
1990년대	환경과 노동 등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던 시기 ①1991년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 ②1995년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운동

**생각해
볼 거리**

민주주의제도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4.19혁명에서부터 5.3인천민주항쟁 등의 민주화운동이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대통령직선제, 국회의 대통령탄핵소추권 등 하나씩 민주주의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학생들은 30년 전의 시대적 상황과 민주화의 열망을 체감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아직도 학교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규제하는 학칙과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규제하는 징계 기준 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사회에서도 학생회 직선제 등 학교민주화가 진행된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학교 급별 또는 성별에 따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인천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2019, 인천민주화운동사, 선인
- 터사랑, 2005, 인천땅'이만큼 알기', 다인아트
-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부평의 역사,(주)인천신문
- 강옥엽 외, 2018, 인천으로 통하였느냐, 인천역사자료관
- 류창호, 2017, 식민지기 인천의 근대 제염업, 보고서
- 최재용, 2003, 월미도가 달꼬리라구, 다인아트

인터넷 자료

- 인천시 부평구청 www.icbp.go.kr
- 인천시 계양구청 www.gyeyang.go.kr
- 인천시 부평문화원 www.bpcc.or.kr
- 네이버 지식백과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
- 인천일보, [문명의 바다 생명의 바다 황해] 32. 소금의 시대, 굴곡진 염전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1-6

인천의 철도 교통과 항만

교통 | 역사 | 산업

체험코스

① 인천역 → ② 월미바다열차(월미바다역·박물관역) → ③ 한국이민사박물관 → ④ 월미산 → ⑤ 감문식도크 → ⑥ 인천역

전체 거리 5.3km(1시간55분)
구간별 거리 인천역~월미바다역 (월미바다열차)(100m / 2분)
월미바다역~박물관역 (월미바다열차탑승 / 15분)
박물관역~한국이민사박물관 (480m / 8분)
한국이민사박물관~월미산전망대(750m / 20분)
월미산전망대~인천감문홍보관 (1.4km / 30분)
인천감문~인천역 (2.6km / 40분)

교육과정

초등학교 3-1 사회 3. 교통과 통신 수단의 변화
초등학교 4-1 사회 1. 지역의 위치와 특성
초등학교 5-2 사회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초등학교 6-1 사회 2.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키워드

#인천의 철도 교통 #인천의 항만 #이민의 역사



범례

- 답사지점
- 답사경로
- 구

1-6

인천의 철도 교통과 항만

- 경인선(역)의 역할
- 한국 이민사의 출발지
- 인천항의 기능



디아스포라의 삶과 애환을 넘어 교통과 항만의 중심으로

근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인천의 비상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지금, 이미 발전한 우리나라의 모습만 보고 자란 어린 세대들은 과거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나라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120여 년 전, 돈을 벌기 위해 하와이로 떠나야 했던 이주 노동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머나먼 타국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을까? 한국이민사박물관 답사를 통해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곳곳이 견뎌낸 해외동포들의 삶과 애환을 이해하고, 한인 이민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교훈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타국에서 생활하면서도 고국을 잊지 않고 고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노력들을 엿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은 도전과 노력을 바탕으로 일궈낸 교통과 항만 시설의 발달은 국제도시로서의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는 토대가 되고 있다. 디아스포라(고국을 떠나는 사람, 집단의 이동)의 삶과 애환을 넘어 교통과 항만의 중심으로 우뚝 선 인천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 비상해 나갈 국제도시 인천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첫 번째 만남

인천역

한국 최초의 철도,
경인선의 종착역

1900년 5월 건평 91평의 역사에서 운수 영업을 시작했으며, 현재의 역사는 1960년 6월에 신축된 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다. 특히 인천역은 여객 취급 설비라기보다는 인천항을 통하는 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부두를 따라 선로가 부설되어 있어, 전용선·지선을 포함하여 총 1,315량의 화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구내가 넓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확대되고 서울과 인천이 같은 생활권에 들어오면서 경인선은 통근·통학자를 수송하는 수도권 교통망의 핵심로가 되었으며, 특히 1974년 8월 15일 서울~인천 간 38.9km의 수도권 전철이 서울지하철과 연계 개통된 후 이용객이 급증하여 3~5분 간격으로 전동열차가 운행되는 매우 복잡한 여객선구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2월 27일 인천역에서 출발하는 수인선이 1973년 폐쇄 이후 43년 만에 개통하여 송도-인천 구간을 운행했고 최근 인천역에서 수원역까지 새로운 수인선이 개통되었다.

인천역을 종착점으로 두고 있는 경인선은 1896년(고종 33) 3월 29일 미국인 J.R.모스가 한국 정부로부터 부설권을 얻어, 1897년 3월 22일 인천 우각현에서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중단하였다. 그 후 일본인이 경영하는 경인철도회사가 부설권을 인수하여 1899년 4월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 그해 9월 18일 제물포(인천역)~노량진 사이의 33.2km를 개통하였다. 1900년 7월 5일 한강철교가 준공되자, 같은 해 7월 8일 노량진~서울(당시의 서울역은 서대문으로 현재의 이화여고 자리) 사이가 개통되어 서울~인천이 완전히 연결되었다.

경영권은 철도를 부설한 경인철도주식회사에 속하였다가 1903년 경부 철도회사에서 매수하여 합병하였고, 1906년 통감부 철도국에 매수되었다가, 1910년 총독부 철도국에 이관되었다. 경인선의 복선화는 8·15 광

복 후인 1960년대에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화물을 주 목적으로 한 철도였지만, 점차 서울~인천 사이를 잇는 교통수단이 되어가면서 교통 수요가 높아져 복선화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 1965년에 경인선의 영등포~인천 사이 복선 노선이 개통되었다. 수도권 전철화 계획으로 1974년 8월 15일에 전철화되어, 지하철과 직결 운행하였다. 1999년에 부평과 구로 간 복선 전철이 개통되어 용산~부평 사이 직통열차(2003년 1월 급행으로 명칭



▲ 인천역 전경

변경)가 상업 운행을 시작하였고, 2005년에 주안~동인천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어 동인천역까지 급행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인천역은 차이나타운, 월미관광특구 등을 방문할 때 이용하는 역으로, 오늘날에도 내·외국인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으로 사랑받고 있다.

두 번 째 만 남

월미도

월미항공과 인천상륙작전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섬이었다. 육지와와의 거리가 불과 1km 떨어진 아담한 섬이었으나 1918년부터 돌 축대를 쌓아 내륙과 연결되었다. 그 뒤에 세관 검역소, 측후소, 무선전신국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이 들어섰다. 월미도(月尾島)는 월미도, 어을미도, 어미도, 제물도라 부른 적도 있다. 1900년대 초까지 경기도 부천시 영종면에 속했다가 1914년 9월 1일 인천부에 편입되었다. 월미도는 지명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인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본래는 인천도호부 관할이었고 1653년(효종4) 영종진이 설치된 후 그리로 편입되었다. 월미도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여지도서(1760)에 나타난 행궁 때문이다. 행궁은 임금님의 임시 거처로, 병자호란의 아픔을 겪은 효종은 1656년 유사시에 어가의 행렬이 강화도 피난길이 막혔을 경우를 대비하고자 했다. 1637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청나라 병사들이 강화도 피난길을 막아서자 인조는 강화도가 아닌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대항하지 못하고 삼전도의 굴욕을 겪었다. 효종은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어가가 강화도로 가는 피난 길이 차단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인천의 월미도와 영종도를 거쳐서 강화도 남쪽으로 들어가는 우회로를 개발했다. 이 우회로는 뱃길이기 때문에 물때와 날씨 등을 보며 어가 행렬이 잠시 기다리면서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월미도를 택했다. 그러나 행궁이 지어진 다음 병자호란과 같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서 실제로 이 행궁은 사용되지는 않았다. 행궁의 위치는 동쪽 해안에 임해사터라고 되어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월미도는 인천항이 개항되기 전후로 외세가 각축을 벌이는 바람에 수난을 많이 겪었다. 한국전쟁 때에는 월미도로 인천상륙작전을 시도했고, 1950년 이후에는 오랫동안 국제연합군과 미군의 주둔지였다.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났을 때 인천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프랑스 함대의 대장 이름을 따서 외국 지도에 로즈섬(Roze Island)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 월미도 전경

세 번 째 만 남

한국이민사 박물관

가장 가슴 아픈 이별 이야기

근현대사의 아픔을 가득 안고 있는 월미도는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이 주둔하다가 철군하고 한국 해군이 주둔하다가 이전하면서 월미도는 50여 년 만에 주민들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1989년부터 문화의 거리에 문화행사로 월미축제가 열렸고 2001년 6월 26일 문화관광부가 월미관광특구 지정의 일환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친수공간을 확장했고, 월미산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1902년부터 1905년까지 총 64회에 걸쳐 약 7415명이 태평양을 건너 삶의 터전을 옮겨갔다. 당시 3년 만에 7,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민 길에 올랐다는 것은 상당한 수이다. 그만큼 한국에서의 삶이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2003년 미주 이민 100주년을 맞아 우리 선조들의 해외에서의 개척자적인 삶을 기리고 그 발자취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시민들과 해외동포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건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사박물관이다.

내부는 4개의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수장고, 영상실, 강당, 자료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외동포들로부터 기증받거나 구입한 유물 4,4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제1전시실에는 이민 초기의 인천 개항장 모습과 첫 공식 이민의 국내외 배경, 지금의 외무부에 해당하는 유민원에서 1905년 발급한 집조(여권), 한인 노동자들이 목에 걸고 다녔던 방고(번호표) 등이 전시되어 있다. 한 달 일을 마치면 목걸이처럼 걸고 다녔던 번호에 따라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 1905년까지 성인 남자의 월급은 한 달에 17달러 정도였고, 여자나 소년들은 하루에 50센트를 받았다. 제2전시실에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한인 노동자들의 삶이 모형으로 재현되어 있다. 제3전시실에는 우리에게 '애니깽'으로 알려진

멕시코 에네켄 농장에서 사용했던 수레를 비롯한 공구 등과 쿠바나 파라과이 등 남아메리카 국가로 이주한 한인들의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제4전시실에는 150여 나라에 진출한 약 750만 해외동포의 현황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인천은 우리나라 공식 이민의 첫 출발지로서 기념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처음 시작된 것은 하와이 한인 동포 이주 50주년 기념사업으로 1954년 설립된 인하공과대학이다. 이후 하와이 교포들과 인하대학교 간



▲ 한국이민사박물관 전경

의 교류가 간헐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인하대학교는 한인 동포들의 조국에 대한 정신적 귀환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네 번 째 만 남

월미산

월미공원 전망대에서 인천을 품다

월미산은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에 위치한 산으로, 해발 108m이다. 일찍이 월미산은 군사 요충지로의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다. 조선시대 이곳에는 큰 난리를 대비한 비밀 행궁과 해안 방어를 위한 포대가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일본군과 러시아군의 저탄장이 있었다. 최근까지도 군사 보호구역으로 인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산이었으나, 지난



▲ 월미산에서 바라본 인천 앞바다 전경

2001년 개방되었다. 월미산은 인천상륙작전의 전적지였고, 지난 50여 년 동안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면서 뱃나무와 해송, 참나무, 느티나무, 오리나무, 편백, 개나리, 진달래 등이 어우러진 울창한 수림대가 형성되어 있다.

월미공원에서 정상까지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데, 산 정상에 위치한 월미공원 전망대에서 내려다보이는 풍경이 압권이다. 또한 항만, 갑문, 주변 섬 등이 한눈에 들어오는 수려한 주변 경관을 지닌 곳이고, 서해의 낙조와 인천 내항의 야경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만 남

갑문식 도크

인천항의 숨은 공신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한 항만에서 상시 선박이 입출항하고 내항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대형 선박이 접안 하역할 수 있도록 항만 입구에 갑문 시설(문비, 갑실, 펌프장, 기타 부대 시설)을 갖춘 도크를 말한다. 인천항에도 갑문이 설치되어 있다. 인천항의 갑문식 도크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동양 최대의 규모이다. 배의 통행은 갑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항구 쪽과 바다 쪽에 각각 갑문을 설치하고 배가 진입할 때에는 바다 쪽 갑문을 열고 도크 안으로 배가 진입한다. 배가 도크 안으로 완전히 진입하면 바다 쪽 갑문을 닫고 바닷물을 도크 안으로 퍼 올린다. 수위가 항구 쪽과 같아질 때까지 물을 퍼 올린 다음, 수위가 같아지면 항구 쪽 갑문을 열고 배가 항구로 진입하게 된다.



▲ 갑문식 도크에서 배가 들어오는 모습

답사활동

01 제시된 네임카드에 월미도 일대에 위치한 장소 및 건물(기관)의 이름을 적어보자.

문제 1	문제 2	문제 3
Q1 미주 이민 100주년을 맞아 건립한 시설이야.(5점). Q2 4개의 상설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어.(3점). Q3 한국 이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야.(1점). 내 이름은 _____이야.	Q1 군사보호구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던 곳이야.(5점). Q2 울창한 수림대가 형성되어 있어.(3점). Q3 전망대에서 내려다보이는 풍경이 아주 멋있대.(1점). 내 이름은 _____이야.	Q1 경인선의 종착역이야.(5점). Q2 영업을 시작한지 100년도 넘었어.(3점). Q3 여기 내리면 차이나타운, 월미도를 방문할 수 있어.(1점). 내 이름은 _____이야.
문제 4	문제 5	문제 6
Q1 조선시대 효종이 행궁을 만든 곳이기도 해.(5점). Q2 지금은 육지와 연결되어 많은 문화축제가 열리는 곳이야.(3점). Q3 한국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이 시도된 곳이기도 해.(1점). 내 이름은 _____이야.	Q1 제물포역과 동인천역 사이에 있는 기차역이야.(5점). Q2 역 앞에는 한국철도최초기공지비가 있어.(3점). Q3 옛날에는 주위에 복숭아밭이 많이 있었대.(1점). 내 이름은 _____이야.	Q1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곳에서 사용되는 방식이야.(5점). Q2 우리나라 최초로 인천항에 설치되었어.(3점). Q3 배의 통행은 갑문을 통해 이루어져.(1점). 내 이름은 _____이야.

02 월미도 일대를 답사하면서 체험한 내용을 답사 노트에 정리해 보자.

답사 중 인상에 남는 건물이나 기관의 사진을 찍거나 스케치하여 이곳에 붙여(그려) 봅시다.

건물(기관)의 이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하게 적어 봅시다.

학생 활동	답사 노트
① 인천역을 종착역으로 한 경인선의 발달은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② 일제강점기 시절 이주로 인한 한인 동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③ 월미도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요?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 단원

-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사회 : 교통과 통신 수단의 변화
-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 : 지역의 위치와 특성
-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 활동목표

-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교통의 발달에 따른 생활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고장을 이해하고 자긍심을 기를 수 있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징을 파악하고 중심지를 탐색할 수 있다.
- 한국인들이 고국을 떠난 까닭을 알고, 그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를 알 수 있다.

■ 학습활동

- 활동1 :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생활 모습 조사하기
 - 옛날과 오늘날 사람들이 이용한 교통수단 조사하기
 - 교통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 조사하기
 - 미래 교통수단의 모습, 달라질 생활 모습 예상하기
 - 조사 내용 소개 자료 제작하기
 - 모둠별(개인별)로 제작한 자료 발표 및 공유하기
- 활동2 :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상 소개하기
 - 6.25 전쟁 이후, 1970년대 이후, 1990년대 이후 경제 성장 모습 조사하기
 - 경제 성장 모습에 따른 사회 변화상 조사하기
 - 조사 내용 소개 자료 제작하기
 - 모둠별(개인별)로 제작한 자료 발표 및 공유하기

생각해 볼 거리

1. 100여 년 전 미주 대륙으로 이주한 한인 동포들은 광복 이후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 알아보자.
2.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한 바다에서 배가 드나들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갑문식 도크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인천항 외에 갑문식 도크를 이용하는 다른 항구가 있는지 찾아보자.
3. 월미공원에 있는 한국전통정원을 살펴보고, 각 정원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자.
4. 월미도, 한국이민사박물관 등에 얽혀 있는 근대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학급 친구들과 토의해보자.

참고 자료

인터넷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 인천광역시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incheontogi>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78362>
- 인천투어 <http://itour.incheon.go.kr/>

PART 02

부평구·계양구·서구

2-1 삶의 현장

2-2 인천의 포구와 삶

2-3 인천의 도시형성과 근대교육의 탄생

2-4 개항장 일대와 종교의 전파 과정

2-5 인천 민주항쟁의 발자취

2-1

삶의 현장 산업|문화|생태

체험코스

① 부평아트센터 → ② 함봉산 → ③ 원적산(원적산공원)
→ ④ 한국지엠부평공장 → ⑤ 굴포천 → ⑥ 굴포누리기후변화체험관
→ ⑦ 부평역사박물관 → ⑧ 부평시장 → ⑨ 부평역

전체 거리 14.7km(4시간5분)
구간별 거리 부평아트센터~함봉산(3.5km/80분)
함봉산→원적산(1.5km/30분)
원적산→원적산공원 입구(1.3km/20분)
원적산공원 입구→한국지엠부평공장 서문(1.5km/20분)
한국지엠부평공장 서문→굴포천(부평구청)(1.5km/20분)
굴포천(부평구청)→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1km/15분)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부평역사박물관(0.7km/10분)
부평역사박물관→부평시장(3km/40분)
부평시장→부평역(0.7km/10분)

교육과정

고등학교-한국지리 인간에 의한 하천지형의 변화
고등학교-한국지리 공업의 발달과 지역 변화

키워드

#부평아트센터 #함봉산 #원적산 생태터널 #한국GM
#굴포천 생태복원 #부평광시장 #부평역



범례

- 답사지점
- 답사경로
- 구

2-1

삶의 현장

- 내륙 부평과 해양 인천을 가르는 한남정맥
-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메카 부평
-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는 굴포천
- 근대적인 부평의 견인차 부평역



또 하나의 인천 - 부평의 어제와 오늘

부평의 중심이 부평역이 아니고 계산동이라고?

부평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디 사냐고 물으면 '인천에 살아요!'하지 않고 '부평에 살아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30년전 부평역 앞에는 '인천택시' '부평택시'로 나뉘어 있어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고 타기도 했었다. 이런 일들이 생긴 이유는 부평지역이 인천이면서 또 다른 공간으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인천은 문학산 자락에 자리 잡은 '해양문화 인천'과 계양산 기슭에 자리 잡은 '내륙문화 부평'이 서로 다른 행정관할 구역과 역사 속에서 성장해 왔다. 계양산에서 원적산 부천의 원미산까지 동그란 분지를 이룬 산줄기가 다른 생활권으로 구분해왔기 때문이다. 부평의 원(原) 중심은 부평도호부가 있던 계산동이었지만 경인철도가 생기면서 교통이 편리한 부평역이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부평 분지에 넓은 평야가 발달하고 철도역이 세워진 까닭에 일제강점기때부터 공업의 기반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군수공업인 조병창, 미군부대, 한국GM자동차, 국가산업단지로 이어지며 산업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를 가져 왔다.

첫 번째 만남

부평아트센터 Arts For Everyone!

부평아트센터는 인천의 대표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예술교육이 열리는 곳이다. 공연장이 있는 본관 건물과 소극장과 전시를 진행하는 갤러리가 있는 별관 건물이 이어져 있다. 대공연장인 해누리극장에서는 대표공연인 <브런치 콘서트>를 만날 수 있고 어린이 뮤지컬,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지하 1층으로 이어지는 공간에 있는 소극장인 달누리극장에서는 인디밴드의 공연과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발표 공연과 같은 무대가 펼쳐지고, 갤러리 꽃누리에서는 다양한 전시와 어린이 체험전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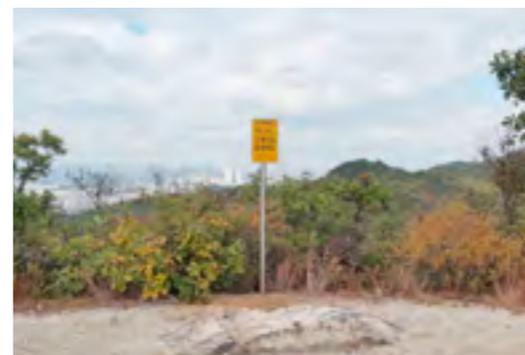
▲ 부평아트센터 전경

부평아트센터 바로 맞은편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 168은 지역주민 누구나 함께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1층에 꾸며져 있고, 2층의 디지털뮤직랩 (D-Lab)은 지역 청년과 청소년, 예술인들이 다양한 음악 작업과 네트워킹 공간을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미디어 음원 제작, 디제잉, 프로젝트 창작, 녹음 및 합주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턴테이블과 DJ믹싱 기계 등 각종 장비를 직접 만져보며, 전자음악에 대한 배움을 접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두 번째 만남

함봉산 한남정맥

함봉산과 원적산은 한남정맥의 인천 산줄기로 계양산을 넘어 강화를 마주 보는 김포 문수산까지 이어진다. 높지 않은 구간이지만 동쪽으로는 내륙의 부평문화권(부평구)과 서쪽의 해양의 인천문화권을 나누는 분기점이다.



▲ 함봉산 국가지점 번호판

부평아트센터에서 백운공원을 지나 능선을 올라 서면 부평도서관 뒷산인 함봉산(61.8m)이다. 함봉산 동쪽으로는 현대아파트 단지과 캠프마켓, 그리고 부평공원이 눈에 들어온다. 함봉산 정상과 등산로 2곳에 국가지점 번호판을 설치했다. '국가지점 번호판'은 산·하천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하고 등산 사고 시 신고와 출동이 쉽고 빨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상을 내려서면 십정동에서 화랑농장으로 이어지는 옛길로 6.25한국전쟁 이

후 생선장수와 소금장수들이 많이 넘었다는 구르지 고개를 만나게 된다. 능선을 따라 15분정도 북쪽으로 가다 보면 서구 가좌동에서 부평구 산곡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장고개에서 그 기능을 잃었다. 명신여자고등학교에 이르기 전 해발 165m 높이에 함봉산 표지석과 삼각점이 있다.

세 번째 만남

원적산 동서(東西)의 교통로를 품은



원적산 생태터널



원적산 정상 표지석

함봉산과 원적산 사이의 고개로 내려가는 길이 매우 가파르다. 1972년에 준공된 원적산고개는 가좌동 주공아파트에서 시작하여 명신여자고등학교 앞을 지나는 길로 서구와 부평 간의 거리를 16km에서 5km로 줄여주었으며 시간도 1/3로 단축되었다. 이 길이 열리기 전에는 인천 서부권과 부평권을 연결해주는 것으로는 장고개가 더 가깝긴 했지만 당시 미군 공병대가 자리를 잡고 있어 가정동으로 돌아가거나, 간석동을 거쳐 우회할 수 밖에 없었다. 원적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내기 위해 허리를 자르는 큰 난공사였으며 2012년에 생태터널을 완공하였다. 예전에는 철마산이라고 잘못 불렀는데 원적산(211m) 봉우리에는 제 이름을 찾았음을 보여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동쪽으로 보면 1969년에 조성된 부평국가산업단지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메카 한국 GM 부평공장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공업이 발달된 곳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서쪽으로는 서구의 석남동이 보이고 그 뒤로 목재단지와 북항, 영종도등 항구도시 인천을 볼 수 있다. 함봉산에서 원적산을 지나 천마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방향의 산줄기 때문에 지형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원적산 터널을 뚫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2022년 1월에 개통되어 산곡역과 석남역을 나란히 통과하고 있다.

네 번째 만남

한국GM 자동차 (General Motors)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메카(부평)



한국GM자동차 부평공장 (출처:부평역사박물관)



국내에서 최초로 생산된 자동차(출처:국가기록원)

우리나라는 세계6위, 7위의 자동차생산국가이다. 1955년에 생산된 국내 최초의 승용차인 시발(SHIVAL)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시발점이 되라는 의미를 담아 '시발(始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자동차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 영어가 아닌 한글이름을 택했다고 한다. 당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산업 환경에서 시발 자동차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첫 자동차'라는 자긍심을 온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미군용 지프(Jeep)의 부품을 재생, 엔진을 만들고 드럼통을 펴서 차체를 얹은 후진국형 조립품이었지만 생산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시절에 망치 하나로 승용차를 만들어낸 건 대단한 일였고, 당시 5인승이었던 이 차는 국민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넓은 아세아에 있어서
자동차를 제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넣어서 2개 뿐이오니,
이차를 사용함으로써 만만년 문화민의
자부심을 가집시다.”

경향신문 광고 문구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메카를 뽑자면, 부평을 떠올릴 수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부평의 자동차 산업은 인천 지역의 사

회·경제에 큰 영향력을 끼쳐온 것은 물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역사에서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실제 부평과 자동차 산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국산자동차'가 부평에 있었으며 해방 후에는 새나라자동차, 신진자동차, 지엠코리아(GMK), 새한자동차, 대우자동차, GM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에서 2011년 한국 GM으로 회사명이 바뀌어 오며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의 중심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GM 홈페이지에는 부평공장을 '한국GM의 본산(本山)'이라고 표현함과 동시에 '국내 최초의 현대식 자동차 공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곳은 1962년에 자동차 조립공장, 1971년에 엔진공장을 준공한 국내 최초의 현대식 자동차 공장으로, 부평공장이 한국지엠의 주력공장이다. 1985년 세계 7번째로 디젤승용차 생산 및 1986년 월드카 르망 생산에 이어, 1993년 아시아 업계 최초로 ISO 9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한국자동차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1965년 부평지역이 수출공단으로 지정되고 이 일대에 입주한 천여개의 공장이 생산활동을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대우자동차'였다. 70년대 이후 부평공단이 조성되면서 전국의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부평에는 새로운 공단문화가 형성되었다. 80년대 들어 부평지역은 한국노동운동의 중심지로 떠올랐으며, 1987년 6월 항쟁 당시, 부평대로에는 연일 수만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집결하여 전두환 정권퇴진과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시위를 벌인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이기도 했다.

다섯 번째 만남

굴포천

인천에서 가장 긴 하천

굴포천은 한강으로 합류하는 지류로서 인천가족공원내의 칠성약수터에서 발원해 캠프마켓 옆과 부평구청, 삼산동을 지나 경기도 부천시를 통과해 김포시 신곡동의 신곡 양배수장까지 23.82km에 달하며 인천에서 가장 긴 하천이다. 굴포천 유역은 홍수재해와 수질 악화가 심각한 문제이다. 굴포천 중류와 하류 지역에 상습적으로 홍수재해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부평구와 부천시의 도시화로 물의 침투 능력이 떨어지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는 도로가 늘어나고, 물을 저장하는 작은 댐 역할을 하는 논 면적이 줄어들어 집중호우 시 홍수피해가 더 커지게 되었다. 또한 홍수시 한강 본류가 굴포천보다 높아 물이 빠지지 않는 탓에 저지대인 굴포천 주변이 큰 피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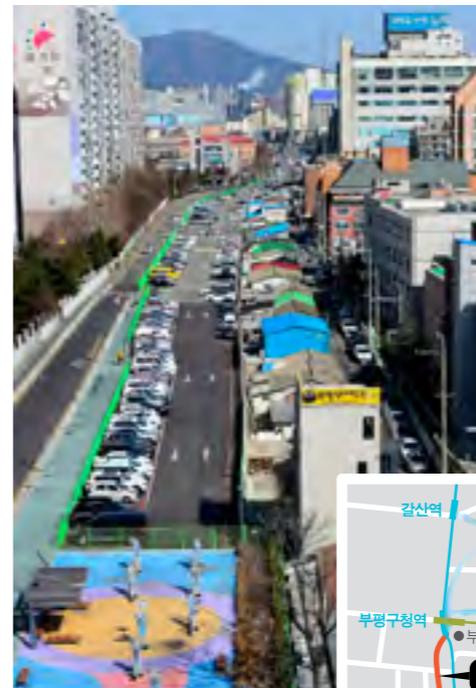


▲ 부평구청역 인근 굴포천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굴포천 방수로를 만들어 서해 쪽으로 흘러보내려는 계획이 경인 아라뱃길로 전환된 것이다.

산업화로 인해 부평이 도시화되면서 굴포천의 상당 부분은 복개되었다. 부평공원 부근을 복개 시점으로 부평구청 앞까지 3.46km가 복개되어 전부 주차장과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하천을 복개한 이유는 댐기만 하면 도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들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상하수도 설치와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1970년대 이전에는 생활하수를 동네 개천에 그냥 버리는 일이 많아 하수도로 쓰기 위해서였다. 이 때문에 모든 도심 속 하천에선 악취가 진동했고, 모기와 쥐 등 각종 유해동물들이 창궐했다. 거기다 홍수라도 한 번 나면 온 동네에 똥물이 넘쳐 흘렀다. 당시의 하천은 혐오시설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복개해서 악취나 범람만이라도 막으려고 했을 것이다.



▲ 굴포천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는 복개구간 모습 (출처: 미주 헤럴드경제)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를 관통해 흐르는 굴포천이 2016년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이원화되었던 관리체계 문제를 해결하고 재원조달과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인천시는 하천 살리기 일환으로 부평구청에서부터 부천시 경계까지 굴포천 하류 6.6km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했다. 썩은 물이 고여 있던 굴포천 밑바닥을 준설한 뒤, 부평구청 앞에 오수차집시설을 설치해 복개구간 오수를 차집하게 한 다음 서울 풍납취수장으로부터 한강 물을 끌어와 흘러보내는 방식으로 2008년 완료했다. 이듬해부터 청동오리가 굴포천에 날아들고 잉어 떼가 출현했다. 하지만 일정

량의 비가 오면 오수차집시설이 제 기능을 못해 굴포천 중상류의 오수 등 오염물질이 하류로 흘러넘치게 되었다. 부평구청은 2022년 부평구청에서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를 잇는 1.2km의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

행한다. 도심을 관통하는 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누구나 걷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고, 부평역 주변 침체된 상권을 되살려 고용·생산·소비가 선순환되는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부평구청 로비에 굴포천 복원사업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 조감도가 입체적으로 제작되어 있다. 과거 자동차가 다니기 편하라는 이유만으로 하천을 덮어 아스팔트를 까는 복개(覆蓋)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도시 속에 자연을 복원하여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하천을 살리는 시대가 되었다.

여섯 번째 만남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이상 기온,
초록별이 아픈 증거래요

굴포누리기후변화체험관은 부평 갈산동 갈산배수펌프장을 증축해 만든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굴포천에 붙어있다. 생명을 생각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체험하는 공간인 만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불필요한 공사로 인한 공해 발생 요인을 최대한 줄였다. 부평의 중심부를 흐르는 굴포천, 그리고 그 굴포천에서 자연과 함께 뛰어 나가는 부평사람들의 누리(세상)를 의미한다. 기후변화에 의해 병들어가고 있는 지구에 대한 현상과 원인을 알아보고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재미있는 놀이와 체험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또한, 도심 속에서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갈산배수펌프장의 역할과 굴포천 생태학습을 통해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배워볼 수 있다. 자연 재난시 갈산배수펌프장의 역할과 굴포천을 살리려는 지역사회의 노력을 살펴보고,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 체험관 1층에는 주제영상관, 기후온난화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에는

기후 변화 홍보관, 굴포천생태관, 녹색기차, 도시와 물의 순환, 배수펌프장의 원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홍수예방체험 코너에서는 물레방아의 원리를 배우며 모여있던 배수펌프장의 물이 빠져나가는 작동과정을 직접 만져보고, 돌려보며 홍수예방법을 체험할 수 있으며 대부분 체험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체험관 옆으로 굴포누리 생태체험장이 위치하고 있어 유수지 주변을 둘러보고, 굴포천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직접 조사하고 체험할 수 있다.



▲ 굴포누리기후변화체험관

일곱 번째 만남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사람들의 삶의 흔적



▲ 굴포천과 부평역사박물관

인천광역시 삼산동에 위치한 부평역사박물관은 아파트 숲 사이 작은 개천이 흐르는 굴포천옆에 자리 잡고 있다. 부평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고, 지역주민의 주인 의식을 고취하고자, 지난 2007년 개관했다. 다양한 전시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육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평역사실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지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공간이다. 입구에는 조선 후기 지도 및 지리지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한 부평지역 고지도를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본격적인 전시공간에서는 지역사회의 유·무형 문화유산들을 시대와 테마별로 기획하여 유물 및 영상 자료 등으로 연출하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어 현재까지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일본 육군조병창’ 관련 자료들과 조병창 공장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이 기거했던 미쓰비시 출사택이 실물 크기로 전시장에 재현되어 있어 암울했던 지역사의 한 부분을 느낄 수 있다. 농경문화실은 넓은 평야를 끼고 살아왔던 부평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뚜렷한 사계절이 있어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기르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겨울에는 다시 돌아올 봄을 준비하는 농업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농사에 이용하였던 기구들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 부평역사박물관 전시실

여덟 번째 만남

부평시장

왔다, 싸다, 짱이다!



▲ 부평시장 입구

부평시장은 일제강점기에 무기를 만드는 조병창이 생기면서 부평역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늘어 사람들의 이동로를 따라 노점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며 골목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시장의 모습은 해방 이후 조병창일대에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부평역 일대로 더 많은 상점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PX에서 흘러나온 미군 군수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도깨비시장(양키시장)이 생기며 본격적으로 시장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부평지역 일대가 수출산업4단지로 지정되면서 인구가 급증하여 시장은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 부평 전통시장은 부평종합시장, 부평깡시장, 진흥종합시장이 연속되어 있고 부평역에서 지하상가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통상 부평시장이라고 한다. 부평종합시장이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되었으며, 부평깡시장은 청과물도매시장으로 유명하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현대화된 쇼핑문화가 젊은 세대를 불러모으고 경기부진과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난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평깡시장은 1970년대에 청과물 경매와 도매거래가 이루어져 물건값이 저렴하였다. 인천 각지에서는 물론 김포, 검단, 영등포 일대에서도 이곳으로 장을 보러올 정도로 큰 시장이었다. 하지만 1994년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이 생기고, 2001년 인근 삼산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면서 도매시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업종의 다양화를 통해 일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2013년 골목상권과 농산물 생산



▲ 시설현대화 사업 후의 부평종합시장



▲ 부평문화의 거리



▲ 카페 특화거리

시간 유통망 구축 시범시장'으로 선정되어 다단계 유통구조를 탈피하여 직거래 체제를 구축하고 경쟁력 상승 및 소비자 인식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시장 입구에 공영주차장을 세우고 가격표시·원산지 표시, 시장 바닥을 개선하고 아케이드(지붕)와 공공간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 및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부평시장은 일제강점기에 지금은 청소년을 위한 거리로 변모한 '문화의 거리' 뒷길에서 골목시장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공업단지의 조성으로 부평역을 이용

하는 승객이 증가하고 부평지하상가가 건설되어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젊은층과 청소년들의 장소로 변하자 상인들은 신속하게 이들을 위한 옷가게, 패스트푸드점, 게임방 등의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되면서 평리단길이라는 카페거리 등 젊은이들의 장소가 되어 왔다.

아홉 번째 만남

부평역

부평의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



▲ 부평역사

인천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문화의 거리 입구의 금강제화빌딩이다. 인천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부평역세권이다 상권의 중심지, 대로면 모퉁이라는 점 등이 높은 땅값을 고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부평역에서 찾을 수 있다.

1900년 이전의 부평은 계양산 남사면에 자리한 부평 읍내를 중심으로 도로망이 수렴되는 지역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1899년 경인선 철도가 부평의 남부 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며 가설되면서 기존의 부평 읍내와



▲ 문화의 거리 금강제화빌딩



▲ 출근시간의 부평역



▲ 인천의 철도(출처: 전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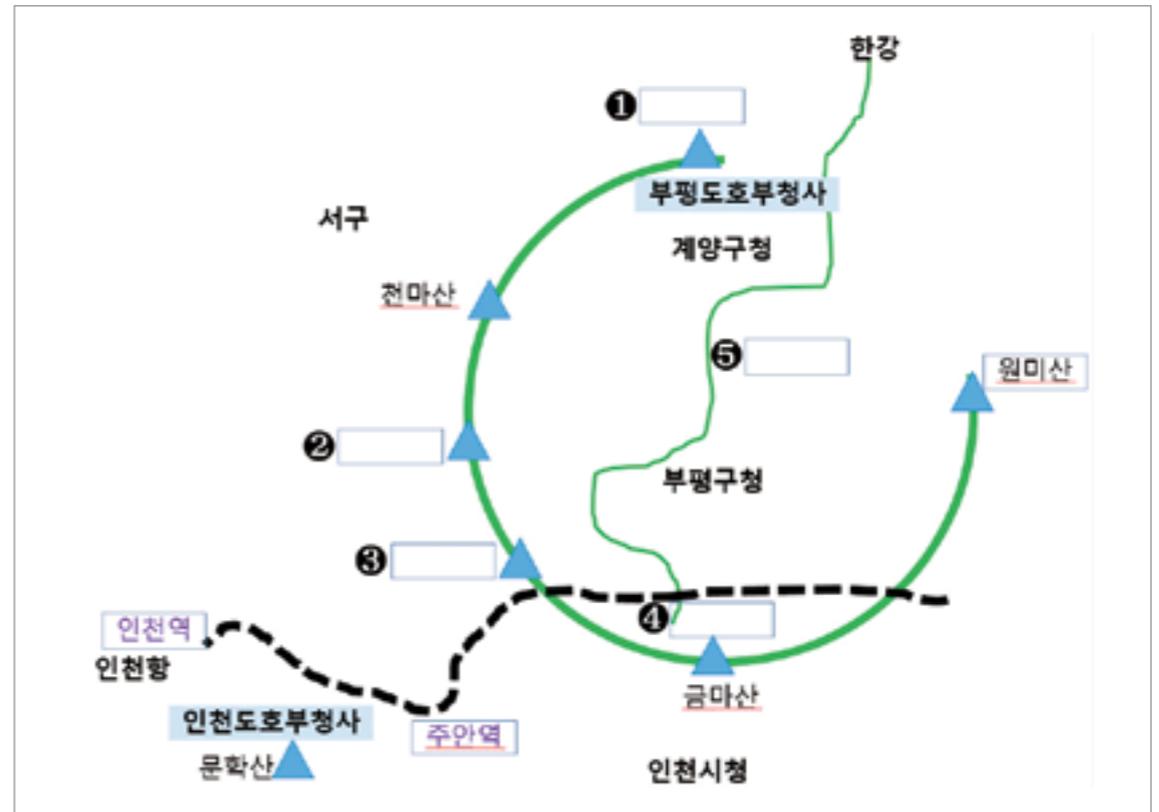
새롭게 등장한 부평역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즉, 부평대로(분구가 되면서 부평대로, 계양대로)가 생겨났다. 이로 인해 부평의 중심이 원부평(原富平)에서 근대화 과정을 대변하는 신부평(新富平)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축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부평역에서 계양 방향의 부평대로를 따라 중심상권을 이루고 갈산, 작전, 계산동 일대의 시가지의 확산과 공업지역의 형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경인선 철도의 개설은 한반도의 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꾼 한국 근대사의 큰 획을 그은 사건이다. 경인선 철도의 한가운데에 부평역이 위치해 있었다. 중심 도시인 서울과 항구 인천의 사이에 위치해 있어 노동력 수급이나 교통이 편리했던 부평역은 일제강점기 동안 부평에 공업단지가 조성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오늘날의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풍부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한강 하류의 풍부한 공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입지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후 부평이 대륙병참기지화의 핵심 지역이 되면서 각종 군수공장이 건설되었으며

이때 부평지구에 육군조병창을 비롯한 금속 및 기계공업 등 대규모로 근대적 공업 단지가 건설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전쟁 후에는 미군기지(ASCOM)가 자리를 잡으며 부평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켰으며, 한국GM(구, 대우자동차), 부평국가산업단지(수출산업공단지)가 들어서는데 부평역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74년 경인선 철도가 전철화하면서 부평지역으로 서울 통근 인구가 유입되어 갈산, 작전, 계산지역으로 시가지가 확대되었으며, 노선을 따라 인천지하철 1호선이 부평대로와 나란히 달리며 부평역은 결절점으로써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부평역 지하로부터 땅속에 미로처럼 펼쳐져 있는 부평지하상가는 1,408개의 매장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단일 면적 세계 최다 점포 수'를 가진 상가로 2014년 기네스북에 등재 되었다.

답사활동

01 아래 그림을 보고 ①~⑤의 산과 하천 그리고 철도역 이름을 적어보자.



02 해양문화 인천과 내륙문화 부평이 오랫동안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이유와 앞으로 통합적인 인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요약하여 발표해 보자.

03 부평역이 부평지역과 인천지역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요약하여 발표해 보자.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단원

- 고등학교 한국지리 : II. 지형환경과 인간 생활 2. 인간에 의한 하천 지형의 변화
- 고등학교 한국지리 : V. 생산과 소비의 공간 3. 공업의 발달과 지역 변화

■ 활동목표

-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교과서)과 체험활동으로 알게된 내용을 연결하여 작성하고 발표할 수 있다.

■ 학습활동

- 활동1 : 생태하천 복원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 굴포천의 생태하천 복원을 담당하는 부평구청 팀장에게 보내는 제안서를 작성해 발표해 보자.

현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계획의 문제점 (3가지)	
나의 제안서	

- 활동2 : 한국지리 시간에 배운내용(공업의 입지 요인과 입지 유형)과 답사활동으로 알게 된 내용을 연결하여 작성하기

교과서의 내용	
답사활동으로 알게된 내용	

함봉산에서 원적산까지 답사를 하면서 그리 높지 않은 한남정맥의 산 줄기로 인해 해양문화 인천과 내륙문화 부평(계양 포함)이 서로 다른 생활권이 이루어져 왔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쪽으로 향하는 능선을 따라 걸어가면서 동서의 시가지 중 서로 알고 있는 장소와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으면 의미있는 체험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태하천 복원의 경우 국내에서 성공한 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통해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의 바람직한 방향을 탐구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해주거나, 학생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와서 발표하도록

생각해 볼 거리

지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부평시장을 방문하여 기존 재래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한 사례들을 찾아보고, 점포안내지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 부평문화의 거리 금강제화빌딩 앞에서 왜 인천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 되었을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부평역이 지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터사랑, 2005, 인천땅 '이만큼 알기'
- 장양기 외, 2015, 인천사랑 테마형 체험학습 길라잡이, 인천시교육청
-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부평의 역사
- 한국최초 인천최고 100선, 2015, 인천역사자료관
- 인천의 길과 시장, 2006, 인천역사자료관
- 인천의 산과 하천, 2005, 인천역사자료관
- 인천역사7호, 2010, 인천역사자료관
- 인천에서 민주화운동을 만나다, 2014,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인터넷 자료

- 인천시 인터넷신문 <https://enews.incheon.go.kr/>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https://idph.kr/>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블로그 자료

- 인문도시의 꿈, 김창수(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https://blog.naver.com/kimcs107/220557832660>

2-2

인천 근대 산업과 역사의 흔적을 따라 산업역사

체험코스

① 부평역 → ② 삼릉줄사택 → ③ 부평공원 → ④ 캠프마켓 → ⑤ 부평역사박물관

전체 거리 5.9km(1시간 40분)
 구간별 거리 부평역~삼릉줄사택 (900m / 15분)
 삼릉줄사택~부평공원 (650m / 10분)
 부평공원~캠프마켓 (200m / 3분)
 캠프마켓~부평지하상가~부평역 사거리 (900m / 15분)
 부평역 사거리~부평시장 (770m / 12분)
 부평시장~부흥오거리 (600m / 10분)
 부흥오거리~부평굴포누리기후변화체험관(1.3km / 20분)
 체험관~굴포천~부평역사박물관 (670m / 10분)

교육과정

고등학교-한국지리 거주공간의 변화와 지역개발
 고등학교-한국사 일제의 경제침략과 이로 인한 변화
 고등학교-통합사회 생활공간과 사회

키워드

#조병창 #캠프마켓 #삼릉줄사택



범례

- 답사지점
- 답사경로
- 구

2-2

인천 근대 산업과 역사의 흔적을 따라

- 일제강점기의 인적·물적 수탈 조병창 이야기
- 일제 조병창 이야기
- 삼릉 줄사택
- 미군부대 캠프마켓



부 평 의 병 참 기 지 로 시 작 된 경 인 공 업 지 역

부평 공원과 주변지역은 전쟁 무기와 잠수함까지 만들던 곳이었어요!

부평은 넓은 평야를 낀 농업생산지대였습니다. 1920년대에는 부평수리조합의 설치로 미국증산의 중심지였으나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난 뒤 일제는 전쟁무기를 만들기 위해 일본육군조병창¹을 건설했습니다. 부평공원은 도심의 한복판에서 휴일이나 오후에 가족들이 함께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지만, 일제강점기에는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이 있었던 곳으로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군사보급기지이기도 하였습니다. 부평역 일대에 삼릉(三菱)이라고 곳은 전쟁범죄 기업인 미쓰비시(三菱)때문인데 일제의 수탈과 많은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과 슬픔이 서려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이지만 그 흔적을 찾아가며 부평을 만나봅시다.

1 조병창(造兵廠) - 일제가 대륙침략을 위해 군수물자를 생산하려고 1930년대 말에 세운 공장

첫 번째 만남

부평역

오늘날 부평의 중심



▲ 부평역

부평역은 오늘날 부평구의 중심이다. 인천역에서 부평역까지 20분이 소요되고 서울역까지 50분이 소요된다. 부평역의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해져 서울과 인천항의 중간에 위치한 부평의 넓은 들에서 생산된 쌀이 부평역을 통해 인천항으로 반출되었다. 이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무기를 만드는 조병창이 입지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며, 이후 경인공업지역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듯 경인철도의 개통으로 부평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크게 변화되어 왔다.

두 번째 만남

삼릉 줄사택

미쓰비시 사택

부평2동을 '삼릉'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일본기업 '미쓰비시'의 한자(漢字)표기에서 나왔다. 이곳에 일제강점기 조병창이었던 미쓰비시 부평공장의 노동자 합숙소가 생겼으며, 당시 1천명 이상이 이곳에 거주하며 강제 노역을 했던 역사와 관련이 있다. 골목(매우 좁음)당 10가구씩 연속적으로 짓고 공중변소가 1개씩 배치되어 있어 줄사택이라 부르게 되었다.



▲ 삼릉 줄사택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되었으며 집을 넓게 쓰기 위하여 처마끝을 늘려 구조 변경한 흔적이 눈에 많이 띈다. 일제강점기 전범(戰犯)기업 미쓰비시(삼릉·三菱)의 흔적인 '미쓰비시 줄사택'을 두고 보존과 개발의 목소리가 엇갈려왔다. 강제노동자 합숙소로 유일한 건물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주거상태 열악"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곳이 사실상 한반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강제 노동자 합숙소라는 점에서 보존 가치가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출사택 9개 동이 있었으나 이 중 3개 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행정복지센터를 짓기 위해 이미 철거됐다. 나머지 6개 동 가운데 4개 동을 기록으로 남겨 추후 다른 장소에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 째 만 남

육군조병창과 부평공원
부평 역사의 흔적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에 이어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무기와 탄약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항만과 철도를 갖추고 있으며 서울과 가까운 부평에 주목하였다. 한반도 일대에 조병창을 신설한 것이 부평에 있는 인천육군조병창이다. 일제는 전쟁무기를 만들기 위해 현재 부평역 앞 동아·대림·옥일아파트와 미군부대인 에스컴, 현대·동남·삼일아파트, 그리고 화랑농장 자리에 육군 조병창을 건설했다. 이곳에서 소총, 탄약, 수류탄, 경차는 물론 잠수함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조병창에서의 무기 생산을 위해 조선 전역에서는 금속품 공출이 강제로 이루어졌다. 일제의 가혹한 수탈의 상징으로 기억되는 낫그릇, 낫수저의 공출이 조병창에서의 무기 제조를 위한 것이었다. 식기를 비롯해 제기, 세숫대야, 징, 절에 있는 범종, 양은냄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속품이 조병창에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한다. 이것을 용광로에 녹여 실탄 등의 무기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국민총동원령을 내려 근로보국대를 편성하여 조병창 공사에 투입하였다.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김포와 강화 등지의 학생들이 공사에 강제 동원되어 고된 육체노동에 시달렸다. 많은 조선인들이 반강제적으로 징용돼 단순노동에 종사했다. 강제동원이 일상화되면서 국외로 동원되거나 탄광으로 징용되는 것을 피하려던 젊은이들이 인천조병창으로 몰려든 것이다. 조병창에 근무하면 징용을 면제해주는 특혜가 있어서 이곳을 피난처로 삼고자 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든 노동에 시달렸으며 항상 사고로 인한 부상과 죽음의 위협을 걱정해야 했다.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지금의 우리들과 후손들에게 식민지의 실상을 잊지 않도록



▲ 부평 조병창(에스컴) 건물 1948년 Norbfaye 촬영 (출처:부평구청)



▲ 징용노동자상

록 하기위해 시민들의 모금으로 징용 노동자상이 건립되었다.

“정신대를 보낸다고 날마다 동네에 와서 처녀들 이름을 적어갔어요. 직장에 다니면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를 그만 두고 조병창 의무과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조병창 공장에 가보니깐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아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어떤 아이가 옷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팔 하나가 떨어져서 온 적이 있었어요. 끔찍한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장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세상이었으니까.

네 번 째 만 남

캠프마켓

부평 시민의 품으로

인천 부평구의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미군부대인 ‘캠프마켓(Camp Market)’ 부지는 한국 근현대사의 수난을 상징하는 곳이다. 1945년 광복 후 인천의 군정을 맡은 미 제24군수지원단은 부평에 있던 인천육군조병창과 군수공장 일대를 접수하고 이곳을 ‘에스컴 시티(ASCOM CITY:Army Service Command City)’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에스컴은 주한미군 부대에 전쟁 물자와 식량을 보급하는 보급창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6·25전쟁 과정 중과 직후에는 의무대, 공병대, 통신대, 항공대 등이 잇따라 설치되었고, 부대 내에 설치되었던 포로수용소에는 1,500여 명의 북한군·중공군 포로가 수용되기도 하였다. 미군기지로 자리 잡힘에 따라 부대 인근 마을은 미군을 상대하는 영업장인 소위 ‘기지촌’으로 변모하였다. 미군 PX에서 나온 담배, 술, 통조림, 전자제품, 화장품 등이 서울 남대문시장과 동인천 양키시장, 부평시장 등에서 유통되었으며, 미군이 출입하는 클럽, 양복점, 사진관, 세탁소 등은 60년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에스컴이 있던 동안 부평의 기지촌은 살인, 강간, 폭력, 마약, 절도, 밀수 등 범죄가 끊이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에스컴은 1971년 미 7사단의 철수를 계기로 55헌병대와 베이커리(빵공장)시설 등만 남아 있으며, 81년만인 2020년 10월에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2003년부터 진행되어 온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의해 조병창을 품고 있던 캠프마켓은 오염 토양 정화작



▲ 캠프마켓(출처:부평구청)

업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천시에 반환될 예정이다.

다섯 번째 만남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의 역사를
한곳에서 한눈에!

부평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고 지역 주민에게 정주의식을 함양 시키고자 2007년 개관한 부평역사박물관은 전국 최초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역사박물관이다. 부평지역에서 출토된 유물과 향토사료 1천6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어 부평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부평역사박물관의 전시관은 크게 네 곳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부평역사실, 농경 문화실, 기획전시실, 기증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부평의 전통적인 농경문화생활과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부평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1층에 위치한 기획전시실에선 부평의 근현대사를 함께한 부평 미군기지 (애스컴 시티)에 대한 기획 전시뿐만 아니라 부평수출산업공단, 해방공장이라는 주제로 부평의 군수공장의 현실과 노동자들의 삶을 생생하게 되살려 주었다. 2020년에는 「부평시장, 시대를 사고 팝니다」라는 특별기획전시를 통해 부평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2층의 부평역사실에선 근대사, 즉 일제강점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부평은 지리적 이점 때문에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위한 군수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 제조를 위해 부평 일대의 주민들을 강제동원하기도 하였다. 인천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 우리 민족으로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알 수 있다. 미쓰비시 사택의 모습을 생생히 재현해 놓은 공간이 있으며,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의 공동생활은 매우 열악하여 식량 배급조차 통제되었고 금속품을 강제로 공출당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부평사람들 삶의 오랜 근원을 보여주는 농경 문화실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농기구들을 둘러볼 수 있고, 사계절 농업과 관혼상제를 재현한 디오라마 전시 등을 둘러볼 수 있다.



▶ 부평역사박물관 전시실

답사활동

01 부평 공원 강제징용노동자 상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 이야기 해보자.



※ 인천 부평공원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가로 4m, 세로 3m, 높이 2m 규모로 시민단체와 시민 900여 명이 모은 성금 1억 6,000만 원으로 만들어졌다.

02 일제강점기에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노동자들의 애환을 생각하며 4행시를 지어 발표해 보자.

부

평

공

원

(캠프마켓 / 줄사택 / 조병창)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단원

- 고등학교 한국사 : IV. 일제의 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 2. 식민통치가 시작되다. 05. 조선을 병참기지로 만들다.
- 고등학교 한국지리 : 4. 거주공간의 변화와 지역개발 2. 도시재개발과 주민 생활의 변화

■ 활동목표

-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교과서)과 이번 답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연결하여 작성할 수 있다.

■ 학습활동

- 활동1 : 한국사 시간에 배운내용(05.조선을 병참기지로 만들다)과 이번 답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연결하여 작성하기

교과서의 내용	
답사활동 내용	

- 활동2 : 한국지리 시간에 배운내용(2.도시재개발과 주민 생활의 변화)과 답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연결하여 작성하기

교과서의 내용	
답사활동 내용	

학생들이 인천 근대 산업과 역사의 흔적을 따라 부평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금단의 땅으로 여겨온 부평미군기지인 캠프마켓이 81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모듬별로 장소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하도록 하면 더 흥미롭고 유익한 체험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부평역사박물관에서 모듬별로 실물을 보며 다시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준다면 부평에 대한 이해와 발표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볼 거리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터사랑, 2005, 인천땅'이만큼 알기', 다인아트
-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부평의 역사,(주)인천신문
- 강옥엽 외, 2018, 인천으로 통하였느냐, 인천역사자료관
- 조우성, 2003, 인천이야기 100장면, 도서출판 인아트

인터넷 자료

- 인천시 부평구청 www.icbp.go.kr
- 인천시 계양구청 www.gyeyang.go.kr
- 인천시 부평문화원 www.bpcc.or.kr
- 부평역사박물관홈페이지 <http://portal.icbp.go.kr/>
- 네이버 두산백과

2-3

원부평인 계양의 역사유적 역사 문화

체험코스

① 경인교대입구역(계양산) → ② 부평향교 → ③ 부평도호부관아 → ④ 계산시장 → ⑤ 부평지하상가 → ⑥ 부평역

전체 거리 3km(1시간 8분)
 구간별 거리
 경인교대입구역~부평향교 (500m / 8분)
 부평향교~부평도호부관아 (800m / 15분)
 부평도호부관아~계산시장 (500m / 10분)
 계산시장~경인교대입구역 (250m / 5분)
 경인교대입구역~부평시장역 (인천지하철 / 15분)
 부평시장역~부평지하상가~부평역(900m / 15분)

교육과정

초등학교 3-1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초등학교 4-1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초등학교 5-2 사회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키워드

#부평역사의 중심 계양 #중등교육의 산실 향교 #부평지하상가 속 다양한 삶



범례

- 답사지점
- 답사경로
- 구

2-3

원부평인 계양의 역사유적

- 부평의 중심지 계양
- 계양의 역사유적
- 부평역과 중심지의 변화



원래 부평의 중심지는 계양 - 부평 역사의 중심, 계양구

부평사람들이 예부터 살고 있었던 중심마을은 부평이 아닌 계양이었다?

현재의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마치 다른 지역처럼 보이지만 불과 몇백 년 전 조선 시대에는 세 지역 모두 부평도호부 관할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한강이나 바닷가와 밀접한 영향이 있어 교통과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지명의 유래로 보자면, 부평의 경우 고려말 충선왕 2년인 1310년 부평부로 이름이 정해진 이후 700년이 되었다. 반면에 계양은 고려 고종 2년인 1215년에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이름의 출발로 보자면 부평보다는 100년이 앞서고 있다. 지난 2015년이 이름 탄생 800년이었다. 서구 역시 대부분 지역은 옛 부평도호부 관할 지역이었다. 1988년 원래 인천시 북구지역에 속했던 서구는 새롭게 '서구'로 분구되었다. 1995년 인천이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북구는 다시 제1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북쪽은 계양구로, 남쪽은 부평구로 분구되었다. 여기에서는 계양의 여러 역사유적을 탐색하고 부평지하상가의 역사와 상업적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만남

계양산 부평의 진산

계양산은 문학산과 더불어 인천의 대표적인 산이다. 계양산은 옛 부평도호부의 진산(鎭山)이다. 진산이란 도읍지나 각 고을에서 그곳을 수호하는 주산(主山)으로 정하여 제사를 지내던 산을 말한다. 즉 한 마을의 중심이 되는 산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계양산은 해발 395m로 인천 내륙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다. 계양산 정상에 오르면 사방이 탁 트여있어 서쪽으로는 영종도와 강화도 등 주변 섬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동쪽으로는 김포공항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북쪽으로는 경기도 고양시, 남쪽으로는 계양구가 펼쳐지는 요새와 같은 지역이다. 고려 말 이규보가 지은 '망해지'라는 책에는 "길이 계양산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뚫려 있으니 그 중 한 면만 육지로 통하고 삼면은 모두 물



▲ 계양산

이다."라고 하고 있다. 계양산은 지리적으로 한강 하류 서편에 펼쳐진 평야 지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한강 하류가 감싸는 듯한 형국을 하고 있어 예로부터 서해의 관문으로 교통과 군사상의 중요한 지역으로 여겨왔다. 계양산 동쪽 기슭 봉우리에는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양산성이 있고, 서쪽으로는 1883년 인천이 개항하던 해에 해안방비를 위해 부평 고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축조한 중심성이 정매이교개능선을 따라 걸쳐 있었다.

두 번째 만남

부평향교 부평의 중등 인재양성 교육기관

부평향교는 조선 시대에 부평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관립 학교 건물이다. 부평의 진산인 계양산 남쪽 아래에 향교가 처음 설치된 것은 고려 인종 5년(1127)이다. 이것이 조선 시대까지 이어지다가 인조



▲ 부평향교의 모습

14년(1636) 병자호란으로 소실되었다가 전쟁이 끝난 후 숙종 14년(1688)에 현재 위치에 다시 지어졌다. 현재의 건물은 18세기 이후에 세워진 것이다. 그 후에도 1921년 명륜당을 중수한 것을 필두로 여러 차례 보수가 이루어졌다. 건물 배치는 향교의 전형적인 전당후묘(前堂後廟)의 방식을 취하여, 명륜당과 재실(齋室) 등 교육 시설을 앞에 놓고 그 뒤에 대성전과 문묘 시설을 배치하였다. 명륜당에는 교실과 강당이 있고, 안

뜰 동쪽에는 재실과 내빈실이 있으며, 세 개의 문을 지나면 한 층 올라간 중앙에 대성전이 있다. 이 중 명륜당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진 공간이고, 재실은 유학생들이 기숙하던 곳이며, 대성전은 공자 등 중국의 유명한 유학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199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고 부평향교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세 번째 만남

부평도호부관아

부평도호부
행정타운의 중심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943번지 부평초등학교 내에는 옛 부평도호부 관아의 일부 건물이 남아 있다. 도호부란 고려와 조선 시대, 지방에 설치했던 행정 기관이다. 고려 시대에는 4개 지방에 설치되었다가 폐지, 확대, 설치를 거듭하였다. 조선 경국대전에 의하면 44개의 지역에 설치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의 인천광역시 서구와 부평구 그리고 계양구 일대는 부평도호부의 관할하에 있었다. 바로 이곳이 이 세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를 관리하던 중심지였다. 부평도호부관아는 조선시대 태종 13년(1413)에 부평부가 부평도호부로 승격되면서 청사 건립에 착수하여 약 5년 후 태종 18년(1418)에 완공된 것으로 보여진다. 부평부 읍지에 의하면 중심업무를 보던 동헌, 관리나 외국 사신이 묵던 숙박시설인 객사, 죄를 다스리던 포도청 등 수많은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곳에 초등학교를 세우면서 현재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을 헐어버렸다. 지금 있는 건물은 원래 ㄱ자형이었으나 1968년 현재의 위치로 옮기면서 一자형으로 개조한 것이다. 이 건물은 예전 형태로 보아 동헌이나 현감의 살림채였던 내아로 추측한다. 규모는 앞면 6칸·옆면

2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으로 되어있다. 이곳에는 정원수로 심어진 듯한 약 600여년쯤 되는 계산동 은행나무(시지정기념물 11호), 어사대(시지정문화재자료 제3호)의 흔적이 도호부관아 앞에 남아 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은육은지'라는 연못인데, 긴 돌을 이용해 단을 쌓고 네모 형태로 만들어 조선 시대 연못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부평도호부 관아의 모습

네 번째 만남

계산시장

부평도호부관아로 가는 길



▲ 계산시장 골목길 모습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1982년 개장하였다. 대지면적은 1만 6,529㎡이고, 총면적은 1만 4,016㎡이다. 약 240개의 상점이 있다. 주로 식품류·의류·잡화류를 취급한다. 계산대로의 끝부분인 계양1동 국민은행 뒤에 있으며, 길이 약 150m의 십자로 형식의 거리에 상점들이 분포되어 있다. 시장 옆의 복개천 도로에 식당과 먹을거리 장터가 있고, 시장상인들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도 있다. 과거 이곳은 부평을 관할하던 부평도호부관아의 주요 시설들이 밀집해 위치하였던 곳으로 주변 고을에서 부평도호부관아로 가던 길들이 만나는 마을의 행정타운의 입구였던 곳이다.

다섯 번째 만남

부평지하상가

동대문 시장 부럽지 않은
쇼핑의 천국



▲ 부평지하상가의 점포 모습

부평역에서 내리면 개찰구를 빠져나가자마자 부평지하상가가 나타난다. 부평지하상가는 원래 국가 보안상 대피 시설, 즉 방공시설로 조성된 곳이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지하에 자연스럽게 상권이 조성되면서 지금의 부평지하상가가 탄생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부평지하상가는 점포 수만 무려 1,440개로 부평 주민들도 자칫 이곳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서울에서 가장 크다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의 점포가 400개라고 하니,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규모다. 미로처럼 이어진 지하상가의 출구만 무려 31개로, 출구를 정해놓고 걷지 않으면 지하상가에서 미아가 될지도 모른다. 서울 동대문보다 저렴한 액세서리, 신발, 옷, 휴대폰,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점포는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들도 찾는 명소가 되었다.

여섯 번째 만남

부평역

부평의 교통, 상업, 업무의 중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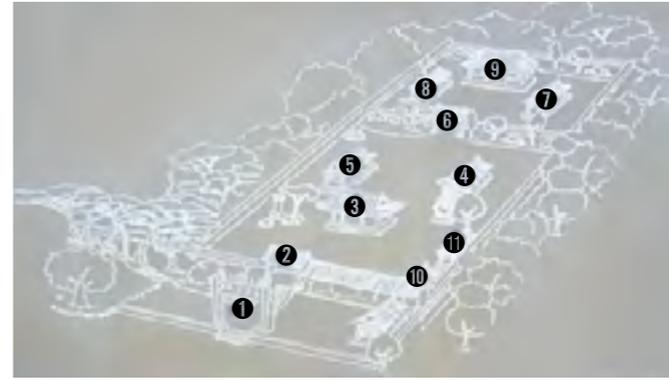


▲ 부평역 전경

“인천은 몰라도 부평은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 바로 부평이다. 서울행 급행열차가 정차하고 인천지하철이 놓이면서 부평역은 인천에서 가장 큰 역이자 가장 큰 상권이 집중된 곳이다. 1899년 9월 18일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부평역은 영업을 시작하였다. 경인철도 당시 하루 네 번의 증기기관차가 통과하면서 서울과 인천은 한나절 생활권이 되었고, 새로 신축된 역사에는 새롭고 젊은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만끽하기 위한 사람들의 열차 이용률도 높아졌다. 부평역이 새로운 교통의 중심지가 되자 원부평의 중심지였던 북쪽의 계양의 도심 기능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고, 제1 경인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부평역을 중심으로 한 신부평 지역과 계양산을 중심으로 한 구부평은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남북으로 분구되어 북쪽은 계양구로 남쪽은 부평구로 분리되었다.

답사활동

01 부평 향교를 답사하며 각 건물의 이름을 적어보자. 각 건물의 쓰임새는 무엇일까?



① (예시) 홍살문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02 부평지하상가를 돌아보며 상점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을 살펴보고, 기억에 남는 상점이나 물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보자.

상점 또는 물건	상점 또는 물건 소개 (특징, 가게이름, 판매하는 물건 등)

잠깐! 만약 나에게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부평지하상가에서 어떤 물건을 선물로 사고 싶은지 물건과 이유를 간단히 써볼까요?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단원

-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사회 :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 :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 활동목표

- 우리 고장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특징을 파악하여 고장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 우리 전통 문화재를 살펴봄으로써 옛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 학습활동

- 활동1 : 외국인에게 전통 문화 소개하는 홍보물 만들기
 - 향교 답사 후 찍은 사진과 관련 글 모으기
 - 외국인 친구(관광객)에게 소개할 향교(부평도호부관아)에 관한 홍보물 만들기
 - 포스터, 리플릿 등의 형태로 자유롭게 제작하기
- 활동2 : 부평지하상가와 계산시장을 다녀온 뒤 체험활동 보고서 꾸미기
 - 답사 활동에서 수집한 상점이나 상품 사진 분류해보기
 - 시장과 지하상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기
 - 누리집을 활용하여 추가 자료 조사하기
 - 체험활동 보고서 작성하기

계양구 지역에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찾아보게 함으로써 부평의 원 중심지가 계양산 일대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 지역 교통(경인선, 경인고속도로)의 발달에 따른 행정 구역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국토와 우리 생활'단원의 도시 발달의 특징과 연계하여 지도해 볼 수 있으며, 같은 단원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의 위치와 교통 발달의 특징과 연관시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여도 좋겠다. 특히 부평 향교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역사 단원에

생각해 볼 거리

서 조선시대 교육제도나 유교 사상에 대해 더 알아보는 활동을 추가하여 역사 단원 심화활동이나 역사 동아리활동 수업으로 응용해 볼 수 있겠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터사랑, 2005, 인천땅'이만큼 알기', 다인아트
- 이하람, 2014, 두근두근 인천산책, 알에이치코리아
- 강옥엽, 강덕우, 2018, 문답으로 엮은 인천역사, 미소
- 강옥엽 외, 2018, 인천으로 통하였느냐, 인천역사자료관

인터넷 자료

- 인천시 부평구청 www.yeonsu.go.kr/
- 인천시 계양구청 www.kopri.re.kr/
- 인천시 부평문화원 www.bpcc.or.kr/icarusx/
- 네이버 두산백과

2-4

서구의 과거에서 미래로

지리|역사|과학

체험코스

① 인천녹청자박물관 → ②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 ③ 커널웨이수변공원 → ④ 청라호수공원 → ⑤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청라지구생태공원) → ⑥ 인천로봇랜드

전체 거리 11.7km(3시간 10분)
구간별 거리 인천녹청자박물관~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분수광장) (1.45km / 25분)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커널웨이수변공원 (2.8km / 45분)
커널웨이수변공원~청라호수공원(플라워뮤직아일랜드) (2km / 30분)
청라호수공원~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청라지구생태공원) (3.4km / 60분)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인천로봇랜드 (2km / 30분)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사회 1-6.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중학교 3학년 사회 2-10.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중학교 1학년 과학 1-7. 과학과 나의 미래

키워드

#녹청자 #아시아게임 #국제도시 #폐기물처리 #로봇



① 인천녹청자박물관

②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④ 청라호수공원

③ 커널웨이 수변공원

⑤ 청라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 (청라지구생태공원)

⑥ 인천로봇랜드

범례

- 답사지점
- 답사경로
- 구

2-4

서구의 과거에서 미래로

- 서구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



변 방 에 서 세 계 가 주 목 하 는 도 시 로

인천광역시 서구는 인천 육지 면적의 34%에 이르는 광활한 토지를 갖고 있다. 1980년대 까지만 해도 도시적인 모습보다는 촌락의 경관이 익숙한 곳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천의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번듯한 제조업도, 관광시설도 없었다. 도시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였다. 서울의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한계에 도달해 서울과 경기, 인천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돼 혐오지역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의 서구는 환골탈퇴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인천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고 있고,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가 지나간다. 또 서해 바다와 한강을 잇는 경인아라뱃길이 개통했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돼 인천의 교통 중심지역이 되었다. 여기에 국제산업 금융도시인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입체도시인 루원시티가 조성돼 명실상부한 경제수도 인천의 신흥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인천의 변방으로 인천 시민들에게서 조차 관심 밖의 공간이었던 이곳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만남

녹청자 도요지 인천녹청자박물관 인천 최초의 문화재



▲ 녹청자 도요지



▲ 인천녹청자박물관

녹청자는 모래가 섞인 점토에 녹갈색 유약을 발라 가마에서 고온의 불로 구어 만든 녹갈색 빛이 나는 청자이다. 이곳은 예전엔 갯벌이었고, 가마터는 바다에 가까운 능선에 위치하였다. 1965년 발굴 당시에 전문가들은 녹청자를 청자의 전 단계로 인식했었지만, 1980년대 연구를 진행하면서 초기 청자의 영향을 받아 지방 수요용으로 대량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청자는 왕실이나 고위관료들이 주로 사용했고, 녹청자는 주로 지방 관아나 작은 사찰, 평민들이 사용했

다고 한다. 도자기 성질에 있어도 청자와 구분된다. 청자는 정제된 흙을 사용한 반면 녹청자는 정제 과정을 생략하여 이물질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유약도 색깔이 다르다. 청자는 옥색과 녹색에 가깝고, 녹청자는 갈색에 가까우며 색채도 훨씬 다양하다.

녹청자를 생산하던 가마터(도요지)는 경서동의 국제컨트리클럽 골프장 안에 있다. 10세기~11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대에는 5~6개소의 녹청자도요지가 있다. 당시 심층발굴이 요구됐지만, 발굴된 가마 뒤편에 바로 도로가 나 있어 발굴지역을 확대하지 못했다. 도요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받기 몇 개월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도권에 골프장을 만들어 외국 바이어들을 접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결국 문화재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이 골프장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도자기의 평형을 맞추기 위해 말굽모양의 도지미 자기를 굽기 전에 그릇이 직접 요위에 닿지 않도록 그릇들을 올려놓는 굽받침(개떡)을 사용하였다. 이런 형식의 도요지는 1964

년 이전에는 일본에서만 발견되었지만, 경서동 녹청자도요지의 발굴로 도자기 제작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전파되었음을 증명하게 되었다.

인천녹청자박물관은 1970년 사적 211호로 지정된 인천서구 경서동 녹청자도요지에서 출토된 녹청자에 대한 학술자료 조사와 연구, 그리고 향토문화를 지켜나가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2년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옛 경서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 개관하여 사용하다보니 증가하는 관람객을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2010년 지금의 박물관을 신축하였다. 2012년 2월 1층 전문 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되면서 인천에서 유일한 도자기 전문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1층은 녹청자 유물과 전통 도자기 제작과정을 볼 수 있는 역사전시실과 현대 도예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획전시실로 구분되어 있다. 2층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강의실이 있다. 또한 야외전시장과 중정에는 200여 점의 기증받은 용기까지 비교해 볼 수 있어 우리나라 전통 도자기에서부터 현대 도예작품까지 도자기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 만남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2014년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경기장이다. 전체 부지면적은 63만 1,975㎡, 주경기장 연면적은 11만 3,620㎡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경기장 내부에는 각종 육상경기를 치를 수 있는 트랙과 국제 규모의 잔디 축구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경기장 주변에 보조 경기장과 연면적 1,415㎡ 규모의 연희크리켓경기장 등이 있다.

주경기장 외관은 빛과 바람과 춤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하였다. 2개의 지붕이 바람이 물결치듯 남북으로 펼쳐져 있고, 부드럽게 빛이 산란되어 투명하고 열린 느낌으로 파사드(façade :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있는 정면부)를 표현하였으며, 한국 전통 승무(僧舞)의 춤사위를 담은 곡선미로 조화를 이루었다. 또한 주경기장 건물은 지열·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설계로 친환경 인증을 획득



▲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하였으며, 주경기장 서쪽에 심곡천과 공촌천을 이어주는 echo canal과 소규모 생태서식공간인 biotope을 조성하는 등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인천광역시 인구에 비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여유 부지가 있는 서구에 부지를 마련했다. 2010년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시 재정 악화 사유를 들어 건축 재검토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서구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거셌고 인천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원안보다 1만 석 정도 축소된 규모로 2014년 5월 7일 준공식을 가졌다.

세 번째 만남

커널웨이 수변공원

물길따라 유유히 흐르는 푸른 보석



▲ 커널웨이 수변공원

커널웨이 수변공원은 4.5km의 주운수로가 청라국제도시의 상업지역을 횡으로 가로지르면서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청라호수공원과 연결되어 있다.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시설물과 아름다운 경관이 조화를 이루어 휴식과 여유를 안겨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커널웨이는 인공수로로 조성되었지만 ‘인공’에 대한 위화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가능한 한 자연수로로 보이기 위해 콘크리트 옹벽을 줄이고 석축을 이용했으며, 청라의 보석 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해 구간별로 조형물의 색채 계획도 루비존, 사파이어존, 에메랄드존 등의 상징색을 적용했다. 수로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작은 보행교와 조형 벤치 등을 곳곳에 배치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공간이 되도록 했다.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열리고 있어 인공적인 운하를 도시에 끌어들여 성공한 사례가 되고 있다.

커널웨이와 청라호수공원의 북쪽과 남쪽에 심곡천과 공촌천이 흐르고 있다. 심곡천은 인천광역시의 서구 천마산 산록에서 발원하여 서구

매립지를 경유한 다음 청라도 남쪽을 통해 서해에 유입하는 하천이다. 심곡(深谷)이란 깊은 골짜기라는 뜻으로 한자화되기 전의 우리말은 ‘깊이울’이었다고 전한다. 공촌천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에서 시작하여 경서동에서 서해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이다. 하천의 이름은 공촌동이라는 마을 이름에서 유래하였으며, 공촌의 옛 이름은 ‘고련이’로 삼국시대에 고현, 즉 옛 현이 있었다는 것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네 번 째 만 남

청라호수공원

다양한 매력이 가득한 곳

청라호수공원은 69만3천㎡(36만3천㎡)이고 커널웨이수변공원 포함해서는 106만㎡로서 우리나라 호수공원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호수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커널웨이와 함께 청라국제도시를 상징하는 공원이다.

공원은 생태문화공간, 예술문화공간, 전통문화공간, 레저문화공간, 타워문화공간 총 5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고, 호수의 가운데에는 창포섬, 물새섬, 생태축제의 섬, 플라워 뮤직아일랜드 4개의 테마섬이 인공섬으로 조성되어 있다. 전통문화공간에는 경복궁 경회루를 모티브로 하여 지어진 청라루가 있으며, 레저문화공간에는 음악분수, 어반비치, 플라워뮤직아일랜드, 멀티플라자가 설치되어 있다. 호수공원 중심부에 443m의 전망타워인 청라시티타워가 2023년에 완공 될 예정이다.

호수공원과 연결돼 있는 멀티프라자에는 넓은 다목적 잔디마당과 트랙이 있어 축구, 야구 등의 다양한 운동은 물론,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를 마음껏 탈 수 있다. 청라호수공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음악분수를 꼽을 수 있다. 음악에 맞춰 뿜어내는 시원한 물줄기가 엮어내는 경치는 가족·연인 등의 나들이 코스로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음악분수는 평일 오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 청라호수공원

다섯 번째 만 남

청라광역 생활폐기물소각장 (청라환경생태공원)

다양한 매력이 가득한 곳
쓰레기 더미 위에 핀 곳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은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42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하루 100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화하는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지만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82,000㎡ 규모의 청라환경생태공원을 사업소 안에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아름다운 꽃과 함께 자연을 느끼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과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등의 각종 체육시설 등을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 중이다.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생활폐기물의 운반비용을 절감하고 소각열을 활용하여 난방가능한 온수 공급을 위해 보통 주거지역 가까이 건설된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유해물질을 내뿜고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지역주민의 폐쇄 요구가 거세다. 최근 수도

권 매립지의 대체수단 중 하나로 소각장 확충 사업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기존의 소각장 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소각시설 현대화에 대한 서구 주민들의 찬성률은 전체 군·구 중 제일 낮았고, 제3지역 이전에 대한 선호도는 최고였다. 이 같은 차이는 관련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인천 지역 내 주민들 간의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

여섯 번째 만 남

인천로봇랜드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중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 조성된 인천로봇랜드는 로봇을 주제로 하는 테마파크로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로봇 연구소, 로봇 기업군, 로봇 산업용지, 로봇 교육기관, 로봇 시연장, 로봇 박물관, 테마파크 등이 함께 입지하는 로봇 복합 타운으로 조성되어, 미래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이다.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할 때 청라국제도시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로봇산업과 금융산업을 지정했다. 그에 따라 로봇산업을 육성할 지구가 필요했고, 로봇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로봇산업 결과물을



▲ 인천로봇랜드

전시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같이 조성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어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의 추진이 필요한 상태이다.

최근 사업자 선정 후 13년 간 표류하던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주거용지와 테마파크 용지 비율을 축소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았다. 인천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G 등 첨단

신기술을 접목한 국내 최대 '로봇산업 클러스터'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3년 만이다.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에 따라 2021년까지 로봇랜드 마스터 플랜 용역, 기반시설·공익시설 설계 용역을 거친 뒤 2022년 착공,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답사활동

01 답사 지역을 대표할 관광지나 랜드마크의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고(그리고), 이곳을 방문할 친구에게 소개하는 형식으로 홍보글을 적어보자.

사진, 그림	홍보글
사진, 그림	홍보글
사진, 그림	홍보글

02 답사하면서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답사 노트에 정리해 보자.

학생 활동	답사 노트
① 사람이 살아 가는데 있어 꼭 필요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없으면 하는 시설들은 무엇이 있을까?	
② 사람이 살아 가는데 있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해서 양보하기 어려운 시설들은 무엇이 있을까?	
③ 공존의 의미란 무엇일까?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단원

- 중학교 사회 : 1-6.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 중학교 사회 : 2-10.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 중학교 과학 : 1-7. 과학과 나의 미래활동목표

■ 활동목표

-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알고,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 일상생활 속 다양한 환경 이슈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과학과 기술 발달이 미래의 직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설명할 수 있다.

■ 학습활동

- 활동1 : 에너지 자립 마을 만들기
 - 내가 사는 지역에서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례 조사하기
 -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모둠별로 조사하기
 -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토론하기
- 활동2 :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무엇일까?
 - 우리집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여 기록하기
 -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생활 속 실천 서약서 작성하기
- 활동3 : 과학 기술 발달에 따른 직업의 변화 예측하기
 - 첨단 과학 기술과 관련하여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의 특징 토의하기
 -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예측하여 이 직업을 소개하는 자료 만들기

생각해 볼 거리

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현상은 본인의 거주지역 내에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집단 움직임을 말한다. 반면 핼피(PIMFY : 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은 수익성이 있는 시설이나 사업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현상을 말한다. 이 둘은 대립되는 현상 같지만 모두 지역이기주의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넘비현상의 대표적인 예로는 쓰레기 소각장, 방사능 폐기장, 납골당, 송전탑 등의 건립반대가 있고, 핼피 현상의 예로는 공항, 대형쇼핑몰, 문화시설 등의 유치가 있다. 최근 특정한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지역경제의 손실이 예상되는 시설이라면 기피시설, 혐오시설로 정의하는 넘비 현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와 이웃이 함께 웃으며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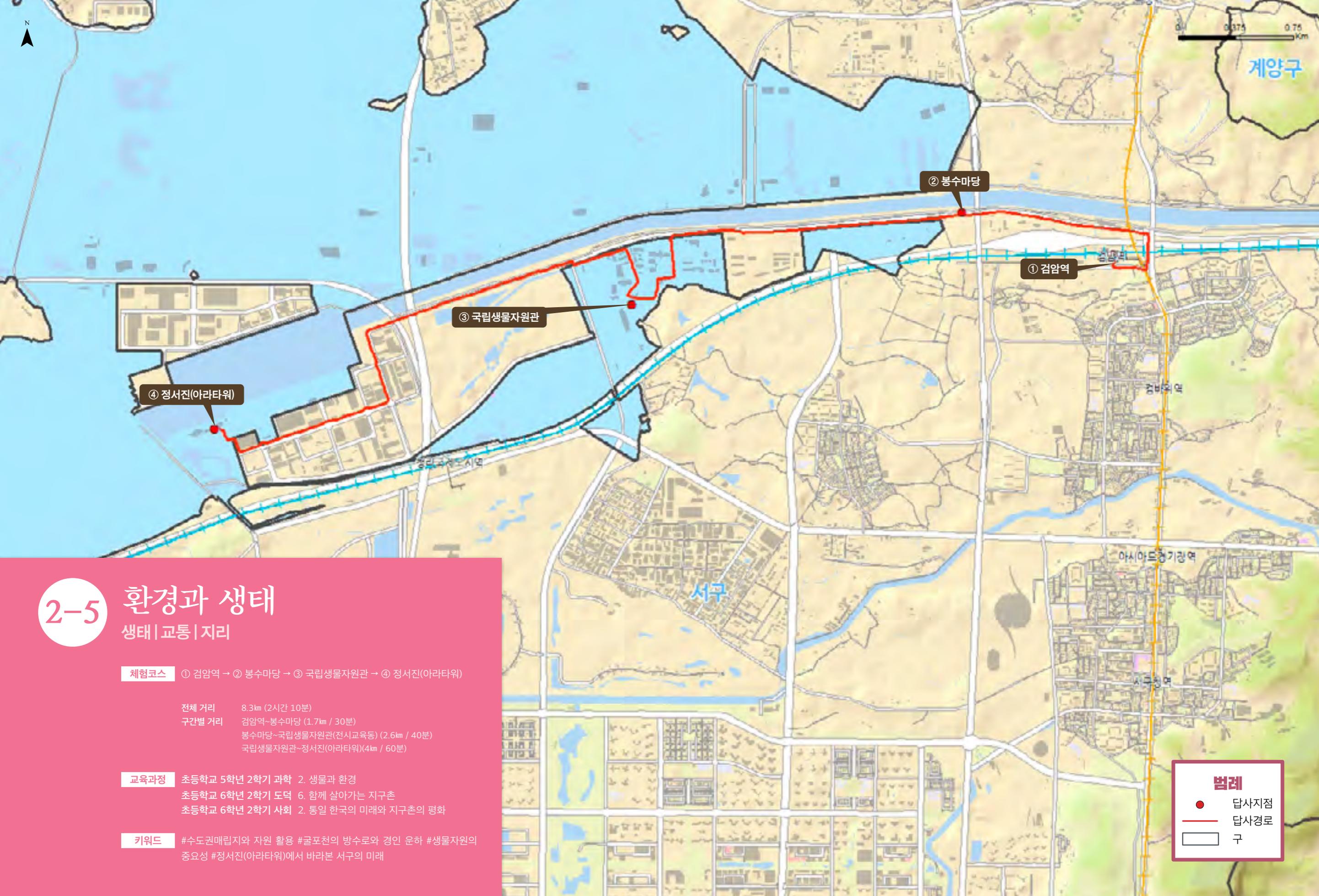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8, 인천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10, 인천상식문답, 인천광역시
- 조우성, 2004, 인천이야기 100장면, 다인아트

인터넷 자료

-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https://enews.incheon.go.kr/>
- 굿모닝 인천, <https://www.incheon.go.kr/goodmorning/>
- OhmyNews, <http://www.ohmynews.com/>
- 문화재청 국가문사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2-5 환경과 생태

생태 | 교통 | 지리

체험코스 ① 검암역 → ② 봉수마당 → ③ 국립생물자원관 → ④ 정서진(아라타워)

전체 거리 8.3km (2시간 10분)
구간별 거리
검암역~봉수마당 (1.7km / 30분)
봉수마당~국립생물자원관(전시교육동) (2.6km / 40분)
국립생물자원관~정서진(아라타워)(4km / 60분)

교육과정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과학 2. 생물과 환경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도덕 6.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2.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키워드 #수도권매립지와 자원 활용 #굴포천의 방수로와 경인 운하 #생물자원의 중요성 #정서진(아라타워)에서 바라본 서구의 미래

범례

- 답사지점
- 답사경로
- 구

2-5

환경과 생태

- 수도권매립지의 조성 배경과 문제점
- 굴포천의 침수에 따른 경인운하 건설
- 아라뱃길의 역사 및 관광자원(봉수마당과 정서진)



경인 아라뱃길을 따라 떠나보는 물길 이야기 - 환경과 생태

고려와 조선의 꿈이 드디어 실현되다! - 경인 아라뱃길

한양에서 서해로 이어지는 뱃길을 열고자 했던 것은 800여년 전인 고려 고종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정적인 조운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최충헌의 아들 최이가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연결하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운하를 시도하였으나 인천시 서구 가좌동 부근 해안에서 원통현(일명 원통이 고개) 400m 구간의 암석층을 뚫지 못해 실패로 끝났다. 이후로도 간헐적으로 운하 건설이 추진되었다가 2012년 경인아라뱃길이 드디어 개통되었다. 경인 아라뱃길은 단순한 치수기능을 넘어 다목적기능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인천과 서울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어주는 소통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아라뱃길 끝자락 정서진 북쪽에 위치해 있는 서구수도권매립지는 서울,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의 쓰레기가 모이는 곳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매립지이다. 폐기물의 자원화를 꾀하고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에 관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굴포천의 침수에 따른 경인운하 건설과 지자체 님비현상의 중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조성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 이해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만남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세계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정확히는 서구 오류동·왕길동·백석동·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걸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다. 규모면에서는 세계 최대이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관리하던 난지도의 대체지인 이 곳 수도권매립지는 원래 정부가 농지조성을 위해 매립했던 '김포지구 간척지' 일부를 이용하여 조성한 것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인구 급증으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히 많아지고, 각종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면서 쓰레기 포화상태에 도달한 난지도가 더 이상 매립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 곳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하게 된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는 총 4개의 매립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규모면에서 시설지구를 제외한 부지 면적은 1483만㎡이며, 매립 면적도 596만㎡에 이른다. 현재 서울 25개 구, 인천(옹진군 섬지역 제외) 9개 구·군, 경기도 30개 시·군의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으며 수용되는 쓰레기의 출처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48%, 경기도가 33%, 인천광역시가 19%를 차지하고 있어, 반입되는 폐기물의 절반 가량이 서울에서 배출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출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 드림파크(Dream Park)

수도권 매립지는 초기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의 혐오시설로 불렸었다. 하지만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자연을 복원하여 환경 테마 공원 '드림파크'로 조성하는 친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은 지역주민들과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환경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골프장, 스포츠센터, 다양한 생태공원으로 구성된 녹색바이오단지 등이 조성되어 있는데, 특히 매립시 발생하는 가스를 발전연료로 사용하거나 음폐수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온실 난방에 활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선도해 가고 있다.

1992년부터 2000년까지 6,500만톤 폐기물을 매립한 제1매립장은 사용 종료되어 사후관리와 지역주민들을 위해 드림파크¹가 조성되어 있으며 제2매립장도 2018년도에 매립 종료되어, 현재는 제3매립장(1단계)에서 쓰레기 매립이 진행 중이다. 당초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기한은 2016년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분리수거, 쓰레기 재활용의 생활화,



▲ 드림파크 골프장

중량제 시행, 소각 처리 증가 등으로 쓰레기양이 감소하면서 매립 공간에 여유가 생기며 매립기한 연장 추진에 대한 수도권 각 지자체 사이의 갈등과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었다. 서울·인천·경기 3개 지자체는 결국 제3매립장(1단계부지) 매립완료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하여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되었으나, 매립지 인근 신도시 주민들의 심한 반발과 각 지자체들의 대체 매립지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앞으로의 지역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두 번째 만남

경인아라뱃길
서해 바닷길을 열다!

아라뱃길의 '아라'는 우리 민요 '아리랑'의 후렴구 '아라리오'에서 따온 말이자 바다를 뜻하는 옛말이다. 서울시, 김포시, 인천시에 걸쳐 흘러가는 경인아라뱃길은 한강 하류의 행주대교에서부터 시작해 인천시 서구 오류동에 이르는 길이 18km에 이르는 국내 최초의 내륙운하이다. 경인 운하는 당초 굴포천 유역 홍수예방을 위한 방수로 사업으로부터 출발했다. 굴포천은 한강 하류쪽에 위치한 하천으로 인천가족공원 내 칠성약수터에서 발원하여 계양구의 도심지와 산업단지 및 부천시를 거쳐 김포시에 이르는 하천이다. 굴포천 유역의 약 40%는 한강 홍수위보다 낮은 해발 10m이하의 저지대로 홍수시 한강수위가 굴포천 수위보다 높아져 자연배수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더욱이 기상이변이 잦고 굴포천 중·상류 지역인 부평구와 계양구, 부천시 일대의 도시화에 따른 홍수유출 시간 증가 등으로 이 곳은 상습적인 홍수 피해지역이 되었는데, 1987년 경인지역 집중호우 시 16명의 사망자와 5,427명의 이재민이 발생이 발생하고 농경지 등 37.67㎢ 면적이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1992년에 홍수시 굴포천 유역의 물을 서해로 배제시키는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논란을 거듭한 끝에 결국 경인 운하 사업으로 바뀌게 되었고, 굴포천 방수로의 길이 14.2km를 한강 쪽으로 3.8km를 추가로 연결하면서 국내 최초 운하인 경인 운하, 지금의 아라뱃길을 건설하게 되었다.



● 경인아라뱃길 개념도(출처: 경인아라뱃길 홈페이지)



▲ 교량 현황(출처: 경인아라뱃길 홈페이지)



▲ 원형전망대인 아라마루 전경

경인 아라뱃길은 크게 인천터미널, 방수로를 겸한 주운수로, 김포터미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아라뱃길 주운수로에는 평균 1km 간격으로 횡단교량이 설치되어있으며, 야간조명을 더해 경관성을 높였다. 아라뱃길을 따라 가다 보면 다양한 친수 공간들을 만날 수 있는데, 가족끼리 나들이하기 좋은 시천공원, 계양산 협곡의 지형을 이용한 거대한 인공폭포인 아라폭포, 바닥이 유리로 된 원형전망대인 아라마루, 한국전통의 멋을 즐길 수 있는 수향원, 생태습지를 조성해 다양한 수변식생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체험할 수 있는 두리생태공원 등이 있으며 이 곳에서 다양한 체험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아라뱃길을 따라 운행하는 유람선을 타거나 잘 조성된 자전거길을 따라 여행해 보는 것도 좋은 탐방 코스이다.

경인아라뱃길은 서울 강서구, 경기 김포시, 인천 서구 오류동에 걸쳐 흘러가면서 인근 지역의 홍수량을 조절하는 치수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한강까지 뱃길을 열어 내륙도심지까지 선박을 이용한 화물운송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수변을 따라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 관광, 레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창조하는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세 번째 만남

봉수마당

조상들의 원거리 통신 수단



▲ 봉수마당 전경



▶ 봉수대 햇불 갯수에 따른 상황 안내판

아라뱃길 서쪽 끝에서 동쪽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백석대교에 이르기 전 봉수마당을 만날 수 있다. 봉수란 고려·조선 시대에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를 올려 변방 지역에서 발생하는 병란이나 사변을 중앙에 알리던 통신 제도이다. 봉수는 주로 산정(山頂)에 설치되었는데, 신호가 전달하는 내용은 봉수대의 굴뚝에서 올리는 연기나 불꽃의 수에 따라 달랐다. 봉수대에서 만들어진 신호는 인근의 봉수대에 차례대로 전달되어 한양(현재의 서울)까지 전달되었는데, 부산의 다대포에 왜적이 나타났을 때 한양까지 정보를 알리는 데에 약 12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부산에서 한양까지의 거리는 약 450km이고, 봉수대는 약 12km마다 있었으므로 38개 정도의 봉수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 봉수대에서 신호를 연결하는 데 약 20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봉수는 우리나라에서 약 120년 전까지 사용하였던 것으로 과학적으로도 잘 갖추어진 통신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경인아라뱃길에 조성된 봉수마당은 경관성 향상을 위해 옛 봉수대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다. 과거 통신 수단에 대해 알아보면서 봉수 마당 주변에 조성된 공간을 활용하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네 번째 만남

국립생물자원관

생물 자원의 미래가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자리잡고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생물주권을 구현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의 국가기관이다. 일반인과 연구자들을 위해 소장 표본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볼 수 있도록 원핵생물, 원생 및 진균계 코너, 식물류 코너, 동물류 코너, 대형 포유류 코너 등을 설치해 놓았으며, 한국 고유 생물 및 자생 생물 표본 985종, 4만 6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물자원에 대한 권리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 국립생물자원관



▲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 내부

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생물자원에 대한 협약을 담은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2010)에 따르면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땅에는 현재 10만 여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 각 나라에서 생물자원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요즘 시대에 생물이야말로 미래 가치를 지닌 소중한 자원이라 하겠다. 이에 생물다양성의 전략적 보존과 생물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다섯 번째 만남

정서진(아라타워)

서울 경복궁에서 서쪽 끝은 어디일까?

정서진에서는 해마다 12월 31일이 되면 한 해의 마지막 해를 넘기는 해넘이 축제가 펼쳐진다. 정서진(正西津)은 강원도 강릉에 있는 정동진(正東津)의 대칭 개념으로 서울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서쪽에 있는 나루터를 의미한다. 정동진의 일출이 희망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면 정서진의 일몰은 낭만과 그리움, 회상을 의미한다. 정서쪽은 서울 광화문 도로원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쪽으로 34.526km

지점에 해당하며 이는 거침도 일원(인천 서구 오류동)으로 확인되나, 낙조 관광지 조성을 위해 아라뱃섬 일대에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정서진 해넘이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지는 창의적이고 예술성 있는 조형물 등은 정서진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아라뱃길 유람선을 탈 수 있는 아라인천여객터미널 옆으로 아라타워 전망대가 자리잡고 있다. 전망대 오르기 전 1층 경



▲ 정서진 아라타워 전경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단원

-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과학 : 2. 생물과 환경
-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도덕 : 6.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 2.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 활동목표

- 지역 관광 명소의 홍보를 위한 나만의 조형물을 표현할 수 있다.
- 지역의 이익을 위해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문제 해결 방안을 말할 수 있다.

■ 학습활동

- 활동1 : 정서진(아라타워)에 세우고 싶은 상징 조형물 그려보기
 - 정서진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의 의미와 특징 살피기
 - 아름다운 일몰 명소에 어울리는 상징 조형물 구상하기
 - 구상한 상징 조형물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의미 적어보기
- 활동2 : 우리 고장에 쓰레기 매립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토론하기
 - 쓰레기매립지 설치에 대한 지자체 간의 갈등에 관한 기사 자료 수집하기
 - 쓰레기매립지 설치가 지역사회에 주는 장점과 단점 알아보기
 - 자신의 의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찬반 토론하기

생각해 볼 거리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서울시가 7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인천 속 서울 땅'이라 불리며 수도권 각 지자체 간 다툼현상을 만들며 매립지 사용 연장에 대한 갈등이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쓰레기는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는 새로운 매립지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오는 2044년까지 남아있는 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해 왔었다. 소유권이 없는 인천은 우여곡절 끝에 10년 연장(3-1공구 103m)에 합의하면서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과 운영권을 넘겨받으며 실리를 챙겼다. 하지만 매립지 인근 생활권의 신도시(청라국제도시, 한강신도시 등)주민들의 반발과 향후 서울과 경기도가 대체 매립장을 마련하지 않고 계속 사용을 요구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견학은 동영상과 전시물 관람,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시설물 견학 등으로 이뤄져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견학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사 전에는 이 점을 꼭 고려해야 하겠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터사랑, 2005, 인천땅 '이만큼 알기', 다인아트
- 지리교과연구회, 1995, 인천사랑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인천시교육청
- 이하람, 2014, 두근두근 인천산책, 알에이치코리아
- 인천지리의 재조명, 2014, 인천역사자료관
- 김종해, 2012. 경인아라뱃길사업의 발자취와 미래(45권 4호), 한국수자원학회지
- 황재충 외, 2013, 경인아라뱃길의 역할:굴포천 유역의 홍수조절(46권 8호), 한국수자원학회지

인터넷 자료

- 인천시 서구청 http://www.seo.incheon.kr/open_content/main/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https://www.slc.or.kr/main.do>
- 국립생물자원관 <https://www.nibr.go.kr/>
- 경인아라뱃길 <https://www.kwater.or.kr/giwaterway/ara.do>
- 인천서구 문화관광 http://www.seo.incheon.kr/open_content/tour/

PART 03

남동구·연수구

3-1 인천의 과거와 눈부신 미래

3-2 인천의 포구와 산업발달

3-3 인천의 염전과 생태

3-4 평화와 교류의 중심지, 인천

3-5 인천의 오늘, 그리고 미래

3-6 저어새 구하기



3-1 인천의 과거와 눈부신 미래

역사 | 지리 | 도시

- 체험코스** ① 문학경기장 → ② 인천도호부관아 → ③ 인천항교 → ④ 문학산 → ⑤ 연경산 → ⑥ 청량산 → ⑦ 인천시립박물관 → ⑧ 인천상륙작전기념관
- 전체 거리 7.6km(3시간 17분)
구간별 거리 문학경기장역(2번출구)~인천도호부관아 (1.5km / 25분)
인천도호부관아~인천항교 (100m / 2분)
인천항교~문학정보고~문학산정상 (1.8km / 60분)
문학산~삼호현~연경산 (700m, 300m / 15분, 10분)
연경산~청학풀장~호불사~청량산표지석(580m, 1.7km / 500m / 10분, 30분, 30분)
청량산~인천시립박물관 (250m / 10분)
인천시립박물관~인천상륙작전기념관 (150m / 5분)
- 교육과정** 중학교 3학년 사회 8. 사람이 만든 삶터, 도시
- 키워드** #원래의 인천 #교통로의 발달과 도시의 확대 #인천의 중심지

범례

- 답사지점
- 답사경로
- 구

3-1

인천의 과거와 눈부신 미래

- 문학산의 지리적 이점
- 문학산 일대가 인천의 중심지였던 이유



2 0 0 0 년 의 역 사 를 품 고 미 래 로

개항 이전까지 인천의 중심은 원인천이라고 불렀던 문학동, 관교동, 연수동 일대라고 볼 수 있다. 소래산과 문학산 사이의 넓은 공터는 인천 곳곳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편리한 교통을 이점으로 갖고 있었으며, 특히 바다로 나가는 나루터가 가까이 에 위치하여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유리한 곳이었다. 아마 고구려에서 온조와 함께 내려왔던 비류도 그러한 장점을 보고 이곳에 터를 잡고자 했을 것이다.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인천을 다스리는 행정기관은 계속 이 일대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교육과 문화를 선도하는 위치에서 인천의 중심지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지금은 관광지로 유명한 인천의 다른 지역에 비해 그 문화적 콘텐츠가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는다. 과거 인천의 행정적 중심지였던 시절과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러나 이 일대의 효용성은 장장 2000년에 달하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비류가 나라를 세울 때처럼 지금도 고속도로와 인천 시내를 연결하는 위치에서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고 있다. 또 주택가와 생활시설, 학교 등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으며, 인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교통권이나 생활권의 측면에서 여전히 도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특히 최근 송도국제도시의 두드러지는 성장은 역사적 맥락에서 원인천 일대를 한층 부각시켜주고 있다. 그 옛날 백제 사신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삼호현이 있었던 것처럼, 송도국제도시로 가는 길목에 문학산 자락의 미추홀대로, 경원대로가 위치하고 있다. 문학산 봉우리를 따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고속도로와 연결되어있는 관교동 일대의 생활권과 송도국제도시의 경관이 한 눈에 들어와 지리적 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일대를 돌아보며, 도시 발전에 있어서 교통로의 중요성과 원인천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탐구해보기로 하자.

첫 번째 만남

문학경기장 꿈☆은 이루어 진다

2002년 여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하며 국민들을 한껏 열광하게 만들었다. 문학경기장은 이때의 여운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장소 중 한 곳이다. 그라운드를 내려다 보면 박지성의 왼발 발리 슈팅이 강호 포르투갈의 골망을 흔들던 그 장면이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눈에 선하다. 온국민이 하나가 되어 응원하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함께 열싸안고 기쁨을 나누던 그 감동의 순간이 장소가 매개가 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문학경기장은 처음부터 월드컵을 목적으로 만든 곳은 아니었다. 1990년 설계 당시에는 전국체전을 위한 종합경기장으로 계획되었으며, 이는 당시 노후했던 송의동 공설운동장을 대체하기 위함이었다. 1994년 착공하여 진행되던 것이 1996년에 월드컵 개최가 결정되며 월드컵에 대비해 설계가 변경되었고 2002년 2월 25일에 준공을 마치게 된다. 이후 개장과 함께 2002년의 신화를 만들며 인천의 스포츠 성지로 등극한 문학경기장은 인천을 연고로 한 프로 구단들의 공식 구장이 되었다. 송의아레나구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축구팀인 인천유나이티드가 홈 구장으로 사용하였으며, 프로야구단인 SK와이번즈에 이어 인천SSG랜더스필드가 지금까지 문학경기장과 함께 야구사에 굵은 족적을 남겨오고 있다.



▲ 문학경기장

또한 문학경기장은 프로 스포츠 경기 외에도 인천 시민들을 위해 각종 편의 시설을 제공해주고 있다. 상시 개방해두고 있는 보조 경기장, 풋살 경기장 등이 있으며, 인천의 스포츠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유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과거에도 월드컵의 함성을 울리며 인천지역 스포츠 발전의 포문을 열었던 문학경기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감동의 순간을 함께 할 인천의 귀중한 자산임이 틀림없다.

의 순간을 함께 할 인천의 귀중한 자산임이 틀림없다.

두 번째 만남

인천도호부관아

라떼는 말이야!
인천시청이
여기에 있었어!

도호부는 시대에 따라 역할을 달리 한 지방행정기구이다. 고려시대에는 처음 중국에서 만들어졌을 때의 기능과 같이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하던 행정기구였으나, 점차 지방통치조직을 일원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일반행정기구로 변화한 것이다. 조선 태종은 인구가 1000호 이



▲ 복원된 인천도호부관아의 전경



▲ 문학초등학교 교정에 남아있는 인천도호부관아 건물

상인 군에 도호부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8도-부-목-군-현 중 목과 군 사이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세종 대에는 전국에 38개의 도호부가 설치되었으며, 경국대전에서는 총 44개가 확인이 된다. 한편, 미추홀, 매소홀, 소성, 경원부, 인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던 인천이 도호부의 지위를 획득한 것은 조선 세조 때였다. 이에 따라서 설치되었을 인천도호부관아는 그 건축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강희 16년'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를 보았을 때 조선 숙종 때 중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즉 그 이전에 이미 건축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본래 쓰이던 관청은 문학초등학교 부지 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건물도 2채밖에 되지 않아 당초 건물들의 배치 형태를 알 수 없게 되었다. 문학경기장 건너편에 있는 인천도호부관아는 2001년에 사료를 바탕으로 재현한 것이며, 도호부 관련 행사들을 진행하거나,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에게 옛 인천도호부관아의 모습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천 도호부 관아가 위치한 문학동, 관교동 일대는 원인천이라 불리며 오랜 세월 동안 인천의 중심지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비록 개항 이후에는 제물포지역(중구)으로 중심이 이동했지만, 인천광역시청이 구월동에 있는 것처럼 관청은 여전히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인천의 역사를 비추고 있다.

세 번 째 만 남

인천향교

인천향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교육의 정신

향교는 고려시대부터 연원을 찾을 수 있는 지방의 교육기관이다.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 교육, 지방민 교화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조선 중기 이후에는 서원에게 그 위상을 내주고 쇠퇴한 관학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유교 사회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백성에 대한 교육과 교화를 이루고자 설치된 향교가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중요한 지역에는 빼놓지 않고 향교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며, 향교를 통해 국가의 통치 이념을 전하고 실천했던 것이다.

인천에는 인천향교, 부평향교, 강화향교, 교동향교까지 총 네 개의 향교



▲ 인천향교 모습

가 설치되어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인천향교의 창건 연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세조 때부터 중수 기록이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유서 깊은 향교임에는 틀림이 없다. 병자호란 때에는 소실되기도 하고, 일제강점기 때에는 부천향교(부평향교)로 통합이 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은 곳이기도 했다. 현재의 인천향교는 해방 이후 복원된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남아 있는 것이며, 전면에는 강학 공간을, 후면에는 배향 공간을 배치한 전학후묘 형식이다가 일반적인 향교 건물은 모두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향교의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인천향교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 예절, 인문 고전, 서예 등 다양한 콘텐츠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학 사업을 진행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인천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인천향교는 단순히 향교의 역사를 알리는 것을 넘어서, 과거에 향교가 사회에서 담당했던 역할 그 자체를 재현하고자 한다. 인성 교육과 기본적인 예절에 대해 고민이 많아지는 요즘, 온고지신이라는 사자 성어를 떠올리게 하는 인천향교의 실천들은 현대 사회에서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네 번 째 만 남

문학산
인천의 지붕

문학산은 흔히 인천 역사의 발상지라고 일컬어진다. 이는 옛 문헌에서 고구려에서 온조와 함께 온 비류가 나라를 세운 곳이라 이야기하는 것에서 비롯하고 있다. 남산, 학산, 배꼽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이곳은 예로부터 인천을 대표하는 산으로 여겨졌다.

선학동부터 옥련동까지 길게 늘어져 있는 문학산 주변으로 과거 인천의 모습을 전하는 유적들인 문학산성, 인천도호부 관아, 인천향교 등이 산재해있다. 또 문학산 정상에 위치한 문학산 역사관에서 문학산에서 출토된 갖가지 유적들이나, 문학산에 얽힌 이야기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문학산 전망대에서는 인천 전역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으며, 문학산이 인천으로 드나드는 물길과 주변 지형을 살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다. 특히 뒤로는 구시가지의 생활



▲ 문학산에서 바라본 인천 전경

권, 앞으로는 송도국제도시가 보이며 두 공간을 연결하는 도로까지 살펴본다면, 마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느껴지기도 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문학산성의 경우 완전히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전의 형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상세한 기록을 통해 그 존재가 드러나는 봉수대나 비류정과 같은 구조물들이 지금은 허물어져 찾아볼 수 없다는 것들이 있다. 문학사 터나 학산서원 터, 안관당 터 등 지금은 건물이 있었던 흔적만 전하는 곳도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문화재 복원과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문학산은 불과 얼마 전까지 군사지역으로 민간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험하지 않은 등산 코스와 정상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등산객들이 활발하게 찾는 등산 명소 중 하나이다. 그러한 재미와 보람을 내 고장의 문화 유적에 대한 관심과 탐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면 문화재 복원과 보존 사업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만남

연경산-청량산
가볍게 걸으면서 느끼는
인천의 역사와 풍경

문학산 능선을 따라 걷다 보면 삼호현이라는 곳이 나온다. 사모지 고개 또는 사모재 고개라고도 불린다. 이곳은 문학산 기슭을 넘어 바다로 갈 때 지나던 곳으로 백제시대부터 중국을 오가는 사신들이 넘나들던 곳이며 능허대의 한나루로 통하게 된다. 삼호현이라는 이름은 사신들이 배웅을 나온 가족들에게 큰 소리로 세 번 작별인사를 하는 곳이라 했던 것에서 유래한다. 삼호현을 지나 길을 따라 올라가면 연경산이 나온다. 정상에는 연경정이라는 정자가 있어 등산객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가기 좋다. 마지막에는 문학산의 끝자락인 노적봉이 나오며, 서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장엄한 풍경을 자랑한다.

한편 연경산을 내려가 조금 더 걸어가면 청량산으로 진입할 수 있다. 연수구의 가운데에 우뚝 서서 송도 앞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청량산은 산세가 아름답고 좋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청량산에 대해 ‘깨끗하다’, ‘빼어나다’라는 평을 내리는 것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송도 금강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청량산이라는 산 이름을 처음 지은 사람은 고려 공민왕 시대의 나옹이라는



▲ 연수둘레길 코스



▲ 청량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인천



▲ 삼호현 모습

여섯 번째 만남

인천시립박물관
인천 지역사의 산실

인천시립박물관은 1946년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 박물관이다. 인천을 대표하는 박물관답게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인천지역의 향토사 및 문화유산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그만큼 전시물의 수준이 보장되어있는 곳이다.

지하까지 총 4개 층으로 시설이 이루어져 있으며, 상설전시와 특별전시, 온라인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설전시관은 먼저 역사1실과 역사2실이 있다. 역사1실은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역사를 전하고 있으며, 문학산 일대와 계양산 일대의 출토물들이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당시 문화 중심지의 위치가 이 일대였음을 짐작하게끔 한다. 역사2실은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걸친 자료와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생활과 문화, 개항기에 전해진 문물,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수탈과 도시 개발의 흔적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서화실에서는 조선시대 이후의 회화와 서예 작품들을 전시



▲ 인천시립박물관 건물

하고 있고, 공예실에서는 우리나라 도자기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그 외에 기증실과 야외전시장에서도 다채로운 유물을 찾아볼 수 있다. 특별전시관에서는 항상 특색있는 테마를 바탕으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람객들로 하여금 쉽게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또한 온라인 전시를 활성화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 외에도 인천시립박물관에서는 시민과 함께 문화를 즐기기 위해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역사의 문턱을 낮추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만큼, 인천시립박물관은 오랜 세월 동안 인천 시민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일 곱 번 째 만 남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인천의 중심에서 만나보는 자유와 애국의 가치

해방의 기쁨을 다 누리기도 전에 벌어진 우리 민족의 비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피로 쟁취해 낸 자유의 가치와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국가를 선택했던 이들의 용기와 희생, 이러한 감상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지금의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때문에 지금의 발전 이면에 있었던 많은 이들의 눈물을 기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역시 그러한 노력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전시관은 제1전시관, 제2전시관, 야외전시관이 있다. 제1전시관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의 구상부터 계획 과정, 각 군이 맡은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 제2전시관에서는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상황과 서울 수복까지의 전개 과정, 작전의 주역이었던 맥아더장군, 전쟁 당시 쓰였던 유물들의 전시가 골자를 이루고 있다. 야외전시장에서는 실내에서 담을 수 없는 전쟁에서 활용했던 탱크나 전투기와 같은 무기들을 전시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국군의 열세를 단번으로 극복한 인천상륙작전은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염원과 희생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6.25 전쟁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이 사건에 담긴 국토수호와 애국의 정신을 전하고자 한다.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건물

답사활동

01 제시된 지도에 오늘 들른 답사 장소를 체크하고, 주변 도로들을 색칠해 보자.



02 위 지도에 색칠한 도로의 정보를 조사해 보자.

도로 이름	어느 지역을 잇는 도로인가?	도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만한 장소는 무엇이 있는가? (관공서, 학교, 병원, 교통시설, 주거지역 등)
1. 제2경인고속도로		
2. 매소홀로		
3. 경원대로		
4. 미추홀대로		
5. 비류대로		
6. 독배로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단원

- 중학교 3학년 사회 : 8단원. 사람이 만든 삶터, 도시

■ 활동목표

- 문학산 정상에서 인천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한 눈에 돌아보며 도심의 의미와 도시의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 문학산 일대 답사를 통해 다른 도시와 분명히 구분되는 이 지역만의 색다른 매력과 특색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원인천 지역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학습활동

- 활동1 : 지도 만들기
 - 문학산을 답사하며 찍은 인천 도심 및 도로 사진을 정리하기
 - 답사 장소와 관련된 자료 조사 및 정리하기
 - 실제 지도를 바탕으로 문학산 일대의 지도를 그리고 사진 붙이기
 - 답사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하여 포스트잇에 작성하여 붙이기
 - 지도를 전시하여 친구들이 만든 지도와 비교해보고 피드백 주고받기
- 활동2 : 박물관 탐방 보고서 작성
 - 인천시립박물관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다녀온 소감 정리하기
 - 기억에 남는 유물이나 전시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기
 - 종합하여 보고서 작성 후 발표하기

생각해 볼 거리

문학산 일대 지역을 원인천, 인천의 중심지라고는 하지만, 개항장이나 강화도 등 인천의 유명 답사지와 비교한다면 이렇다 할 뚜렷한 역사적 특색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이 지역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큰 획을 긋는 사건이나, 유적지 등이 없는 것에서 기인할 것이다. 그러나 문학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이 일대가 왜 오랫동안 인천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문학산을 둘러싼 복잡한 도로망, 구(舊) 시가지와 신(新) 시가지가 전부 보이는 풍경은 굽직한 서사와는 무관하게, 역사를 굴러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지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이처럼 문학산 일대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인간의 삶과 자연 환경의 연관성에 대해 강조하며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힘든 산행길에도 지치지 않는 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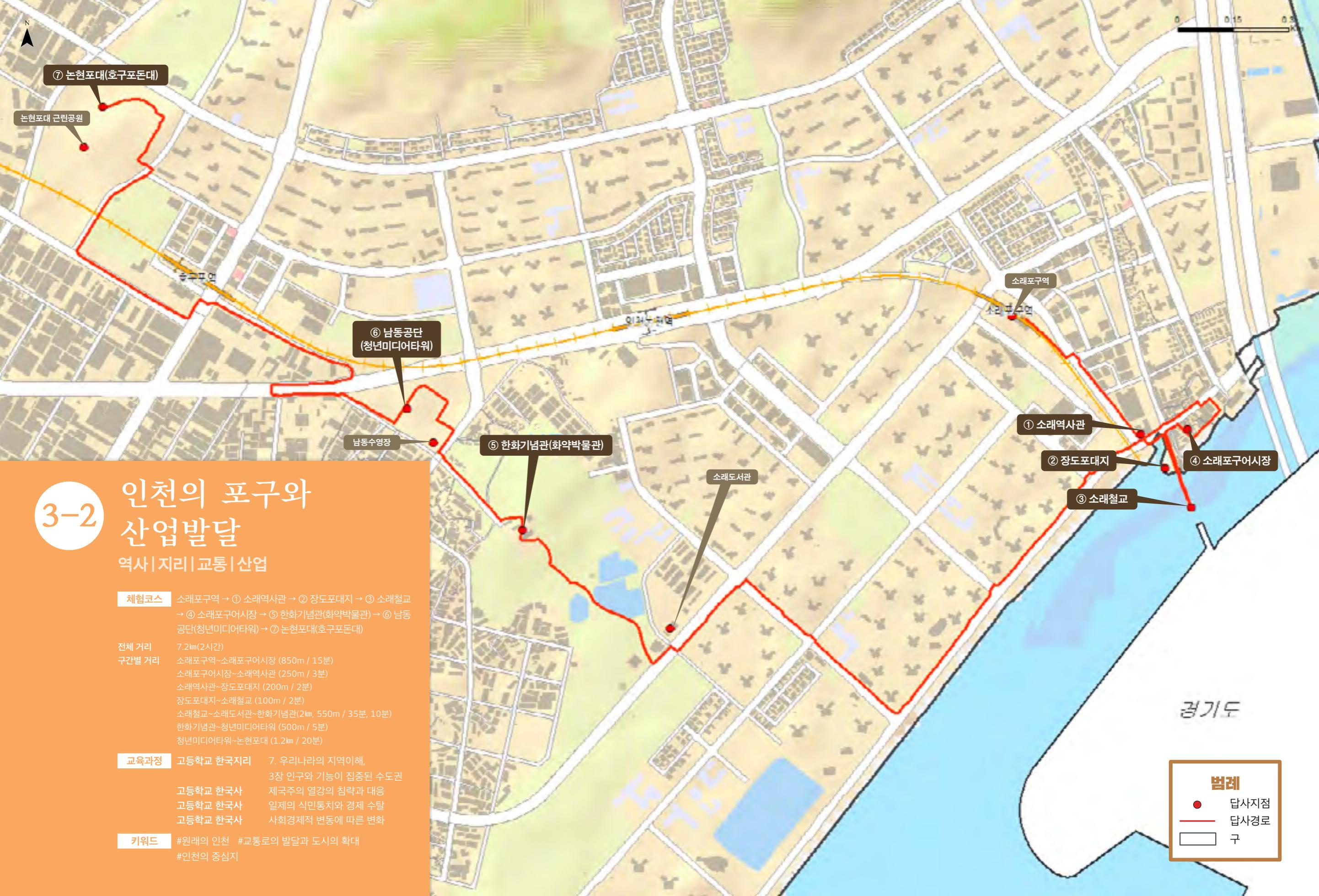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유광식. (2015). 인천을 걷다 : 부쩍 커버린 시계, 문학산. 플랫폼, (), 78-84.
- 이찬우. (2018). 인천지역 도로망 변천 연구. 인천학연구, 29(), 79-109.

인터넷 자료

- 인천문학경기장 www.munhakstadium.com/
- 디지털미추홀구문화대전 www.michuhol.grandculture.net/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www.encykorea.aks.ac.kr/
-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 인천시립박물관 <https://www.incheon.go.kr/museum/index>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http://www.landing915.com/>



3-2 인천의 포구와 산업발달

역사 | 지리 | 교통 | 산업

체험코스 소래포구역 → ① 소래역사관 → ② 장도포대지 → ③ 소래철교 → ④ 소래포구어시장 → ⑤ 한화기념관(화약박물관) → ⑥ 남동공단(청년미디어타워) → ⑦ 논현포대(호구포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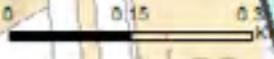
전체 거리 7.2km(2시간)
구간별 거리 소래포구역~소래포구어시장 (850m / 15분)
 소래포구어시장~소래역사관 (250m / 3분)
 소래역사관~장도포대지 (200m / 2분)
 장도포대지~소래철교 (100m / 2분)
 소래철교~소래도서관~한화기념관(2km, 550m / 35분, 10분)
 한화기념관~청년미디어타워 (500m / 5분)
 청년미디어타워~논현포대 (1.2km / 20분)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7. 우리나라의 지역이해, 3장 인구의 기능이 집중된 수도권
 고등학교 한국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대응
 고등학교 한국사 일제의 식민통치와 경제 수탈
 고등학교 한국사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변화

키워드 #원래의 인천 #교통로의 발달과 도시의 확대
 #인천의 중심지

범례

- 답사지점
- 답사경로
- 구



3-2

인천의 포구와 산업발달

- 수도권 어시장 명소, 소래포구
- 수인선의 살아있는 역사, 소래철교
- 수도권 최대 공업단지, 인천남동공단



수도권 1천만 명의 시민들이 찾는 명소 - 인천 소래포구

꼬마 협궤열차의 수인선 철도의 추억이 물씬 묻어나는 곳!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역과 소래포구어시장이 위치한 이곳은 과거 인천의 어촌 풍경이 물씬 묻어나는 곳이었다. 지금은 염전이 있던 자리에 거대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영동고속도로와 수인선 전철 등이 지나고, 인근 남동공업단지가 입지하면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과거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다만, 소래포구 일대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소래철교만이 과거의 흔적을 기억한 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을 따름이다. 한편 이곳 소래포구 일대는 갯벌이 발달한 곳으로 과거 근대화 이전에 많은 염전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 염전 자리에 한국화약산업을 이끌었던 한국화약(한화그룹의 모기업)공장이 입지(2006년 지방이전)하였으며, 1990년대들어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수도권에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입지함으로써 공업 또한 급성장하였다. 현재 소래포구일대는 어시장이 위치하여 사계절 꽃게와 새우를 비롯한 다양하고 신선한 어패류를 즐기려는 수도권 약 1천만 명의 시민이 찾는 명소로서 인기가 많은 곳이다. 소래포구일대가 지니는 역사적, 지리적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곳을 전국에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 번째 만남

소래역사관

수인선 철로와 소래포구의 역사 박물관

소래포구역 부근에 위치한 소래역사관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소래일대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남동구청에서 2012년 6월 29일 개관한 건축물이다. 소래어촌의 생활풍습과 어구(漁具) 등 어촌의 전통과 생활사를 비롯하여 소래포구의 형성과정과 소래염전의 소금 생산과정, 수인선(水仁線) 철로의 건설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관련 자료들과 1995년까지 수인선 운행에 이용되었던 협궤 열차를 야외에 전시하여 소래포구 일대의 지역성을 한눈에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2층 전시실에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1970~80년대

의 소래역 대합실과 수인선 열차 내부를 재현해 놓아 당시 사람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며, 당시 기차 승차권, 개표기, 근무명령서, 월급봉투 등의 소장품도 전시하여 수인선 기차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감상할 수 있다. 1층에는 소래포구의 어시장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해 과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며,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실제 소금을 체험할 수 있는 소금창고도 마련하여 체험활동도 가능하다.



▲ 소래역사관

두 번째 만남

장도포대지

인천 소래 앞바다 이양선 방어 진지

장도포대지(獐島砲臺址)는 수인선 소래철교 아래에 있는 성곽시설로, 조선 말기 외국선박들이 인천 연안의 소래수로로 침입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세운 포대진지이다. 특히 조선 고종 16년(1879) 일본이 인천을 개항 후보지로 요구할 것에 대비하여 해안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화도진(花島鎭)을 설치할 때 함께 만든 포대진지이다. 장도포대지는 지금은 육

지이지만 150여 년 전만해도 소래 갯벌 위에 땡구산이라는 작은 구릉을 가진 섬이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수인선 건설과 함께 소래철교를 놓으면서 섬 자체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이때 포대도 사라졌다. 그러나 1999년 화도진도(花島鎭圖) 원본에 정확한 장도포대 위치가 확인되면서 이 포대가 구한말 개항기 인천 연안 방어체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 유물로 판단하여, 2001년 4월 인천문화재자료 제19호로 지정되었으며,



▲ 장도포대지

2006년 복원을 완료하였다.

세 번째 만남

소래철교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던
수인선 철로 교량



▲ 소래철교

소래철교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과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을 연결하는 철교로서, 일제강점기 1937년에 건설된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 철로교량이다. 폭 762mm의 좁은 철로를 지닌 협궤철로로서 당시 운행했던 기차는 규모가 작아 ‘꼬마열차’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일제는 소래 앞바다와 인근의 염전에서 생산된 어패류와 소금을 일본으로 착취, 반출할 목적으로 수인선을 건설하였다. 1978년까지 증기기관차가 운행되다가, 이후 디젤기관차로 변경, 운행되었으며, 버스교통의 대중화로 승객이 감소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자, 1995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운행이 중지되었다. 철교는 안전 상의 문제로 철거와 보존의 주장이 대립되다가 1997년 인도교로서 개조되어 이용되고 있다. 현재는 소래포구 어시장에 인접하여 해마다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는 수도권 최대관광지의 명소로 알려졌다. 그리고 2012년 수인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오이도와 송도를 연결하는 신소래철교가 가설되어 수인천 전철이 운행되고 있다.

네 번째 만남

소래포구 어시장

수도권 시민들의
야외수산물 시장 일번지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와 어시장이 있는 소래는 1930년대 염전이 생기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곳이다. 1937년 일제가 소금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원과 인천 사이에 수인선을 건설하였고, 소래포구는 염전의 소금과 염전에 일하는 인부들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정박하면서 포구가 발전하게 되었고, 소금을 운반하기 위한 철도 기차역으로 소래역이



▲ 소래포구 어시장

들어섰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새우와 젓갈, 꽃게와 활어들을 파는 수도권의 대표적 재래어시장으로 성장하면서 오늘날 연간 1천만 명의 수도권 시민들이 찾는 어시장으로 사랑받고 있다. 1996년부터는 염전도 폐쇄되었으며, 대신 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바뀌었으며, 2001년부터는 도심 속 천연포구로서 ‘인천 소래포구축제’가 열리고 있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다섯 번째 만남

화약박물관

(한화기념관)

국내 화약산업의 발상지



▲ 한화기념관

화약박물관의 정식명칭이 한화기념관이다. 한화는 주식회사 한국화약의 준말로, 한화그룹의 모태가 되는 기업이다. 고잔고등학교, 미추홀외고, 송천고등학교 등이 위치한 고잔동 일대는 2006년 한국화약 인천공장이 지방으로 이전될 때까지 화약을 생산하던 공장부지였다. 1952년 창업한 한국화약 인천공장은 한국전쟁 당시 수입에 의존하던 폭약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내 화약산업의 발전을 이끈 국내 유일의 화약 공장이다. 국내 화약산업의 발상지에 세워진 화약박물관은 (주)한국화약의 역사적 의미와 발자취를 기리기 위한 목적에서 조성되었다. 박물관에는 화약의 제조 공정과 시설물 등을 보존, 재현하였으며, 임직원들의 안전을 기원했던 교회, 화약 발명에 도전해온 국내의 역사와 화약이야기를 비롯한 화약관련 역사자료와 각종정보 및 영상자료의 관람이 가능한 산교육장이라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만남

인천남동 국가산업단지

수도권 산업을 이끄는 선두 주자



▲ 인천남동공업단지

인천남동산업단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업을 정비, 재배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대의 폐염전인 남동염전을 매립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이다. 1985년부터 1997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초기 식품, 섬유, 목재, 제지, 석유화학, 비금속

조립금속 산업 등이 주로 입지하였다. 이후 1999년부터 영상, 음향, 통신, 의료, 정밀, 광학기술, 전자기기 등 첨단벤처산업 등이 입주하고 있어 구조상 변화가 있었다.

제1, 2 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와 인접하였으며, 경인선 철도 그리고 수인선 전철이 운행되고 있다. 또한 6km 내에 대형선박 접안이 가능한 인천항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등 육해공 상의 교통의 잇점이 크다.

일곱 번째 만남

논현포대

인천 소래앞바다
이양선 방어 진지



▲ 논현포대

호구포역 앞에는 조선말기 고종16년(1879) 논현포대를 축조하였다. 처음에는 축조당시 지명을 따서 호구포대라고 명명되었으나 지금은 논현포대로 개명되었다.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을 겪고 나서 경기 연안의 방어시설을 강화할 필요를 절감한 조선정부는 인천과 부평 연안에 새로운 포대 진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1879년 이에 따라 화도진(花島鎭)에 예속시켜 호구포에 포대진지를 축조하였다. 인근 장도포대도 이때 함께 만든 것이다. 1894년 화도진이 철폐되면서 이 포대도 폐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1982년 인천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답사활동

01 (가)는 답사지역의 장소명을, (나)는 답사지역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가)에 해당되는 내용을 (나)에서 찾아 연결해보자.



- 일제강점기에 염전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어항
- 수도권 시민들의 사랑받는 도심 속 천연포구
- 1952년 우리나라 최초의 화약산업 창업
- 2006년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이전
- 조선말기 1879년 경기연안 방어 목적 축조
- 화도진에 예속된 포대진지로 호구포돈대라고도 함.
- 1937년 수원과 인천 연결 수인선 철로 교량
- 1995년 운행 중단, 인도교 개조 관광 명소화
- 수도권에 밀집한 공업의 재분산 배치
- 고속도로와 철도, 인천항, 인천공항 등 교통 입지 여건 유리

02 소래포구와 남동공단 일대를 답사하면서 체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사노트를 정리해 보자.

학생활동	답사노트
① 일제강점기에 수인선 철로(소래철교)가 건설된 이유와 당시 운행되던 기차를 '꼬마열차'라고 불렀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② 인천의 남동산업단지가 지닌 입지의 가장 큰 잇점이 무엇인지를 생산비와 관련하여 알아보자.	* 생산비 :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원료비·노동비·전력비·교통비 등의 고정비용과 광고비, 물품보관비 등의 간접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말하며 생산원가로 표현하기도 한다.
③ 논현포대와 장도포대가 소래포구 일대에 축조된 이유를 이곳 일대의 지리적 특징과 관련하여 설명해보자.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단원

- 고등학교 한국지리 : 7단원 우리나라의 지역이해 3장 인구와 기능이 집중된 수도권)

■ 활동목표

- 내고장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일대의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내고장 인천 남동구 남동산업단지의 입지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의 산업 발전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발표할 수 있다.

■ 학습활동

- 활동1 : 신문 기사 검색 및 기사 정리 발표하기
 - 기사제목 : <수인선 꼬마열차, 25년만에 인천 귀향> 검색
 - * 수인선 협궤열차가 사라진걸까, 어디로?
 - * 어디서 다시 되찾아왔단 말인가!
 - *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1995년도의 협궤열차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여, 다시금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의 글 작성하기
 - 기사글 정리 발표하기
- 활동2 : <인천의 어제와 오늘> 블로그 사이트 검색 및 자료 정리 발표하기
 - 남동염전 사진 자료 검색
 - 염전에서 남동공단으로의 지역변화 과정 보고서 작성하기



1967



2015

생각해 볼 거리

2000년도부터 남동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종사자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계속 증가해왔다. 이들이 주로 근무하는 직종은 금속, 금형, 용접, 피혁 가공 등의 3D관련 직종에 해당된다. 2018년 법무부 집계 에 따르면 6월말 기준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내·외국인 간 일자리 갈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남동산업단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논의해보자.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터사랑, 2005, 인천땅 '이만큼 알기', 다인아트
- 지리교과연구회, 1995, 인천사랑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인천시교육청
- 조민선 외, 2012, 선생님과 떠나는 즐거운 인천 여행, 인천남부교육지원청
- 이간용 외, 2003, 내고장인천향토교육길라잡이, 인천학술진흥재단

영상

- <한국기행> 도심 속 낭만 소래포구기행
<https://www.ebs.co.kr/tv/show?courseId=BP0PAPD0000000022&stepId=01BP0PAPD0000000022&lectId=3112617>
- KTX 매거진 '문화재 기행' 인천 소래포구 편
<https://blog.naver.com/infoswadcom/221223682075>

인터넷 자료

- 소래역사관 <http://museum.namdongcmc.co.kr/>
- 한화기념관(화약박물관)
<https://www.hanwhahistoricalmuseum.co.kr/>
- 인천의 어제와 오늘
<https://blog.naver.com/kkkk8155/220785936421>

3-3

인천의 염전과 생태

생태 | 지리 | 역사

체험코스

① 소래역사관 → 소래습지생태공원전시관 → ② 소래습지 생태공원 → ③ 염전 → ④ 장수천 → ⑤ 인천수목원 → ⑥ 인천대공원(식물원)

전체 거리 3.4km (48분)
구간별 거리
소래역사관~소래습지생태공원전시관 (1.6km / 25분)
소래습지생태공원~염전 (150m / 1분)
염전~만수물재생센터(장수천) (2.5km / 40분)
만수물재생센터~인천청소년수련관 (3.8km / 60분)
인천청소년수련관~인천수목원 (1.2km / 20분)
인천수목원~인천대공원(식물원) (700m / 10분)

교육과정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사회 1. 우리 고장의 모습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과학 2. 생물과 환경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2.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키워드

#인천의 생태 #인천의 환경 #염생 식물



범례

- 답사지점
- 답사경로
- 구

3-3

인천의 염전과 생태

- 소래의 환경과 생태
- 염전의 모습
- 지속 가능한 미래



지구촌 환경 보존? 인천의 염전과 생태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

세계 시민으로 다가가는 한 걸음, 지구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세계 시민은 도시, 지역, 국가의 한 사람이 아닌 지구촌의 한 사람으로서 지구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실천하는 사람이다. 세계 시민은 한 개인으로서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지구촌의 구성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이에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발달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지구촌의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는 미래의 세대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세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천의 염전과 생태에 대한 작은 관심부터 시작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환경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생각해보도록 하자.

첫 번째 만남

소래역사관

소래, 그 역사로의 시간여행



소래역사관의 모습

2012년 6월 29일에 개관한 소래역사관은 소래 논현 도시 개발사업의 추진과 함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소래 지역의 역사와 전통적인 문화가 잊혀져 감에 따라 건립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최초의 공립박물관이다. 1층과 2층에 4개의 ZONE으로 구성된 상설 전시관이 있다. 첫 번째 테마인 소래갯벌 ZONE에서는 소래지역의 유래와 갯벌에서의 삶, 개항기 이양선의 출몰과 그 방비책인 논현포대, 장도포대지의 모습 등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테마인 수인선 ZONE에서는 수인선의 건설과정과 협궤열차, 소래철교 등 수인선의 개통에서 폐지까지의 과정을 알 수 있으며, 세 번째 테마인 소래염전 ZONE에서는 각종 염업도구의 전시와 함께 다양한 체험전시와 게임 등을 통해 국내 제일의 천일염 생산지였던 소래염전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마지막 테마인 소래포구 ZONE에서는 소래지역의 어업과 경제생활, 포구의 형성과 발전, 어시장 사람들의 모습을 디오라마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전시의 마지막은 70%로 축소 재현한 협궤열차의 관람과 함께 플랫폼으로 나오면서 소래 지역의 시간여행을 마친다.

두 번째 만남

소래습지 생태공원

해양생태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면적 약 350만㎡의 소래습지생태공원은 갯벌과 갯골, 폐염전으로 조성된 생태 공원이다. 이곳은 해양 도시로서 인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인 동시에, 서구식 염전을 처음으로 도입한 서남부 최대 염전으로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지니고 있다. 해양습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곳은 통통마디, 개민들레, 칠면초 등 염생식물과 멸종 위기종 흰발농게, 저어새 등 다양한 동식물들의 생



▲ 소래습지 생태공원

물 군락지이자 철새 도래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1급 멸종 위기 야생동물 노랑부리백로, 매, 저어새, 흰꼬리수리를 포함한 멸종 위기 야생동물 18종과 천연기념물 13종, 기후 변화 지표종 14종이 관찰될 만큼 많은 새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생태와 역사, 문화적 가치를 모두 지닌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인천의 자연이 지닌 보배 중 보배다.

* 염생식물이란 소금기 있는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가는 길목에 갯골과 갯벌이 보이는데 갯벌에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 등 생명체가 살고 있다. 갯벌 군데군데 붉은색이 도는 이유는 칠면초 등 염생식물 때문이다. 소금기 많은 땅에서 자라는 염생식물 중 붉은빛을 띠는 것은 칠면초와 해홍나물 등인데, 소래 갯벌에는 특히 칠면초가 많다. 보통의 식물들에게 갯벌 등 토양에 존재하는 염분은 식물체 내에서 삼투압을 감소시켜 수분이 식물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나 염생식물은 식물에게 독에 해당하는 소금물을 흡수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오히려 자신들만의 영역을 확보한다. 이들이 염분에 강한 이유는 염분 배출을 돕는 칼륨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염생식물을 섭취하면 체내 염분 배출에 도움이 된다. 염생식물은 해안습지의 기초 생산자로서 동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오염물질을 정화시킨다. 그러나 소금 생산 중단과 토지이용 변화 후 지속적인 육상화가 진행되고 해수 유입이 중단된 이후 염생식물 군락의 면적이 감소하면서 도요류, 물떼새, 저어새 등의 서식지가 감소되고 있다.



▲ 칠면초

세 번 째 만 남

염전

소금 놀이터



▲ 염전의 모습

외지 사람들이 인천사람을 가리키며 ‘인천 짬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친근하고 다정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놀림조로 비아냥 거리는 의미가 내포된 호칭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이 ‘짬물’이라는 별

명을 갖게 된 결정적 이유는 짬 바닷물과 염전, 그리고 소금 때문이었다. 이는 이미 「삼국사기」의 기록에도 나오는 일이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 온조왕편에 보면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주몽)의 아들 비류와 온조가 그들의 이복 형제인 유리가 태자가 된 뒤 화를 입을까봐 남쪽으로 몸을 피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때 온조는 위례성에 도움을 정하고 나라의 기틀을 잡은 반면, 비류는 지금의 인천인 미추홀로 내려와 나라를 세우려 했는데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살기 어려웠다는 기록이다. 이어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조선시대의 대표적 지리서에 보면 ‘소금’이 인천의 특산물로 나온다. 소금기가 특히 많이 들어있는 바닷물, 풍부한 일조량(햇볕), 전국 평균치보다 떨어지는 강수량 등 인천은 소금을 생산하기에 아주 적합한 자연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로부터 인천은 소금을 얻기에 매우 적합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여러 옛 문헌들에서도 인천의 풍속과 특산물로 소금을 꼽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소금생산으로 이름난 곳이었다. 1930년대에 생기기 시작한 소래 염전은 전국 최대의 소금 생산지였다. 일제강점기 1931년 공사를 시작, 1934년 첫 소금을 생산했던 이곳은 1970년 전국 최대의 소금생산지로 정점을 찍다가 1996년 폐업을 했다. 일제강점기 소래염전의 53만 3천 평에서, 소래 갯골로 들어오는 바닷물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소금은 전국 제일의 천일염으로 영양이나 맛에도 일품이었다. 일본은 이 소금을 실어 나르기 위해 수인선 철도를 만들고 협궤열차와 소래포구의 배를 통해 일본으로 소금을 수탈해 갔다. 이때 소래철교가 건설되어 협궤용 증기기관차를 통해 소금을 수송해 왔고, 1970년대 ‘소래염전’은 국내 최대의 염전으로 천일염 생산*이 활발했었다. 그러나 1995년 12월부터 수인선이 폐선된 뒤, 1996년까지 소금을 생산하다가 1997년부터 완전히 생산이 중단되며 폐염전으로 남았다. 염전 주변에는 염전 결정지에서 생긴 천일염을 보관하던 소금창고도 볼 수 있다.

* 염전은 소금을 만들기 위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만든 곳으로, 소금밭이라 하기도 한다. 소금은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장치를 이용, 농도를 짙게 하여 액체에서 고체로 결정시킨 것이다. 천일염 생산은 바닷물을 입구의 저수지에 끌어들이어 안쪽의 난치지역에 10여일을, 늦타지역에서 14일 정도를 태양과 바람으로 증발시킨 후 결정지역에서 소금 결정을 만들어 채취한다. 소금을 얻는 전체 공정을 천연에너지를 이용하는 곳을 천일염전이라 하며 이렇게 해서 얻은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등이 가장 발달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서해안과 남해안에 분포하고 있다.

네 번째 만남

장수천

생태 하천 복원,
장수천 살리기 운동



▲ 장수천

인천광역시의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이 위치한 관모산에서 발원하여 수산동에서 만수천과 합류한 후 황해로 유입하는 하천이다. 장수천 상류에는 1급수에서 서식하는 버들치와 참게, 줄새우, 참붕어, 쌀미꾸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민물 어류 10종과 뱀장어 등 기수성 어류(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사는 어류) 7종이 서식하는 등 인천 하천의 전체 어류 28종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한다. 과거 수질이 좋지 않아 악취 발생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등 하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장수천에 습생식물과 수상곤충, 반딧불이 등 1천여 종의 생물이 공존하는 테마 하천을 조성하였으며 과거 장수천에 서식했던 것으로 알려진 청정지역의 상징 반딧불이를 목표종으로 선정하여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장수천’이라는 테마로 복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후 수년간 ‘장수천 살리기 운동’을 지속한 결과 생태하천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인천대공원~장수천~소래포구 구간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選)’에 선정된 코스이기도 하다.

다섯 번째 만남

인천수목원

자연친화적 여가활동공간

인천수목원은 인천시 도서해안과 육상의 주요 식물종을 수집·전시·보전·연구하고 도시녹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자연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인천대공원내에 있는 수목원이다. 수목전시원은 3개 지구 43개 전시원으로 되어 있다. 테마식물원 지구에는 소나무원, 사계원, 오감원, 나무백가지원 등 20개 전시원이, 희귀자생·비교식물원 지구에는 비교식물원, 희귀자생원, 해안사구원 등 5개 전시



▲ 인천수목원 식물원

원이, 도시녹화식물원지구에는 옥상녹화원, 담장녹화원, 허브가든원 등 18개 전시원이 있다. 인천수목원은 인천지역의 특정 식물 자원 보전의 공간, 우리나라의 식물분야 학술활동 공간, 인천지역의 주요 식물종 생육지의 환경 재현과 복원모델 제시 공간, 시민들의 자연 체험 및 교육공간, 도시녹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공간, 도시공원내 수목원으로서 인천시민의 휴양·여가·교육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섯 번째 만남

인천대공원

자연의 숨결을
느끼고 싶을 때는

인천대공원은 연간 400만 명의 시민들이 찾는 수도권 대표적 공원이며, 누구나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휴식공간이다. 그리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즐거움과 여유롭게 힐링할 수 있는 휴양공원이다. 인천대공원에는 인천수목원, 캠핑장, 식물원, 장미원, 자생식물원, 어린이동물원, 자연생태원, 자연생태관찰로, 환경미래관 등의 시설이 있다. 인천대공원 식물원은 열대과수, 관엽식물, 지피식물, 남부식물, 수생식물 등 다양한 식물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식물원은 꽃샘추위는 물론 비가 내려도 걱정이 없는 최적의 나들이 장소로 손꼽히고 있다.



▲ 인천대공원

1온실에는 열대 및 아열대 식물이, 2온실에는 선인장 및 다육식물을 전시하고 있다.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에는 일본원숭이, 마모셋, 사막여우, 왈라루, 미어캣, 청금강앵무, 타조, 파나코, 코요테 등의 동물 41종 225마리가 있다. 환경미래관에서는 인간을 자연에 밀착시키는 자연에 대한 관심, 자연에 다가갈수록 보다 건강해진다는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하여 우리 고장을 넘어 지구촌의 환경문제를 깨우치고 극복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01 [인천의 염전과 생태] 스탬프 투어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① 소래역사관

소래 전시관에는 열차시간표와 운임표가 있어요. 소래역에서 출발하여 한대앞역에 도착하는데 필요한 열차 운임은 얼마인지 찾아볼까요?

정답

스탬프 확인

② 소래습지생태공원

'짠 소금물을 극복하는' 바닷가의 모래땅이나 갯벌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찾아볼까요?

정답

스탬프 확인

③ 염전

타일이 널리 이용되기 전에 향아리 등 용기 깨진 것으로 바닥을 만들어 결정지역 바닥에 깔아 사용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볼까요?

정답

스탬프 확인

④ 장수천

하천은 그 중요도에 따라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그리고 소하천으로 나뉘는데요, 장수천은 그 중에서 어떤 하천인지 찾아볼까요?

정답

스탬프 확인

⑤ 인천수목원

인천수목전시원은 3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소나무원, 사계원, 오감원, 나무백가지원 등 20개 전시원으로 구성된 지구는 무엇인지 찾아볼까요?

정답

스탬프 확인

⑥ 인천대공원

인천대공원은 도시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생명의 숲이기도 한데요, 인천대공원의 쉬는 날을 찾아볼까요?

정답

스탬프 확인

02 소래포구와 남동공단 일대를 답사하면서 체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사노트를 정리해 보자.

① 답사 중 인상에 남는 식물의 이름과 식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적어봅시다.

▶ 식물명 :

▶ 설명 :

② 건물(기관)의 이미지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간략히 적어보자.

▶ 이유 :

학생활동

답사노트

①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장소 또는 배경과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봅시다.

② 소금 창고의 역할에 대하여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적어봅시다.

③ 사람들이 '장수천 살리기 운동'을 했던 이유에 대하여 적어봅시다.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단원

-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사회 : 우리 고장의 모습
-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과학 : 생물과 환경
-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 활동목표

- 고장에 대한 다양한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
- 환경오염의 원인을 알고 환경오염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 지속 가능한 미래 건설하고자 해결해야 할 과제를 조사할 수 있다.

■ 학습활동

- 활동1 : 도시 개발 VS 생태계 보존에 관한 신호등 토론하기
 -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여 도로 건설, 건물 짓는 사례 모으기
 - 도시의 개발로 다양한 직업이 생기면서 구직 문제를 해결한 사례 모으기
 - 도시 개발과 생태계 보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며 토론하기
- 활동2 : 지구촌 환경 문제 조사한 후 캠페인 UCC 제작하기
 - 지구촌 환경 문제 선택한 후 조사 방법 알아보기
 - 환경 문제의 원인과 문제점 조사하여 정리하기
 - 지구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캠페인 UCC 만들기

생각해 볼 거리

어린이 환경운동가에 관한 기사, 동영상을 찾아보며 느낀 점 이야기 나누기

예시) 그레타 툰베리: 스웨덴 출신의 16살 소녀. 2018년 8월, 일주일간 학교를 결석하고 스웨덴 의회 앞에서 지구 온난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함. 이에 공감한 세계 100개 이상의 도시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하고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임. 그리고 1년 만에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기후 파업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환경운동으로 발전함. 툰베리는 친환경 태양광 요트를 2주간 이용하여 2019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는 연설을 펼치며 세계의 관심을 받음.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굿모닝 인천 3월(2020), 굿모닝 인천 12월(2019), 인천시

영상

- 수인선은 추억을 타고
<https://www.youtube.com/watch?v=evFtstxPw6g>
- 사라진 낭만, 수인선 협궤열차의 추억
<https://www.youtube.com/watch?v=CRh4GAEIkH8>
- 염부의 눈물-소래염전
<https://www.youtube.com/watch?v=-wpB7YAbc9Q>
- 갯벌이 사라진 바다[녹색의 꿈]
<https://www.youtube.com/watch?v=e3qg0ldvnRl>

인터넷 자료

- 소래역사관 <http://museum.namdongcmc.co.kr/>
- 소래습지생태공원 <https://www.incheon.go.kr/park/park010301>
- 인천 남동이야기 <https://happy-namdong.tistory.com/1778>

3-4

평화와 교류의 중심지, 인천

역사 | 지리 | 교통

체험코스

① 송도역 → ② 호불사 → ③ 청량산 → ④ 인천시립박물관 → 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 ⑥ 능허대공원 → ⑦ 송도역

전체 거리 4.9km (2시간)
 구간별 거리 송도역~호불사 (1.2km / 25분)
 호불사~청량산표지석 (500m / 30분)
 청량산~인천시립박물관~인천상륙작전기념관 (250m, 150m / 10분, 5분)
 인천상륙작전기념관~능허대공원 1.2km (20분)
 능허대공원~송도역 1.6km (30분)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7. 우리나라의 지역이해
 3장 인구와 기능이 집중된 수도권
 고등학교 한국사 삼국과 가야의 발전

키워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송도역 #능허대 #청량산



범례

- 답사지점
- 답사경로
- 구

3-4

평화와 교류의 중심지, 인천

- 근대문화의 유산, 수인선 시종착역 송도역
- 전쟁과 평화의 산 교육장, 인천상륙작전기념관



평 화 와 교 류 의 중 심 지 로 새 롭 게 부 상 하 는 인 천

서해 평화 협력 시대를 열어가는 중핵도시

BC 18년경 비류백제가 미추홀(인천)을 도읍지로 삼아 개국을 한 이후, 약 2000년의 역사가 흘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천은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땅으로 중국과 교류의 출발지로서, 고려와 조선시대는 서해안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개화기에는 근대 개항장으로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된 곳으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던 교두보로서, 이후 산업화시대 수도권 수출입항으로 물류의 거점도시로 큰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인천은 남북대결과 긴장, 갈등의 시대를 넘어 서해안 평화시대의 새로운 핵심거점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반도의 북한과 바다를 공유한 황해를 품고 있으며, 세계 제일의 인천공항과 동북아 허브항만 인천항을 품고 있어 지리적인 인프라(사회간접자본시설)면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최적합한 플랫폼을 지닌 곳이다. 개성공단 재개와 더불어 서해를 통해 북방교류를 강화하여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남북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여 남북간 공동 해양 번영과 발전을 시도하는 사업, 둘째, 한강하구~해주 대동만~백령도~강화도를 연결하는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셋째, 해주와 강화도에 공동경제특구 성격을 띤 서해경제특구를 추진하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평화와 협력시대의 새로운 전진기지로서 인천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첫 번째 만남

송도역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시종착역

송도역은 1937년 개통된 수인선(수원역~남인천역 46.9km) 중 인천 연수구에 속한 역으로, 1992년 7월 연수지구택지개발로 송도-남동-소래구간의 폐선과 함께 수인선 협궤열차의 종착지가 소래역으로 변경되면서 폐쇄되었다. 이후 1995년 12월 31일 수인선의 완전 폐선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가, 2012년 6월 수인선 복선전철(오이도역~송도역 13.1km)역 사업에 의해 송도역으로 신축, 부활하였다. 현재 옛 송도역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송도역은 과거 70-80년대 인천사람들에게 휴양지로 각광받던 송도해수욕장과 유원지로 가는 관문역할을 한 곳이며, 소래를 오가며 소금과 어패류를 팔던 상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애환이 깃든 곳이다. 아직까지도 폭 76cm 협궤선 시절의 송도역사(驛舍)와 증기기관차에 쓰이던 녹슨 물탱크 급수탑이 역사 부근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인천시에서는 송도역의 과거 역사 모습을 복원하여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 현 송도역(위) / 구 송도역(아래)

두 번째 만남

호불사

인천 앞바다를 조망하는 청정도량



▲ 호불사 대웅전

호불사의 본래 이름은 청룡사였으나, 1974년 지금의 호불사로 개칭하였다. 대웅전 안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목조로 된 부도 <천수천안 관



▲ 호불사 대웅전 불상

세음보살상>과 <만다라 후불탱화> 등이 구성되어 있어 불교예술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느낄 수 있다. 인천 송도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청량산 중턱에 있으며, 인천시민의 불심을 헤아리는 도량으로 자리잡고 있다.

세 번 째 만 남

청량산

연수구 주민들의
옹달샘 같은 쉼터



▲ 청량산 전망대

청량산(172m)은 연수구에 위치한 산으로 문학산(217m) 다음으로 높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산의 경관이 수려하여 청량산(淸涼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산세가 아름다워 '송도의 금강(金剛)'이라고도 부른다. 중생대 쥐라기에 관입한 흑운모화강암이 주를 이루는 구룡성 산지로서, 청량산 정상부에서 볼 수 있는 백색계열의 암반들은 모두 흑운모화강암이다. 산 정상부에서 볼 수 있는 암석은 지하에 있던 화강암이 오랫동안 지속적인 침식과 풍화를 받은 후 일부가 지표에 남아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청량산은 문학산과 함께 해안 방어를 위한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1980년대 말까지도 사람들에게 개방되지 않았었다. 1990년대 이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군사시설의 일부가 이전되면서 개방되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서해낙조가 으뜸인 청량산은 연수구민들의 등산쉼터로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네 번 째 만 남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역사의 살아있는
발자취



▲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은 1946년 4월 자유공원에서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인천지역의 향토사와 문화유산을 수집·보존·전시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1953년 휴전 후 송학동에 위치한 인천문화원(구 제물포구락부)으로 이전하였다. 1990년 5월 4일 기존 박물관의 노후·협소로 인하여 현 옥련동 부지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인천의 유물과 유적 그리고 각종 도자기와 서예 및 산수화 등 약 4,700여 점의 소장품을 보관하고 있다.

다섯 번 째 만 남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한국전쟁의 산 교육장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1950년 6.25전쟁시 불리한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 U.N군 총사령관인 맥아더장군에 의해 계획된 작전으로, 극심한 조수간만의 차와 협소한 수로, 보급품의 운송 등 제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전적기념관이다. 참전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실증적 교육장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인천시의 직할시 승격과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여 연수구 옥련동 청량산 기슭에 건립하였다. 기념관 내에는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할 수 있는 각종의 역사적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옥외에는 중앙 상단에 18m 높이의 기념탑, 참전 16개국의 국기게양대, 무기전시장 등이 있다.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여섯 번째 만남

능허대공원

삼국시대 백제,
중국 해상길의 출발지



▲ 능허대공원

삼국시대 초기 한강유역을 차지하였던 백제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교류하였다. 그런데 고구려에 의해 육로가 막힌 탓에 어쩔 수 없이 해상길을 이용하였다. 백제사신들이 중국행 해상길 출발점이 되었던 곳이 연수구 옥련동 능허대공원이다. 당시 능허대공원 일대의 포구를 한나루, 한자로는 대진(大津) 또는 한진(漢津)이라 불렀다. 한성에서 마포를 거쳐 양화진~부평~경신역(현 수산동)~사모지고개(삼호현)를 거쳐 이곳 능허대에서 출발, 덕적도를 거쳐 중국 산둥반도에 도착하는 해상길이었다. 백제와 중국과의 교류는 그 뒤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는데 이곳 한나루를 통해 사신들이 건너다닌 기간은 근초고왕 27년(372년)부터 개로왕 때까지의 100여 년간으로 알려져 있다. 한나루는 그 후로도 조선조 광해군 때까지 나루터로 이용되었다.

답사활동

01 [인천의 염전과 생태] 스탬프 투어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 1937년 발간된 '경승 인천' 송도지역 / 출처 : 인천일보 2019.07.14. 20:04

가. 지도에서 수인선과 송도역 그리고 청량산과 능허대의 위치를 각각 찾아보자.

나. 청량산 정상부의 검붉은 색은 청량산의 산세의 어떤 특징과 관련있는지 설명해보자.

다. 청량산 서쪽 아래 두 개의 저수지로 보이는 곳의 용도는 당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이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자.

02 소래포구와 남동산업단지 일대를 답사하면서 체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사노트를 정리해보자.

학생활동	답사노트
①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장소 또는 배경과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봅시다.	
② 소금 창고의 역할에 대하여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적어봅시다.	* 참전국: * 인천상륙작전 반대 이유:
③ 사람들이 '장수천 살리기 운동'을 했던 이유에 대하여 적어봅시다.	* 해상길 개척이유 : * 해상길 역사적 의의 :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단원

- (고등학교_한국지리) (7단원 우리나라의 지역이해 3장 인구와 기능이 집중된 수도권)

■ 활동목표

- 내고장 인천 연수구 송도역과 청량산 일대의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학습활동

- 활동1 : 지역변화 조사하기 <과거로 떠나는 여행; 사라진 송도유원지와 송도해수욕장>
 - '송도유원지 & 송도해수욕장' 관련 기사 검색 및 자료 정리하기
 - 구 송도유원지와 송도해수욕장은 왜 사라진 걸까?
 - 조부모님, 부모님 포함 구 송도유원지와 송도해수욕장에 얽힌 사연 조사하기
 - 송도유원지와 송도해수욕장 일대의 현재 변화상 그리고 미래 조사하기
- 활동2 : <인천상륙작전> 주제 신문만들기 (관련 기사 검색 및 자료 정리)
 - 인천상륙작전 수립 배경
 - 기후와 해양조건이 인천상륙작전에 미친 영향(인천이 불리했던 이유)
 -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열쇠를 쥔 켈로부대 월미도등대 점령작전
 - 인천상륙작전의 전술학적 의의
 - 전쟁의 참화 내용 사진을 통한 인류애와 평화의 가치 어린이 환경운동가에 관한 기사, 동영상을 찾아보며 느낀 점 이야기 나누기

생각해 볼 거리

동북아로 향한 바닷길, 하늘길이 모두 열려 있는 인천은 매우 역동적인 도시로, 오늘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인천은 최근 서해안 평화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거점도시로 그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휴전선을 맞댄 북한의 해주와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일대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해역설정 그리고 해주와 강화도 일대의 공동경제특구 설정과 해양평화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도시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이 남북 평화통일을 이끄는 주인공으로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때, 외국 학생들에게 <평화와 공존의 도시, 인천>이란 주제로 인천을 소개해보자.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터사랑, 2005, 인천땅 '이만큼 알기', 다인아트
- 지리교과연구회, 1995, 인천사랑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인천시교육청
- 조민선 외, 2012, 선생님과 떠나는 즐거운 인천 여행, 인천남부교육지원청
- 이간용 외, 2003, 내고장인천향토교육길라잡이, 인천학술진흥재단
- 이우평 외, 2006, 인천바로알기, 인천시청

인터넷 자료

- 인천시립박물관 www.incheon.go.kr/museum/index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http://www.landing915.com>
- 굿모닝 인천, <https://www.incheon.go.kr/goodmorning/>

3-5

인천의 오늘, 그리고 미래

도시 | 문화 | 생태

체험코스

센트럴파크역 → ① G타워 → ② 트라이볼 → ③ 인천도시역사관 → ④ 센트럴파크 → ⑤ 송도컨벤시아 → ⑥ 극지연구소

전체 거리 5.6km (1시간 23분)
구간별 거리
센트럴파크역~G타워 (380m / 5분)
G타워 ~트라이볼 (350m / 5분)
트라이볼~컴팩트마르티 (200m / 3분)
컴팩트마르티~센트럴파크(이스트보트하우스) (950m / 15분)
센트럴파크~송도컨벤시아 (400m / 5분)
송도컨벤시아~극지연구소 (3.3km / 50분)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사회 6. 지속가능한 자원 개발
중학교 3학년 사회 4. 살기 좋은 도시

키워드

#송도국제도시의 위상 #송도국제도시의 도시 기능
#미래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 #도심 속 생태공원 센트럴
파크



범례

- 답사지점
- 답사경로
- 구

3-5

인천의 오늘, 그리고 미래

- 송도국제도시의 기능
- 송도국제도시의 환경과 생태
- 살기좋은 미래도시의 조건



미래도시의 모델은 송도? - 송도국제도시의 위상

동북아시아의 국제도시는 서울이 아닌 인천이라고요?

과거 육지가 아닌 갯벌이 드넓게 펼쳐졌던 곳에 인천의 미래도시를 건설한 곳. 그곳이 지금의 송도국제도시이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에는 60여 개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소 등이 입주해 있으며 국내외 모두 합쳐 1,000개의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GCF(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국내외 금융기관 및 에너지, 환경 관련 기업의 입주 증가 및 미개발 업무용지의 개발 가속화와 업무시설에 대한 입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30년 완공 예정인 인천 송도~서울 청량리 구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가 개통되면 서울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이며, 인천 신항의 건설로 인해 인천항의 물동량을 일부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송도국제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을 체험함으로써 송도국제도시의 기능과 위상을 알아보고, 미래의 시민들이 거주하기 좋은 삶의 공간은 어떠한 것일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하자.

첫 번째 만남

G타워

국제기구의 집합장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60여 개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소 등이 입주해 있으며 국내외 모두 합쳐 1,000개의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GCF(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를 유치해 국내외 금융기관 및 에너지, 환경 관련 기업의 입주 증가 및 미개발 업무용지의 개발 가속화와 업무시설에 대한 입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UN 녹색기후기금(GCF)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UN 기후 변화 협약을 중심으로 만든 국제 금융 기구이다. 향후 기후 변화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기후변화 장기재원의 조달과 집행을 담당하며, 향후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송도 국제도시는 2030년까지 금융 등 국제비즈니스, IT 등 첨단산업, 의료, 바이오, 물류, 교육 분야에 외국인 투자기업과 연구소, 국내외 대학 및 국제학교 등 총 1,247개를 유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총 1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다국적 기업 아시아·태평양 본부, 녹색기후기금(GCF),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 유치도 성공했다. 150개 국가의 선거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UNAPCICT),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 위원회(UN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 등 국제기구를 유치해 국제업무의 거점지로 개발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종전의 신도시가 갖는 인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지식정보산업, 국제자유무역, 비즈니스 도시를 목표로 하는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G타워

두 번째 만남

트라이볼 곡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건축물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역에 도착해 4번 출구를 나서면 기묘한 형태의 구조물을 발견할 수 있다. 조개 껍데기를 거꾸로 뒤집어엮은 듯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역원뿔형 구조물이 삼각 구도로 3개 놓여 있고 그 상부가 하나로 연결돼 1개의 구조체를 이뤘다. 천장 부분을 제외하면 모든 면이 유려한 3차원 곡선으로 이뤄져 있어 편안하게 시선을 쫓다 보면 어느새 건물 전체를 둘러보게 된다. 하부는 회백색 콘크리트로 매끈하게 덮여 있고, 상부는 짙은 은회색의 금속성 패널이 촘촘히 박혀 있다. 트라이볼(Tri-bowl)은 세 개를 뜻하는 트리플(triple)과 그릇을 뜻하는 볼(bowl)의 합성어다. 이름처럼 3개의 그릇이 놓인 모양으로 하늘과 바다 땅이 모두 조화된 인천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영종도를 상징한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국제업무단지에 위치하며 규모는 최고 높이 18.8m,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700㎡다. 내부는 이벤트홀, 다목적홀, 디지털 라이브러리 등으로 구성됐다. 수심 60cm, 가로 약 80m, 세로 약 40m의 수변공간의 한가운데 있어 건물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극적으로 연출했다. 가장 큰 특징은 역셀 구조로 완성된 ‘곡선의 미학’이다. 역셀 구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뒤집어진 고깔 형태를 말한다. 현재 이곳은 송도의 랜드마크이자 매월 음악회, 미술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 및 인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트라이보울

세 번째 만남

인천도시역사관 인천 도시 역사의 모든 곳

G-TOWER와 가까이 있는 이곳은 1층은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우체국이나 58은행 등 개항장의 다양한 시설물을 볼 수 있으며, 인천항의 갑문식 도크를 그대로 옮겨와 관람자들이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설치했다. 같은 건물 3층은 송도와 영종도를 중심으로 하는 인천 지역의 발전상과 앞으로 미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건물의 ‘고대 및 근대 전시관’, ‘인천 모형관’, ‘IFEZ 모형관’ 세 곳의 전시관을 관람하는 동안 인천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모습, 미래의 비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1층



▲ 인천도시역사관

에 위치한 ‘고대 및 근대 전시관’은 선사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인천의 바닷길을 중심으로 펼쳐진 개척과 도전의 역사를 소개하고 팔미도 등대, 인천 기상대, 인천 전화국 등 개항장의 건물들이 작은 모형으로 재현하고 있다. 2층 전시관은 대형 영상과 모형이 연동되어 인천의 위상을 강조하는 ‘인천 모형관’이 있다. 2020 인천 도시계획 기본구상과 주거, 교통, 환경 등 분야별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3층

에 위치한 ‘IFEZ 모형관’은 미래도시 IFEZ를 만나는 소개 공간으로 개발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강점을 부각시킨다. 그 외 360°입체 영상관인 5D영상관, 4D 입체영상관, 기획전시관을 운영한다.

네 번째 만남

센트럴파크 (연수구 송도동 163번지) 도심 속 생태공원



▲ 센트럴파크

센트럴파크에는 공원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인공호수가 있다. 길이가 1.8km이며 폭은 최소 16~110m이다. 물의 도시인 베네치아의 인공 수로를 벤치마킹했다. 호수에는 수상택시가 다닌다. 수상공원에서 송도의 전경을 구경할 수 있다. 수상택시인 미추홀호와 다인승 자전거가 있어 이색적이며, 동고서저형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해안, 구릉, 계곡, 산악 지대를 다양하게 형상화하였다. 공원 내부에 테라스 정원, 산책 정원, 초지원, 수변 산책 공원, 조각 공원 등 레저와 교육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공원이며, 도심의 회색 공간에 지친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섯 번째 만남

송도컨벤시아
마이스 산업을 통한
부의 창출기지

MICE 산업에서 ‘MICE’는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에서 첫머리를 딴 것이다. MICE 산업은 대규모로 조직된 집단이 외교, 경제 등 특정한 목적을 띠고 관광할 때 이러한 행사를 유치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전략이다. 송도컨벤시아는 450개의 부스 설치와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3층, 지하 1층의 대규모 1차 전시장을 2008년 개장하였다. 2018년 송도컨벤시아 2차 전시장의 완공으로 향후 주변 1천600여 개 숙박시설, 트리플스트리트 등의 쇼핑 시설 및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의 본사 등 많은 입주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송도국제도시에 MICE 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 등의 유발효과를 상승시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인천 경제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송도컨벤시아 외부 전경

여섯 번째 만남

극지연구소
남극과 북극해의
자원을 찾아라!

극지연구소는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부설 연구소로써 지구의 기후, 탄생, 극지의 생물연구, 남극 지질탐사를 통한 미래 에너지 자원연구 등 남극, 북극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치는 곳이다. 현재 남극의 세종 기지, 장보고 과학기지, 북극 다산과학기지 등에 연구원 등을 파견하고 있으며, 쇄빙연수선 ‘ARAON’ 호를 건조하여 여러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극지기후과학연구부, 극지생명과학연구부, 북극해빙예측사업단 등 9개의 연구부서 및 사업단이 상주하고 있다.



▲ 극지연구소

답사활동

01 [인천의 오늘, 그리고 미래] 스캠프 투어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문제 1	문제 2	문제 3
Q1 한국 해양 과학기술원의 부속 연구소야(5점). Q2 미래 에너지 자원 연구를 하는 곳이지(3점). Q3 북극 및 남극 기지에 연구원을 파견하고 있어(1점). 내 이름은 _____이야.	Q1 MICE 산업과 관련된 곳이지(5점). Q2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만든 곳이야.(3점). Q3 기업회의, 국제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전시할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1점). 내 이름은 _____이야.	Q1 베네치아의 인공 수로를 벤치마킹한 공원이야(5점). Q2 동고서저형인 우리나라 지형의 특색을 반영했어(3점). Q3 레저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한 공원이지(1점). 내 이름은 _____이야.
문제 4	문제 5	문제 6
Q1 인천의 도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곳이야(5점). Q2 1층은 고대 및 근대 전시관이 있지(3점). Q3 G-tower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전시관이야(1점). 내 이름은 _____이야.	Q1 곡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건축물이야(5점). Q2 세 개의 구조물은 송도, 청라, 영종도를 각각 상징한대(3점). Q3 음악회, 미술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어(1점). 내 이름은 _____이야.	Q1 녹색기후기금(GCF)등국제 기구가 위치한 곳이야(5점). Q2 국제 업무의 거점지로 활약하고 있어(3점). Q3 동북아시아의 국제 도시로서의 위상을 느낄수 있어(1점). 내 이름은 _____이야.

02 송도국제도시를 답사하면서 체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사노트를 정리해 보자.

“답사 중 인상에 남는 건물이나 기관의 사진을 찍거나 스케치하여 이곳에 붙여(그려) 보자.”

건물(기관)의 이미지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간략히 적어보자.

학생활동	답사노트
① 자신이 생각한 송도 국제도시의 랜드마크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② 답사한 장소나 건물(기관)의 주요 특징들을 정리해 보자.	
③ 답사를 통해 미래의 살기 좋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서술해 보자.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단원

- (중학교_3학년_사회) 사람이 만든 삶터, 도시,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 (중학교_3학년_과학) 과학과 직업, 현대 사회의 직업과 과학,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

■ 활동목표

-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기후 변화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평가할 수 있다.
- 도시 문제를 해결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된 사례를 조사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안할 수 있다.
- 과학 기술의 발달이 미래 사회의 직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설명할 수 있다.

■ 학습활동

- 활동1 : 도시 신문자료 만들기
 - 작성한 글과 찍은 사진 모으기
 - 신문을 만들기 위한 글과 사진 편집하기
 - 모둠별로 선택한 글과 사진으로 신문 제작하기
- 활동2 : 국제기구, 기업, 산업체 체험활동 보고서 꾸미기
 - 체험활동을 통한 제품 사진 모으기
 -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에 대해 정리하기
 -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정리하기
 - 체험활동 보고서 제작하기

생각해 볼 거리

과거 갯벌이었던 곳에 인천의 미래를 대표하는 송도국제도시가 들어섰다. 이곳에는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소, 금융기관, 에너지, 환경 관련 기업 등 많은 업무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교통 개발과 더불어 인천의 미래를 대표하는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다가오는 인천의 미래의 미래는 환경과 기술이 조화로운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는 부분이며, 더불어 살기 좋은 미래가 되기 위해 어떤 점을 생각해봐야 할지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해 보아도 좋겠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터사랑, 2005, 인천땅 '이만큼 알기', 다인아트
- 지리교과연구회, 1995, 인천사랑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인천시교육청
- 조민선 외, 2012, 선생님과 떠나는 즐거운 인천 여행,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영상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 IFEZ
- 송도 IBD(국제업무단지) 홍보 영상
- 송도 컨벤시아 홍보 영상
- 2014년 8월 2일 KBS 특집다큐 글로벌 도시 전쟁 1부 '국경을 넘어 새로운 경쟁력으로'

인터넷 자료

- 인천시 연구구청 www.yeonsu.go.kr/
- 극지연구소 www.kopri.re.kr/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www.ifez.go.kr/

3-6

저어새 구하기

지리|역사|생태

체험코스

① 원인재 → ② 승기천 → ③ 남동유수지 → ④ 저어새섬
→ ⑤ 인천평생학습관

전체 거리 3.7km(1시간)
구간별 거리 원인재역(원인재)~승기천~남동유수지 (2.5km / 40분)
남동유수지~저어새관찰대 (400m / 5분)
저어새관찰대~인천평생학습관 (750m / 15분)

교육과정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과학 2. 생물과 환경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도덕 6.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2.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키워드

#인천의 생태 #인천의 환경 # 저어새



① 원인재

② 승기천

⑤ 인천평생학습관

동막교

저어새 탐조지역

③ 남동유수지, ④ 저어새섬

범례

- 답사지점
- 답사경로
- 구

3-6

저어새 구하기

- 원인재 탄생 이야기
- 남동유수지의 저어새 이야기



남동유수지의 멸종위기종 저어새 서식지, '저어새섬' 보호 작전!

우리나라 최대 저어새 서식지, 남동유수지의 저어새섬을 알고 있니?

몸길이 75cm, 몸은 하얀색, 부리와 다리는 검은색, 부리는 주걱 모양. 이 부리를 얇은 물속에 넣고 좌우로 휘휘 저으면 서 먹이를 찾는 습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 저어새. 그러나 저어새는 동아시아에만 서식하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현재 개체 수가 약 4천마리에 불과한데 그중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저어새는 갯벌에 살아가는 다른 생물을 보호하고, 갯벌을 건강하게 만들어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종으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에서는 갯벌 생태계의 건강성을 대표하는 저어새를 복원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저어새의 수가 줄어든 이유는 갯벌 매립으로 인한 서식지 감소, 질병 등 여러 요인과 더불어 살충제(DDT)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제라도 환경 파괴라는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인천 남동유수지의 저어새섬에 저어새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인천의 생태 보호에 힘쓰도록 해야겠다.

첫 번째 만남

원인재

왕이 되려다 실패한
인주 이씨 이자겸



▲ 원인재 전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지하철 1호선 원인재역 앞에 이허겸의 묘와 재실이 있다. 이허겸은 인천을 대표하는 성씨 중 하나인 인주 이씨의 시조이다. 인주는 고려 시대 인천의 지명이다. 바다와 근접해 '물'의 의미가 담긴 비류의 미추홀과 매소홀로부터 '도읍'이었던 의미가 담긴 소성현, 고려 '왕실'과 관련됐던 경원군, 인주, 그리고 조선 태종 13년에 인천(군)으로 개칭되었다. 특히 신라때 소성현으로 불리던 인천이 고려 숙종대에 '경원군'으로 개칭된 것은 숙종의 어머니인 인예태후 이씨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인예태후는 인천지역 호족으로 중앙에서 활동했던 인주 이씨 이자연의 맏딸로서 문종의 왕비가 됐는데 문종과의 사이에서 10왕자와 4공주를 낳았다. 숙종은 그 어머니의 고향이 경사의 근원이라고 해 경사 경(慶)과 근원 원(源)을 써서 경원군으로 승격, 개칭했다. 또 숙종의 손자인 인종 역시 그 어머니의 고향인 인천을 군(郡)에서 주(州)로 승격시키고 명칭을 인주로 변경했다. 인천지역의 호족이었던 인주 이씨는 고려 시대에 중앙귀족으로 활동하면서 이허겸의 손자인 이자연 때에 세 딸이 모두 문종비가 되자 왕실의 외척으로 등장해 적어도 인종때까지 인주 이씨는 왕권에 비견될만한 당대 최고의 문벌 귀족으로 남아 있었다. 인주 이씨는 연이어 왕비를 배출하며 고려 제일의 명문 귀족으로 성장한 가문이다. 그런 탓에 인천은 한때 왕비의 고향으로 이름을 알리며 '7대 어향'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인주 이씨는 왕권조차 자기들 마음대로 농락하려다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으니 왕권을 찬탈하려는 음모를 꾸민 이가 바로 이자연의 손자 이자겸*이었다.

이허겸의 묘가 있는 곳은 본래 간치도라는 이름의 작은 섬이었다.

지금은 주변을 매립해 아파트가 들어섰고 근처에 공원이 조성되었다. 간치도는 까치섬이라고 부르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 마치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연화부수지라고 불려왔다. 이허겸 묘 앞에서는 재실인 원인재가 있다. 언제 세운 건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래 인근 신지 마을에 있던 것을 택지개발로 인해 지금의 위치로 옮긴 것이다. 이허겸의 묘를 여기에 쓰고부터 인주 이씨 집안에 왕후, 재상, 학자, 충신, 효자 등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어 사람들은 이곳을 천하 제일의 명당으로 여겨 왔다.

<이자겸과 영광굴비> 이자겸은 고려 인종 4년에 일어난 '이자겸의 난'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둘째 딸이 예종의 후궁으로 들어가 인종을 낳았고 예종이 병으로 죽어 어린 나이의 인종이 즉위하자 다른 두 딸을 인종과 결혼시키면서 이자겸은 왕의 외조부이자 장인이 되며 정권을 장악해갔다. 참지 못한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실을 안 이자겸이 오히려 반격을 가해 궁궐을 함락하며 불태웠다. 인종은 자신의 외조부를 차마 처형할 수 없어 전라남도 영광으로 유배를 보냈다. 유배지에 도착한 이자겸이 바닷가에서 조기를 말리는 풍경을 보고 하나 얻어서 먹어 보았더니 맛이 일품이었다. 이자겸은 이 생선을 왕에게 진상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진상품을 올린다는 말을 듣기가 싫어 '비겁하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굴할 굴(屈)자와 아닐 비(非)자를 써서 생선과 함께 올려 보냈다. 이자겸이 올린 생선 맛을 본 인종은 크게 감탄하며 매년 영광굴비를 진상해 올리라는 명을 내렸고 이때부터 영광굴비는 왕에게 진상하던 생선이라 하여 유명해졌다고 한다. 이자겸은 영광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병에 걸려 사망하였다.

두 번째 만 남

승기천

인천 산에서 시작해
인천 바다로 나가는 하천

승기천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수봉산에서 발원하여 연수구 동춘동 남동공단 유수지에서 황해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1970년대 무렵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밀집으로 복개된 승기천은 다른 지방하천들과 달리 발원지가 완전히 유실됐다. 하천의 상류부가 복개되어 주민과 호흡하지 못하고 하수도 시설로만 활용, 엄청난 퇴적토와 정비되지 않은 하천단면, 완만한 경사 등으로 인한 홍수의 위험, 하천의 오염과 악취의 문제로 인하여 위치적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쉬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승기천 하류(구월동~남동 유수지)는 지난 2008년 '도심지에 철새가 날아드는 하천'을 테마로 복원됐다. 자연에 승화시켜 하천을 가로질러 주민들이 편히 이동할 수 있는 목교를 설치하였으며 보행자가 자연환경을 바라보며 활동할 수 있도록 경관을 조성하였다. 하천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식생과 여울을 조성하고,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수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승기천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서는 상류의 발원지로부터 바다로 이어지는 하류에



▲ 승기천

세 번째 만 남

남동유수지

우리나라 최대
저어새의 서식지



● 남동유수지

유수지는 호우로 늘어난 홍수량을 조정할 후 하수관으로 내보내 침수를 방지하고, 배수펌프장 시설용량과 배수로 통수량의 차이가 나는 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집중호우 시 남동공단을 비롯해 남동·연수·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1988년에 조성되었다. 그러나 악취 발생으로 기피 시설이 되어가는 유수지가 본연의 목적인 방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퇴적토를 준설하고 배수펌프를 증설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주변을 친화공간으로 꾸미고자 인천시에서는 '원도심 내 유수지 관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남동유수지를 준설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남동유수지를 대대적으로 준설할 경우 야생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특히 저어새의 경우 번식활동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낳고 있다. 남동유수지에는 매년 3월 저어새 400~500개체가 번식을 위해 찾는 지역이다. 비영리단체인 '저어새와 친구들'은 상시적으로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 번째 만남

저어새섬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천연기념물의 보금자리

저어새*는 지구상에 5,200여 마리(우리나라 서해안 3,690여 마리) 정도 남은 멸종위기종 1급으로, 196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는 등 3개의 타이틀을 가진 매우 귀한 조류이며, 환경지표종이다. 이들이 환경지표종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저어새가 없어졌다는 것은 생태계가 교란되어 자연의 일부인 인간도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말이다. 저어새가 살기 위해서는 부리를 마음껏 저을 수 있는 갯벌이나 습지가 많아야 한다. 언제부턴가 갈 곳 없는 저어새들이 남동유수지의 인공섬에 날아와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기 시작해서 2009년부터 저어새 동지가 관찰되었다. 4개 동지에서 저어새 새끼 6마리가 번식에 성공했고, 2017년까지 지속적인 보호활동으로 230마리까지 번식에 성공했다. 공장지대를 끼고 있어 수질이 나쁜데도 동지를 틀었다. 그러나 너구리가 인공섬으로 헤엄을 치고 건너와 알을 깨먹기 시작하면서 2017년 200여 마리의 저어새가 껍질을 깨고 세상에 나왔지만 2019년 너구리의 침입으로 살아남은 저어새는 15



▲ 저어새섬의 모습

마리에 불과했다. 급기야 2020년 인천시에서 번식지 주변에 전기 철책을 설치해 너구리의 접근을 막았지만, 저어새가 유수지 내 2개의 인공섬 중 1개의 섬에서만 번식을 하는 ‘미스터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람사르 사무국은 2014년 7월 남동유수지 인근의 송도 갯벌 습지보호지역을 국내 19번째 람사르 습지로 지정했다. 람사르 습지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자생지로 보전 가치가 있거나 희귀하고 독특한 유형의 습지를 대상

<저어새 이야기> 저어새는 특이하게 생긴 넓적한 부리를 좌우로 저어서 먹이를 찾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영어 이름은 'Black-faced Spoonbill', '검은 얼굴에 숟가락 모양의 부리를 가진 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들의 부리는 뾰족하게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소 익살스러운 모습을 지닌 새가 바로 저어새이다. 저어새는 냇가나 저수지에서 작은 물고기나 조개들을 잡아먹는다. 주걱처럼 생긴 검고 커다란 부리가 달려있고, 온몸이 새하얀 털로 덮여있다. 평상시에 보여주는 이 흰 털은 번식기인 3~5월에는 땀기 깃이 노란 감귤색으로 변한다. 번식은 4~6개 정도의 알을 낳아 부화시킨다. 저어새는 1900년대 초반에 1만 마리까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등 인간이 일으킨 환경파괴로 인해 1960년대에는 300마리 정도로 개체수가 급감했다고 한다. 과거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었던 이유 중에는 생태계 교란으로 천적의 습격이 많았던 것도 있지만, 주로 사람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서식지 파괴가 주된 이유다. 특히,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새 동지에서 알을 훔쳐 먹었던 이유도 있었다고 한다.



▲ 저어새 모습

다섯 번째 만남

인천평생학습관

배움에 대한 열정을 디자인하는 곳



▲ 인천평생학습관 모습

인천평생학습관은 2008년 2월에 설치되었으며 인천광역시의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직속기관이다. 온라인 프로그램, 마을교육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학부모 교육, 교직원 프로그램, 재능기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다. 특히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직업 체험, 기관 연계 직업 체험, 찾아가는 진로 교육, 특수교육 대상 진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인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인천 바로 알기, 영화로 배우보는 동아시아 이야기, 스마트 스토어로 창업하기 등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무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캘리그래피 한글담 작가회, 실버 영상 제작 모임인 매소홀 동우회, 한국어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동네 한국어 동아리 등 25개의 평생학습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언택트 전시회, 인천시 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집으로 보내주는 행사, 가족 독서텔레이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집콕생활 등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시설로는 어린이 자료실, 레크레이션실, 전통 문화실, 건강 강의실, 갤러리 나무, 갤러리 다솜, 인천대안교육 지원센터, 디지털 자료실, 컴퓨터실, 바리스타실, 요리실, 제과제빵실, 미추홀 공연장 등이 있다.

01 [저어새 구하기]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저어새, 너는 누구냐?’

1)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서 가까운 장래에 위기에 처한 동·식물들, 전 세계적으로 3000여마리 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야생 동·식물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ㅁ	ㅂ	ㅇ	ㄱ	ㅅ
---	---	---	---	---

2) 지금은 인천의 남동 이 곳이 저어새의 번식지로 유명해졌으며 평지나 넓은 강물에서 일시적으로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한 곳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ㅇ	ㅅ	ㅅ
---	---	---

3) 몸 전체가 까맣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까마귀, 매암매암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매미, 그렇다면 저어새는 왜 이름이 저어새일까요?

02 [저어새 구하기] 저어새의 마음을 담은 엽서 쓰기

POST CARD

TO. 인간 세상에 바랍니다!

자유롭게 저어새와 관련한 그림을 그려주세요. FROM 남동유수지의 저어새 드림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단원**
- (초등학교_5학년_2학기_과학) 생물과 환경
 - (초등학교_6학년_2학기_도덕)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 (초등학교_6학년_2학기_사회)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 **활동목표**
- 환경오염의 원인을 알고 환경오염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깊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
 - 지속 가능한 미래 건설하고자 해결해야 할 과제를 조사할 수 있다.

- **학습활동**
- **활동1 : 인천의 지명의 유래**
 - 원인재라 이름이 붙여진 과정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서 UCC 만들기
 - 인천의 다른 지명의 유래를 조사하기
 - 인천의 향토음식(짜장면, 쫄면, 화평냉면 등)의 유래 조사하기
 - **활동2 : 저어새 관련 체험활동**
 - 저어새 4컷 만화 그리기
 - 저어새 뱃지 만들기
 - 저어새가 남동유수지까지 오게 된 과정에 관한 역할극 하기

생각해 볼 거리

1. 2019년 너구리의 공격으로 남동유수지의 저어새들이 번식에 실패하였는데, 남동유수지에 저어새들이 많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해봅시다.
2. 남동유수지 내의 식물들 사진을 찍어보고 검색엔진을 통해 식물의 이름과 특징을 조사하여 나만의 남동유수지 식물도감을 만들어봅시다.
3. 유튜브에서 'TV동물농장' 783회, 저어새 '둥지'의 홀로서기 프로젝트 동영상을 찾아서 감상한 후 우리가 저어새를 보호해야 하는 까닭에 대하여 친구들과 토론해봅시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서울·경기·인천 문화유산 이야기여행(2013)
- 「도시에 저어새섬이 있어요」, 남선정, 비룡소(2017)
- 갯벌과 물떼새, 인천환경운동연합 소식지 240호(2015)

인터넷 자료

- 인천투데이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356>(2020.01.02.)
- 인천투데이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746>(2020.02.19.)
- 경인일보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00701010000272> (2020.07.02.)
- 경인일보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00709010002036> (2020.07.10.)
-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notice/39340/>
- 세계자연기금 <http://www.wwfkorea.or.kr/?228970/spoonbill>
- LG사이언스랜드 <http://lg-sl.net/product/scilab/sciencestorylist/HHSC/readSciencestoryList.mvc?sciencestoryListId=HHSC2017050002>

PART 04

강화군

4-1 강화의 역사와 문화

4-2 석도모의 지형과 간척사

4-3 교동의 역사

4-1

강화의 역사와 문화 역사|지리

체험코스

① 고비고개 → ② 혈구산 → ③ 고비고개 → (버스) → ④ 강화고인돌공원 → ⑤ 대명현 → ⑥ 소창체험관 → ⑦ 조양방직 → ⑧ 강화향교 → ⑨ 강화산성(북문) → ⑩ 외규장각 → ⑪ 고려궁지 → ⑫ 대한성공회강화성당 → ⑬ 용흥궁

전체 거리 8.9km(4시간)
구간별 거리
고비고개~혈구산정상표지석 (2.3km / 1시간 20분)
혈구산~고비고개 (2.1km / 40분)
고비고개~강화고인돌공원 (버시아동 / 20분)
강화고인돌박물관~대명현 (버시아동 / 20분)
대명현~소창체험관 (300m / 5분)
소창체험관~조양방직 (570m / 10분)
조양방직~강화향교 (800m / 15분)
강화향교~강화산성(북문) (1.3km / 25분)
강화산성(북문)~외규장각 (770m / 15분)
외규장각~고려궁지 (120m / 2분)
고려궁지~대한성공회강화성당 (500m / 12분)
대한성공회강화성당~용흥궁 (100m / 2분)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1. 우리민족의 형성
고등학교 한국사 2. 문벌귀족사회의 동요와 무신정권의 성립
고등학교 한국사 3.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 정비
고등학교 한국사 4.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대응
고등학교 한국사 5. 3.1운동 이후의 국내 민족 운동

키워드

#강화도 문화재 #강화도 고인돌 #강화도 조선시대
#강화도 고려시대



범례

- 답사지점
- 답사경로
- 구

4-1

강화의 역사와 문화

- 간추린 강화 역사
- 강화의 역사 문화유산



강화 - 우리나라 역사의 축소판, 지붕 없는 박물관

우리나라 전 시대의 역사를 간직한 지붕없는 박물관 - 강화도

강화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지리상으로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과 조선 및 대한민국의 수도인 한양(서울)과 가까우며, 양 지역의 주요 하천인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의 바다 쪽 출구를 막는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우선 몽골 군에 항전하던 고려 무신정권이 수도(강도, 江都)로 삼았던 역사가 있고, 조선 인조가 즉위하던 시절 병자호란이 발발하여 청나라 군대를 피해 강화도로 도피하려다 실패한 적도 있다. 이때 봉림대군 등이 인질이 되었는데, 인조로서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과 같았으며 결국 얼마 못가서 남한산성에서 항복한다. 왜란·호란 이후에는 강화유수부로 지정, 한양의 외곽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 중 하나였다. 조선시대에는 강화도의 중요성이 '나라의 심장'과 같다고 하여 강화도를 '심도(沁都)'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또한 강화도는 유배지의 상징이었다. 살려두기는 위험하지만 죽이기에겐 정치적 부담이 많은 인물들을 유배를 보낼 때 강화도로 보낸 일이 많았다. 연산군, 임해군, 영창대군, 광해군, 철종 등이 이곳에 유배되었다. 광해군은 형인 임해군과 동생인 영창대군을 여기에 유배시켰다가 자신도 인조반정으로 여기에 유배되었으니 인생사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근현대에 와서도 병인박해로 인해 프랑스가 침공해 와서 벌어진 병인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인해 미국이 강화도를 침공하는 신미양요가 발생했고,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 등 일이 많다. 강화도의 역사를 공부하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절반을 먹고 들어간다는 농담이 존재할 정도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사의 축소판, 강화도를 만나 보자.

첫 번째 만남

혈구산

강화 옛 지명을 간직하며
중심지에 우뚝 솟은 산



● 혈구산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양도면, 내가면에 걸쳐 있는 산(466m)이다. 예전에는 혈굴산, 설구산, 열구산이라고도 하였다. 강화도 중앙부에 위치한 산으로, 높이에 비해 산세가 험차며 험준하다. 고비고개를 사이에 두고 고려산(436m)과 남북으로 이어져 있다. 상고시대에는 강화도의 주산(主山)이며 상징이었다. 산 이름은 강화군의 옛 이름인 혈구군(475, 고구려 장수왕)에서 나왔거나, 문헌상에 혈구진(844, 통일신라 문성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오래된 성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1832년 발간된 옛 자료에 의하면 “혈구산(강도 6대산의 하나)은 옛날 열구(洑口)라 했으니, 굳건하게 강도의 중앙에 있어 웅장하고, 빼어나게 높으며, 심오하게 깊어 산봉우리와 동천(洞天, 계곡)이 많으니 옛 절의 모든 터를 손꼽기는 힘들다. 서쪽 산기슭에 큰 석굴이 있는데, 인공으로 파놓은 것같이 아주 정밀하고 깨끗하다”고 언급되어 있어 산세를 알 수 있다. 산이 섬 중앙에 위치한 탓에 정상에 서면 섬 전망이 매우 좋은데, 동쪽으로 강화 시내와 강화대교, 문수산성, 남쪽으로 마니산 주능선, 서쪽으로 내가 저수지와 외포리·석모도·교동도 등 주변 섬들, 북쪽으로는 강화도 북쪽에 위치한 여러 산이 보인다. 골짜기가 많아 예전에는 절이 매우 많았다고 하며, 수령 30년 이상의 상수리나무 군락이 흔하다. 고비고개부터 정상까지의 능선에는 4개 봉우리가 있는데 네 번째 봉우리가 정상이다.

1 강화 6대 산은 혈구산(466m)을 비롯하여 마니산(469.4m), 진강산(443m), 고려산(436m), 별립산(420m), 해명산(327m, 삼산면 소재)을 말한다.

두 번 째 만 남

**강화
고인돌공원**

세계문화유산을 정비하여
홍보하기 위한 곳



▲ 강화 고인돌공원

강화 고인돌공원은 고려산 북쪽 봉우리인 시루미산 끝자락 부근 능선인 하점면 부근리에 위치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북방식(혹은 탁자식) 고인돌인 강화 부근리 고인돌(사적 137호)을 중심으로 76,000㎡의 부지에 조성한 공원이다. 특히, 2000년에는 강화를 비롯하여 전북 고창, 전남 화순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으며, 강화 고인돌은 북방식과 남방식(혹은 바둑판식)이 섞여 있고, 고려산 자락을 중심으로 한 고지대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매우 높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70여 기의 고인돌 중 강화 부근리 고인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탁자식 고인돌이다. 52톤 가량의 덮개돌을 두 기의 받침돌이 받치고 있다. 주변에는 덮개돌 및 받침돌의 일부가 분포하고 있어 이곳이 청동기 문화권이었음을 보여준다.

고인돌은 일명 지석묘라고 부르는데, 고임돌[꺾돌, 지석]로 큰 덮개돌[蓋石]을 받쳤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유럽에서도 영국·프랑스·네덜란드·스칸디나비아 반도 등지에 분포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책상 모양의 돌’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돌멘(Dolmen)이라 한다. 이웃 중국에서도

요동반도, 산둥반도와 절강성·사천성 등지에 약간 분포되어 있는데, 중국어로는 돌멘을 직역하여 ‘석봉(石棚)’이라 한다. 전국 각지에서 무려 2만여 기가 넘게 발견되고 있어 그 숫자 면에서는 세계 제일일 것이다. 강화에서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고려산 주위의 강화읍,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내가면 등 1개 읍 4개면에서 무려 100여 기에 가까운 고인돌이 발견·조사·확인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도 40여 기가 발



▲ 강화 고인돌공원 모습

견·확인되어, 지금까지 알려진 고인돌은 대략 160여 기 정도이다. 이 가운데 약 2/3가 북방식 고인돌로, 약 1/3이 남방식 고인돌로 확인되었고, 고인돌의 석재들이 매몰되거나 형체를 알 수 없는 것들도 더러 있다. 특히 강화에 상당수의 남방식이 북방식과 함께 혼재하여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되었다. 북방식은 땅 위에 4개의 판석으로 된 고임돌(지석)을 세우고 그 위에 덮개돌을 덮는 형식이다. 남방식은 대체로 땅 아래에 무덤방을 만들고 땅 표면에 다른 돌덩이나 자갈돌을 깔 뒤 그 위에 덮개돌을 얹은 형식이다. 또 남방식에는 땅 아래에 아무런 시설이 없이 개석만을 올려놓은 개석식 고인돌도 있다.

공원일대에는 강화의 역사와 자연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박물관을 세웠다. 2010년에 문을 연 강화역사박물관은 상설 및 기획전실에서 강화고인돌을 비롯한 강화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2015년에 문을 연 강화자연사박물관에서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속한 태양계의 탄생에서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광물, 생물들을 각각의 특별한 주제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세 번 째 만 남

대명헌
(김구선생 피신처)
더 나은 세상 위해
노력한 이를 품은 곳

대명헌은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남문안길 7번지에 있으며, 김구선생이 청년 시절 항일운동을 하다가 인천감리서에 투옥되었을 당시 탈옥을 도운 김주경의 집이며, 1928년 황국헌이 폐허가 된 가옥을 그 터에 새로 지은 집이다. 대명헌이란 집 이름(당호)은 현재 집주인이신 최성숙선생님께서 지었다고 한다. 이 집은 백범 김구선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범 김구선생(구명 김창수)은 1896년 황해도 치하포에서 칼을 차고 조선인 행세를 하던 일본인

쓰치다 조스케를 을미사변 공범으로 적시하고 처형하였다(김구 나이 21세). 그 뒤 3개월 만에 체포되어 해주옥(獄)으로 압송되었다. 얼마 후 인천감리서로 옮겨졌다(21세, 1896년). 김구선생의 의로운 행동에 반한 강화도 부자 김주경이 모든 재산을 털어 그의 구명운동을 펼쳤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탈옥을 권유하는 시를 김구선생에게 보냈고 그 시가 계기가 되어 김구선생이 탈옥을 감행했다고 한다. 인천 감옥생활 1년 8개월 만이었다(23세, 1898년 3월).



▲ 대명헌 모습

김주경이 김구에게 탈옥을 권하는 시
 조롱을 박차고 나가야 진실로 좋은 새이며 (脫籠真好鳥, 탈룡진호조)
 그물을 떨치고 나가야 물고기가 아니리 (拔扈豈常鱗, 발호기상린)
 충은 반드시 효에서 비롯되니 (求忠必於孝, 구충필어효)
 그대여, 자식 기다리는 어머니를 생각하소서
 (請看依閨人, 청간의려인)

김구는 감사의 표시와 함께 ‘한 때 구차스럽게 살기위해 생명보다 중한 광명을 버릴 순 없으니 과히 우려하지 말라’는 답장을 보냈고, 여러 생각 끝에 쇠창을 이용하여 감옥소내의 장기수 몇 명과 함께 감옥을 탈옥하였다. 걸인 행색으로 간신히 서울로 온 김구는 곧 삼남지방으로 도피 겸 방랑길에 나선다. 한 때는 공주 마곡사에서 원종(圓宗)이란 법명을 받고 승려 생활을 하다가 이듬해 가을 부모를 만나 환속한다. 어느 날 문득 강화도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김두래(金斗來)라 이름을 고치고 강화성의 남문 안 김주경의 집을 찾았다(25세, 1900년 2월).

그러나 김주경은 김구선생이 강화에 오기 전 블라디보스톡으로 독립운동을 하러 갔다가 행방불명되어 만나지 못하자 김주경의 동생 김진경을 도와 강화도에서 3개월간 머물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고 한다. 김구는 그 집 사랑방에서 김주경의 7세 아들(김윤택)을 비롯해 30여 명의 아동들에게 ‘동몽선습(童蒙先習)’, ‘사략(史略)’, ‘천자(千字)’를

심혈을 다해 가르쳤다. 이 때 김구는 김주경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자신을 감옥에서 구해내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과 김주경은 이를 위해 가산까지 모두 탕진한 후 나중에는 피신까지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때 만난 김주경의 친구인 유완무의 권유로 ‘김창수’에서 지금의 이름 ‘김구’로 개명을 하였다고 한다. 이후 김구는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하는 중 김주경이 강화를 떠난 뒤 10여 년 동안 붓 행상을 하여 거금을 벌였으나 객

사하였고, 그의 동생 김진경도 전라도에서 객사하였다는 말을 듣게 된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김구는 만세운동에 참여하라는 주위의 권유에 “독립은 만세만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장래 일을 계획, 진행해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상해로 망명의 길에 오른다(44세). 중국에서



▲ 1946년 11월 다시 강화도를 찾은 김구가 김주경의 집에서 찍은 기념사진. 이 집 대들보에 ‘1928년 7월 14일’이란 글자가 있어 ‘1928 가옥’이라고도 불리며, 현재는 한쪽이 카페로 사용되고 있다.

의 임시정부시절에도 김구는 국내 소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김주경의 유족을 탐문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소식은 얻지 못하였다. ‘고국을 떠난 지 27년 만에 기쁨과 슬픔이 뒤엉킨 심정’으로 김포공항 땅을 밟은 김구는 서울 경교장에 짐을 푼 즉시 윤봉길, 이봉창, 김주경의 후손을 찾는 신문 보도를 냈다. 얼마 되지 않아 윤봉길의 자제와 이봉창의 질녀(조카딸)는 만났다. 하지만 김주경의 아들 김윤택은 이복에 있어 오지 못하고, 그 친딸과 친척 등만 강화, 김포에서 찾아와 만났다(70세, 1945년 11월).

이후 김구는 전국 지방순회에 나서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각처를 다니다 다시 한번 강화도의 김주경 집을 방문하여 환영하는 친척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합일학교운동장에서 개최한 환영식에 참석, 강연을 하였다(71세, 1946년 11월).

네 번 째 만 남

소창체험관

강화의 식물 역사를 품은 ‘핫 플레이스’

소창체험관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 20번길 8에 있으며, 강화도 식물 산업의 역사를 한눈에 보고, 소창을 이용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다. 1956년에 문을 열어 강화 식물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던 평화직물을 매입, 리모델링해 2017년 12월 개관한 체험관이다. 소창은 목화솜에서 뽑아낸 실을 이용해 만든 천(면직물)이다. 일회용 기저귀가 나오기 전에 사용한 천 기저귀가 소창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소창은 무슨 뜻일까? 소창의 뜻은 정확히 나와 있는 곳이 없다. 국립민속박물관이 펴낸 『강화의 식물, 소창』에 따르면 소창이 일본의 고쿠라오리(小倉織)에서 파생된 것이라 한다. 소창체험관은 소창전시관과 소창체험관, 차 체험을 즐길 수 있는 1938 한옥, 소창 제작 과정

을 직접 보여주는 직조시연관 등으로 구성된다. 외부에는 소창의 원료인 목화를 담장 따라 심었고, 하얀 목화솜 조형물이 보인다. 소창체험관에서는 스탬프를 찍어 손수건을 만드는 체험을 무료로 진행한다. 1938년에 건축된 한옥에서는 차 체험을 진행한다. 소창체험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11~3월은 오후 5시) 운영하며, 월요일은 휴무일이다.



▲ 소창체험관 모습

다섯 번째 만남

조양방직

강화 직물 역사를 품고
재탄생



▲ 조양방직 모습

조양방직은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587에 위치하며, 현재는 건축 재생을 통해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1937년 강화도 지주인 홍재묵·홍재용 형제가 민족자본으로 처음 설립한 방직공장이다. 설립 당시 125,000원(현 시가 60억 원 내외)의 자본금으로 시작하였으며 700여 평의 2층 건물과 50여 대의 직조기를 갖추고 인견과 마직물 염색을 주로 하였다. 그러나 설립 이후 착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공장 가동 후 1년여가 되는 1939년에 큰 화재가 나서 소실되고 말았고 피해액은 40만원(200억 원 내외)에 달했다고 한다. 설립 초기에 사장은 형인 홍재묵이 맡고 일본에서 대학을 나온 동생 홍재용이 부사장을 맡아 운영하였다. 하지만 1942년 미쓰비시 산업에서 일하던 이세현에게 공장을 매각하였으며, 이세현은 아들 이현일과 함께 조양방직을 운영하다가 6·25을 거쳐 1958년에 폐업한다. 조양방직은 강화의 직물업체 중 비교적 규모가 큰 편에 속했다. 그렇지만 다른 직물업체에 비해 단명했는데 이는 자본 구성(홍씨 형제와 평북 정주의 이정근)이 복잡하였고 더불어 초기 화재로 인해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6.25 전쟁 기간 동안 일민주의 청년동지회 등 우익의 본거지처럼 활용되는 등 전쟁의 여파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조양방직이 생기면서 강화도에 전기와 전화 시설이 들어왔으니, 그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다. 이 회사로 인해 강화도가 섬유산업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조양방직은 단무지 공장, 젓갈 공장을 거치며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2017년 조양방직이 새 주인을 만나 1년 남짓 보수공사를 거쳐 카페로 다시 태어났다. 보수공사를 했다지만 회

색빛 시멘트 건물 외관은 그대로 살렸고, 방직기계가 있던 기다란 작업대는 자연스럽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테이블이 됐다. 테이블이 얼마나 긴지 음료를 주문한 뒤 받는 진동 벨이 어느 지점부터 울리지 않는다. 지붕 트러스에 설치된 창이 인상적이다. 트러스 면마다 창이 설치돼 조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빛을 받아들인다. 희색빛 음울한 분위기를 바꿔주는 대표적인 요소다. 내부는 빈티지한 분위기에 예술 작품을 더해 '인생 사진'을 찍으려는 여행객의 발길이 이어진다. 주말에는 대기하는 줄이 길다. 조양방직 제2의 전성기는 거침이 없다. 2013년 TV 드라마 '백 년의 유산'에서 조양방직 사무실이 옛날 국숫집으로 나오며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조양방직 카페의 영업시간은 오전 11시~오후 9시(주말·공휴일은 오후 10시)다.

여섯 번째 만남

강화향교

고려, 조선의
강화 중등교육기관

향교는 일반적으로 고려, 조선시대에 수도를 제외한 지방에서 유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 오늘날 중,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강화향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창리 938-2번지에 있으며, 1995년 11월 14일 인천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강화향교는 1127년(인종 5) 각 고을에 학교를 세워 널리 교육에 진력하라는 유시에 따라 비롯되었다. 이때 강화향교는 고려산 남쪽 고비(古邑, 현재 내가면 고천리)에 자리 잡았다고 한다. 그 후 고종이 몽골 침입으로 천도하여 묵동(墨洞, 맥절)으로 옮겼다가 다시 서도면 불음도로 옮겼다. 1624년(인조 2) 당시 강화유수였던 심열(沈悅)이 소동문(小東門) 밖 송악산 기슭에 세웠다고 하는데, 현재 강화중학교 자리로 추정된다. 1629년(인조 7)에는 유수 이안눌(李安訥)이 명륜



▲ 강화향교 전경

당을 세워 학교로 승격시켜 학궁(學宮)이라 칭했다. 1673년(현종 14)에는 유수 민시중(閔蓍重)이 남산골로 옮겼다. 이처럼 강화향교는 여러 번에 걸쳐 이전하였는데, 1731년 유수 유척기(兪拓基)가 향교의 존엄을 위하여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강화향교의 건물은 대성전(大成殿)·명륜당(明倫堂)·안연재(安燕齋)·제기고 등이 있으며, 1998년에는 동무와 서무, 내삼문과 외삼문을 복원하였다. 그중 핵심적 기능을 하는 곳인 대성전은 여러 성현의 위패를 배향(配享)하였고, 불과

가을에 제사(석전례:釋奠禮)를 거행하는 건축물이다. 명륜당은 향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던 강당으로 오늘날의 교실에 해당한다. 조선 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노비·책 등을 지원받아 제사와 교육의 기능을 담당했으나, 현재 교육 기능은 사라지고 지금은 제사의 기능만 남아 있다. 한편 강화향교 앞에는 4기의 비가 있는데, <유수이공안눌 창건명륜당비(留守李公安訥創建明倫堂碑)>는 규모가 높이 197cm, 폭 87cm, 두께 22cm로 1635년(인조 12)에 건립되었다. <유수이공용희중수문묘기적비(留守李公用熙重修文廟紀蹟碑)>는 높이 116cm, 폭이 45cm, 두께 22cm로 조성되었다. 다른 2기는 하마비(下馬碑)로 모두 반토막 난 상태이다. 그 중 하나에는 전면에 “하마비”와 후면에 “공기이오삼칠병인팔월건립(孔紀二五三七丙寅八月建立)”(1986년)이라고 쓰여 있다.

일곱 번째 만남

강화산성

몽골의 침략에 대비하며 축조했던 고려시대 산성

강화군 강화읍 관창리에 있는 강화산성 내성의 4대문 중 북쪽에 있는 문이며, 문루의 이름은 진송루(鎭松樓)이다. 북문은 고려 고종 19년(1232년)에 당시 집권자인 최우가 강화로 천도한 뒤 대몽항쟁을 위하여 흙으로 쌓은 강화산성 내성에 연결 되었던 문이다. 내성의 둘레는 7122m, 높이는 3m 내외이고 너비는 4m 내외이며, 성곽의 높이는 1m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성 축조에 대해서는 강화에 궁궐을 짓기 시작하는 1232년을 전후하여 동시에 축조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1259년에 몽골의 요구에 의해서 모두 헐리게 되었다. 당시 백성들은 성을 쌓고 허무는 고통을 이길 수가 없었으나 몽골 측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였다. 이것은 몽골이 고려의 저항 근거지를 없앤 것이다. 조선 숙종 3년(1677)에 강화유수 허질이 전면을 돌로 쌓고, 후면은

흙으로 개축 확장하기 시작하여 숙종 37년(1711년)에 강화유수 민진원이 34년 만에 강화산성을 완성하였는데 당시 북문에는 누각이 없었으나, 정조 7년(1783년)에 강화유수 김노진이 누각을 세우고 진송루라고 하였다. 그 뒤 북문 누각은 헐려서 석축만 남아 있던 것을 1976년 강화 중요 국방유적복원정화사업으로 현재와 같이 복원하였다. 북문 누각 안쪽에는 진송루라고 쓴 현판이 걸려있다. 현판의 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 것으로 보아 1976년에 새로 만든 것으로 추



▲ 강화산성 북문(진송루) 전경

정된다. 고개에 세워진 문으로 문 앞이 움푹 들어간 형태이기에 북쪽에서 침입하는 적을 공격하기에 알맞게 되어있다. 북문 양쪽으로 성벽이 남아 있다. 고려궁지 입구에서 왼쪽으로 고려궁지 담을 끼고 시멘트 포장된 산을 약 650m 오르면 된다.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여덟 번째 만남

외규장각

강화도의 왕실 서적 도서관

외규장각은 1782년 2월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규장각이다. 정조는 외규장각이 설치되자 원래의 규장각을 내규장각(內奎章閣, 내각)이라 하고, 각각의 규장각에 서적을 나누어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후 병인양요(1866년) 당시, 강화도에 상륙한 프랑스 극동함대사령관 로즈 제독이 규장각을 불태워 전각이 소실되었다. 이 결과 5,000권 이상의 책이 소실되었고, 의궤(儀軌)를 비롯한 340권의 책과 문서 및 은폐 수 천 냥이 약탈되었다. 당시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의궤 297권은 현재 파리 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현재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 건물은 강화군에서 2003년에 복원한 건축물이다. 현재는 전시관으로 쓰이고 있다. 외규장각 도서(外奎章閣圖書)는 외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던 서적으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1993년 TGV의 대한민국 고속철도 수주를 위해 방한하면서, 《회경원원소도감의궤》상 1권을 반환하며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의 전체 반환을 약속했지만,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이후 2010년 11월,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열린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와 정상 회담 이후 외규장각 도서를 5년마다 갱신 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2011년 5월 환수가 완료되어, 7월부터 그 중 일부를 국립중앙박물관을 통해 공개하였다. 그러나 환수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대여 방식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미완

의 환수라는 점이 분명하다. 조선 왕실 의궤는 국립박물관의 수장고에 보관되지만, 그 소유권은 실제 프랑스가 갖고 있다.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조선의 상징적 문화재인 의궤를 우리의 문화재로 등록할 수도 없다. 전시나 연구 등을 위해 의궤를 다른 기관에 대여하는 것 등도 프랑스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할 판이다. 결국에 제국주의에 약탈당한 문화재의 대표 격인 외규장각 의궤를 이 땅으로 가져오는 데는 성공했으나, 남은 과제 또한 엄존하는 셈이다. 외규장각 도서의 온전한 환수



▲ 외규장각 전경

를 위해선 소유권을 한국정부가 가질 수 있는 추가적 조치와 협상이 요구된다. 조선왕조 의례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이미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꽃이다. 조선왕조 내내 의례는 꾸준히 제작되어 예(禮)를 중시하는 유교문화권의 특징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조선시대의 통치 철학 및 운영체계를 알게 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기록물이다. 외규장각 의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완벽한 기록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로부터 약탈당하고 최근에 반환된 외규장각 의례는 대부분 국왕의 열람을 위해 제작하였다는 점과 국내외에 한 점밖에 없는 유일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의례 연구 및 활용에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아 흙 째 만 남

고려궁지

무인정권 당시 고려왕의 집무실(심장)



▲ 고려궁지

강화 고려궁지는 고려가 몽골군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로 옮긴 1232년(고종 19)부터 다시 환도한 1270년(원종 11)까지 사용되던 고려궁궐터이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창리에 있으며, 사적 제133호로 지정되었다. 고려가 몽골군의 침략을 피해 1232년 개경(개성)에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이후 최우 장군이 2,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1234년 이 곳에 왕궁을 건립하였다. 규모는 작으나 궁궐과 관아의 명칭을 개경과 같게 하고, 뒷산의 이름도 송악이라 칭했다. 이후 몽골에 항쟁하던 39년간 고려 왕궁으로 사용하다가 1270년 몽골군의 화친 후 고려왕이 개성으로 환도하게 되자 몽골의 요구에 따라 궁궐과 성곽을 모두 파괴하였다. 현재의 고려궁지 면적은 고려시대 궁궐의 영역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래는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간 대규모 공간이었다. 조

선시대에는 행궁, 유수부 건물과 함께 민가까지 들어서면서 고려시대 궁궐의 모습이 사라졌다. 1622년(광해군 14년)에 태조의 영정을 봉안한 '봉선전'을 건립하였으나 병자호란 때 소실되었고, 1631년(인조 9년)에는 행궁을 건립, 1638년(인조 16년)에는 유수부 동헌을 개수, 1654년(효종 5년)에는 유수부 이방청을 건립하였다. 1695년(숙종 21년)에는 장녕전 건립, 1713년(숙종 39년)에는 만녕전을 건립하여 조선 궁궐의 모습을 갖추었다. 1782년(정조6년)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왕립 도서관인 외규장각을 건립하였으나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이 강화도를 습격하면서 외규장각 안에 보관중이던 서적을 약탈해가고 외규장각을 포함한 여러 건물이 방화로 인해 소실되었다. 1964년 고려 궁궐터는 사적 제133호 '고려궁지'로 지정되었고, 1977년 복원 정비 된 이후 현재는 강화유수부 동헌, 강화유수부 이방청, 강화동종과 2003년 복원된 외규장각이 있다.

열 번 째 만 남

강화성당

대한성공회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곳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창길에 있는 대한제국시대에 세워진 성공회 성당이다. 2001년 1월 4일에 성공회 강화성당이라는 이름으로 사적 424호로 지정되었다. 보호면적은 6,452㎡이며,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등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다. 2009년에는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 30대 남성에게 의해 방화가 시도되었으나 감시원에 의해 발각되어서 화재를 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1896년(고종 33년) 강화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이 세례를 받은 것을 계기로, 1900년 11월 15일 대한성공회의 초대 주교인 찰스 존 코프(Bishop Charles John Corfe, 한국이름 고요한)가 건립하였다. 대한성공회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며, 현존하는 한옥 교회 건물로서도 가장 오래된 것이다. 또한 한국인으로서는



▲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전경

1915년 첫 성공회 사제가 된 김희준 신부를 배출하였으며, 당시 한글로 기록된 사제 서품장은 예배당 내에 보존되어 있다. 교회의 내부는 로마의 바실리카 양식으로, 외관은 불교사찰의 형태를 따랐다. 강화읍 성당은 입구 계단, 외삼문과 내삼문, 성당 건물, 사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삼문은 솟을대문에 팔작지붕으로, 현판에는 성공회 강화성당(聖公會 江華聖堂)이라는 글이 한문으로 쓰여져 있다. 동쪽에 초대 사제의 묘비가 서 있다. 내삼문은 평대문에 팔작지붕으로, 서쪽 칸은 종각

으로 쓰여 감사 성찬례 때 사용하는 종이 걸려있다. 성당의 현판에는 천주성전(天主聖殿)이라는 글이 한문으로 써져있고 팔작지붕과 돌로 되어 있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 그 내외부는 서양식 장식이 거의 없는 전형적인 한옥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정면 4칸, 측면 10칸의 바실리카식 평면구성으로, 내부공간은 교회 기능에 충실하도록 연출하였다. 초기 성공회 선교사들의 토착화 의지가 나타나 있는 성당 건물이다.

열 한 번 째 만 남

용흥궁

강화도령, 이원범이 왕이 되기 전에 잠시 머물던 집



▲ 용흥궁

용흥궁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조선시대의 건축물이다. 19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었다. 조선 제 25대 왕인 철종(재위 1849~1863)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으로 철종이 왕위에 오르자 강화유수 정기세가 건물을 새로 짓고 용흥궁이라 이름을 붙였다. 경내에는 철종이 살았던 옛 집임을 표시하는 비석과 비각이 있다. 원래는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던 농사꾼 이원범의 집으로 불렸던 곳으로 보잘것없는 초라한 초가집으로 알려졌으나 이원범이 조선왕조 25대 임금인 조선 철종으로 즉위하게 되고 신분이 평민에서 왕족으로 격상됨에 따라 이원범의 집으로 불렸던 초가집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기와집의 잠저(潛邸)를 지으면서 용흥궁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 원래 철종은 정조의 아우인 은언군(恩彦君)의 손자이며,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의 셋째아들로 어머니는 용성부대부인(龍城府大夫人) 염씨(廉氏)이다. 1844년(헌종 10) 회평군(懷平君)의 옥사에 연루되어 가족과 함께 강화도에 유배되어 학문과는 거리가 먼 농부로 살았다. 당시 영조의 혈손으로는 헌종과 원범 두 사람뿐이었다. 1849년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대왕대비 순원왕후(純元王后)의 명으로 19세의 나이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답사활동

01 강화 지역의 문화유산을 정리하고, 서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역사적 가치를 설명해 보자.

문화 유산 종류	문화 유산을 정리하고 상호간 설명해 보기(※정리 및 설명 포인트)
혈구산	1. 강화도의 시기별 옛 지명을 순서대로 말해 볼까요? 2. 혈구산 주변의 산 이름을 말하고, 강화의 지형을 이해해 볼까요?
강화 고인돌공원 (강화 부근리 고인돌)	1. 고인돌의 세계지역별 명칭과 축조시대, 용도, 형식에 대해 말해 볼까요? 2. 강화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명헌	1. 백범 김구와 인천, 강화도와의 관련성을 말해 볼까요? 2. 일제강점기 백범 김구선생의 항일운동 업적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창 체험관	1. 소창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고,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2. 요즘 사용하는 1회용 기저귀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소창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조양방직	1. 조양방직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시다. 2. 일제강점기 강화의 섬유산업의 특징과 주변 지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해볼까요?
강화향교 강화산성(북문)	1. 강화향교의 역사, 그리고 기능과 부속 건물들의 명칭에 대해 알아보시다. 2. 향교의 기능에 대해 요즘 학교와 비교하여 설명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과 소멸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외규장각	1. 성곽은 전쟁의 방어시설인데, 이 성의 축조 연대, 방어 대상은 누구일까 말해 봅시다. 2. 우리나라 성곽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산지 : 테뫼형, 포곡형/ 평지 : 읍성 등)
고려궁지	1. 외규장각의 설립 연도 및 용도는 무엇일까? 2. 외규장각 외곽의 도서 반환 의미와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대한성공회	1. 강화도에 고려 궁궐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을 말해 볼까요? 2. 고려 궁궐터에 있었던 건물들의 용도를 아는 대로 정리해 볼까요?
강화성당	1. 성공회 강화성당의 역사와 건물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2. 외국종교가 우리나라의 관습에 적응해 가는 사례를 말해 봅시다.
용흥궁	1. 철종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해 볼까요? 2. 철종이 재위할 당시 조선 사회의 정치적 환경에 대해 말해 볼까요?

★ 흔히, 강화도는 '우리나라 역사의 축소판' 혹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체험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써보고(혹은 논술) 발표해 볼까요?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단원

- 고등학교 한국사 : 1단원 우리민족의 형성
- 고등학교 한국사 : 2단원 문벌귀족사회의 동요와 무신정권의 성립
- 고등학교 한국사 : 3단원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 정비
- 고등학교 한국사 : 4단원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대응
- 고등학교 한국사 : 5단원 3.1운동 이후의 국내 민족 운동

■ 활동목표

- 강화도의 역사적·지리적 환경의 특징을 통하여 강화도의 위상을 이해할 수 있다.
- 강화도의 역사와 사상 관련 문화재를 살펴봄에 강화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 학습활동

- 활동1 : 세계문화유산 강화 고인돌 유적을 살펴보고 용도, 제작 과정을 의논해보기
 - 고인돌 유적 답사 후 찍은 사진과 고인돌 관련 자료 모으기
 - 고창, 화순지역 고인돌 유적과 유사점과 차이점 살펴보기
 - 외국의 거석문화와 비교해 보고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하기
- 활동2 : 강화산성과 고려궁지를 답사한 후 고려시대 강화도의 위상을 토론하기
 - 답사활동에서 수집한 자료 정리하기
 - 고려궁지와 강화산성의 연관성과 해당 시기 조사하기
 - 체험활동 보고서 작성하고 서로 확인하기
- 활동3 : 강화향교, 외규장각, 용흥궁을 답사한 후 조선시대 강화도의 위상 토론하기
 - 답사활동에서 수집한 자료 정리하기
 - 강화향교와 외규장각, 용흥궁의 역사적 사실 조사하기
 - 체험활동 보고서 작성하고 서로 확인하기

생각해 볼 거리

- 활동4 :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소창 체험관, 조양방직을 답사한 후 일제강점기 강화도의 종교와 산업 활동을 토론하기
 - 답사활동에서 수집한 자료 정리하기
 - 성공회 강화성당의 유입과정과 당시 우리나라 유교문화와 접촉하면서 나타난 변화 현상 조사하기
 - 체험활동 보고서 작성하고 서로 확인하기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 2015, 신편 강화사 등 다수

인터넷 자료

- 인천시 강화군청 www.ganghwa.go.kr/
- 강화역사박물관 www.ganghwa.go.kr/open_content/museum_history
- 위키 백과 <https://ko.wikipedia.org/>
- 김구기념관 <http://www.kimkoomuseum.org/>
- 226쪽 김주경의 집 <http://dh.aks.ac.kr/Edu/wiki/index.php/>

4-2

석모도의 지형과 간척사 역사 | 지리 | 과학

체험코스

석모도 → ① 상주산(송가도)너럭바위 → ② 보문사 석굴사원 → ③ 보문사 마애석불 → ④ 해수온천장(폐염전터) → ⑤ 민머루 해안

- 전체 거리 3.4km(48분)
구간별 거리
아침햇살펜션~능선사거리(등산안내판) (540m / 20분)
능선사거리~상주산너럭바위 (700m / 25분)
상주산너럭바위~능선사거리 (700m / 20분)
능선사거리~아침햇살펜션 (540m / 10분)
아침햇살펜션~보문사주차장 (차량이동 / 20분)
보문사주차장~석굴사원 (550m / 15분)
석굴사원<->마애석불 (200m / 왕복 40분)
석굴사원~보문사주차장 (550m / 15분)
보문사주차장~해수온천장 (850m / 12분) 해수온천장~민머루해안 (차량이동 / 10분)

교육과정

- 중학교 3학년 역사② 3. 몽골의 간섭과 고려의 개혁
중학교 3학년 사회② 2.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경쟁력
중학교 1학년 과학 1. 화성암, 3. 풍화와 토양

키워드

#석모도의 간척지평야 송가평 #보문사의 화강암 석굴사원 #화강암(눈썹)바위에 조각된 마애석불좌상 #민머루 해안일대 암석 관찰



① 상주산(송가도)너럭바위

② 보문사 석굴사원, ③ 마애석불

④ 해수온천장(폐염전터)

⑤ 민머루 해안

범례

- 답사지점
- 답사경로
- 구

4-2

석모도의 지형과 간척사

- 석모도의 간척 과정
- 보문사의 화강암 석굴사원과 눈썹바위
- 민머루해안일대의 지역변화와 암석 특징



강화도와 닮은 또 다른 섬? - 석모도의 지형 특징과 간척사

석모도는 원래 하나의 섬이 아니었다고요?

서해의 보물이라 불리는 석모도는 돌투성이인 산자락의 모퉁이로 물이 돌아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강화도의 서쪽 바다 위에 있고 산과 바다, 갯마을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매끈한 화강암 돌이 많아서인지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석모도를 '경북궁 근정전 박석(두께가 얇고 넓적한 돌)의 주산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석모도는 행정구역 상 강화군 삼산면에 위치하는데 이때의 삼산(三山)은 상주산, 상봉산, 해명산을 지칭한다. 해안선의 길이는 대략 20km 정도이며 관광객의 드라이브 코스와 온천 체험으로도 유명하다. 오늘날의 석모도는 강화도와 같이 간척으로 일군 섬이다. 원래는 송가도, 어류정도, 석모도로 떨어져 있던 곳인데 간척사업으로 섬들끼리 연결하여 하나의 커다란 땅이 된 것이다. 따라서 석모도에는 강화도와 마찬가지로 곳곳에 드넓은 평야가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석모도의 간척 과정과 해안지형의 모습, 대표적인 불교 사원인 보문사, 그리고 화강암의 풍화작용으로 만들어진 눈썹바위와 석굴, 민머루해안의 암석(편암) 등을 관찰하고 체험함으로써 석모도의 역사와 자연환경의 특징에 대해 이해해보도록 하자.

첫 번째 만남

송가평

상주산(송가도)에서 석모도 간척의 역사를 만나다



▲ 석모도 위성사진 (송가도와 석모도를 연결하는 흰색 점선: 상주언)

과거 석모도는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이곳은 상주산(264m)을 중심으로 하는 송가도와 해명산(327m)을 중심으로 하는 석모도, 남쪽의 어류정도로 분리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간척사에서 빠지지 않는 곳이 석모도의 송가평이다. 유명한 '석모도 섬쌀'의 생산지인 송가평은 상주산과 상봉산(316m) 사이에 자리한 2백만 평의 드넓은 들판이다. 현재의 석모도는 이 송가평을 중심으로 단일 섬을 이루고 있으나 본래 송가도와 석모도 그리고 어류정도 등이 간척을 통해 하나의 큰 섬으로 연속된 것이다. 대동여지도에서 석모도와 송가도는 본래 교동부에 속했던 섬으로서 고려 시대에는 교동과의 사이에 넓은 갯벌이 발달하여 썰물 때에는 두 섬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송가도의 남쪽, 즉 현재의 상주산 남쪽 사면 쪽에는 넓고 깊은 갯골이 발달하여 조운선이 통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고려 말부터 시작된 가릉언 공사 등 강화본도의 간척사업으로 물길이 바뀌어 송가도 남쪽 해안에 갯벌이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고도가 높은 지역에는 염생 습지가 형성되었다.

이 갯벌은 교동도 주민들에 의해 소규모로 간척되었다가 1706년(숙종 32) 조정에서 1,000명을 동원하여 송가도와 석모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상주언을 완공함으로써 완전히 간척되었다. 이 공사에 쓰인 막대한 양의 흙과 돌은 상주산 남쪽과 상봉산 북쪽 산록대에서 채취하였다고 한다.



▲ 상주산에서 바라본 송가평의 모습

두 번째 만남

보문사와 석굴사원

보문사에 가면 화강암 석굴사원이 있다!

섬 중앙부에 있는 낙가산 서쪽 기슭에 있는 보문사는 신라 시대에 창건된 오랜 역사를 지닌 사찰이다. 전등사, 정수사와 함께 강화의 3대 고찰로 일주문을 지나 보문사로 오르다 보면 우측에 400년 된 은행나무와 보문사, 그리고 낙가산 중턱에 눈썹바위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와불전과 석실, 그리고 눈썹바위 등은 이곳의 기반암인 화강암을 자연스럽게 이용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경주에 있는 석굴암과 같이 천연동



▲ 보문사 석굴사원 전경



▲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의 박석

굴을 이용하여 입구에 3개의 홍예문을 우아하게 만들었다. 홍예문 안으로 들어서면 자연암벽에 석실을 마련하였으며 그 중앙에 석가모니불을 설치하였다. 화강암이 기반을 이루고 있는 석모도가 조선시대에는 국가용 박석(薄石)의 채석지로서 멀리 경복궁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경복궁 근정전 영역은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앞마당인 전정에만 박석을 포장하여 다른 공간과 차별성을 두었다. 박석이란 거칠게 표면을 다듬질한 얇은 판상형의 바닥 석재를 말하며, 경복궁 내에서도 근정전 영역 및 왕이 걸어가는 길에 한정하였다. 박석은 우천 시 배수, 난방사의 원리를 통한 눈부심 및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하였다. 다양한 기능을 한 박석의 산지가 당시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석모도라는 사실이 이채롭다. 당시 한양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암석이 화강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건너 석모도의 화강암을 채석하여 한강 물길을 통해 운송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근정전 박석이 있는 경복궁과 산지인 강화 석모도는 직선거리로 약 58km이며, 육로와 수로를 겸해야 운송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박석의 채석지점에서 선착장(구 석포리 선착장)까지 육로로 운송하고, 한강의 조운로를 통해 석재를 운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만남

보문사
눈썹바위

화강암 판상절리의 교과서

석굴사원 왼쪽으로 10여 분쯤 계단을 올라가면 낙가산 중턱의 깎아지른 바위 면에 마애석불좌상이 조각되어 있다. 이 조각상은 1928년 두 명의 스님들이 보문사가 불교 성지임을 나타내기 위해 제작했는데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9호로 지정되었다. 이 조각상이 그려진 위의 바위가 지붕처럼 돌출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사람의 눈썹처럼 생겨서 소위 '눈썹바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화강암의 판상절리(수평 방향의 절리)를 잘 관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눈썹바위'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눈썹바위 형성의 비밀은 화강암에 나타나는 구상풍화나 절리(joint)가 그 원인이 된다. 지하에서 관입한 화강암은 지하로 향하는 압력과 지표로 향하는 팽창 압력이 평형을 유지한다. 문제는 이 평형이 깨지면 지각은



▲ 보문사 눈썹바위 전경

융기나 침강하게 되는 것이다. 풍화와 침식 작용에 의해 누르는 압력 하중이 제거되면 지각은 융기하게 되는데 이때 융기하는 화강암 표면에 판상절리(節理)가 발달하면서 절리의 모서리가 풍화작용을 받으면서 둥근 공 모양의 풍화가 진행된다. 이것을 구상풍화라고 한다. 구상풍화를 받은 화강암의 윗부분은 남고 나머지 부분은 떨어져 나가면서 눈썹 모양의 바위가 된 것이다.

네 번째 만남

해수온천장
(구 염전터)

염전 터에 해수온천이 들어서다

2002년 석모도 남부 지역인 삼산면 매음리의 구염전터에 온천이 개발되었다. 보문사에서 민머루 해안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이곳은 과거 석모도에서 최대의 천일염을 생산하던 삼랑 염전이 있었던 자리이다. 또한 이곳은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들과 많은 염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었던 곳이었다. 석모도의 온천은 바닷물과 지하수가 만난 것으로 해수

온천에 해당한다. 온천수는 70~56℃의 고온으로 다량의 희귀 미네랄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예로부터 온천마을이라 불리던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지하수를 퍼 올려서 농업용수로 사용했는데, 미지근한 물이 나오고 들판에서 김이 올라오곤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온천을 개발하여 한옥 숙박시설을 짓고, '리안월드'란 이름으로 개장하였다. 현재 삼랑 염전 터는 온천 주변의 대규모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과 함께 역사 속에 사라졌고 일부 지역에 폐염전의 모습만 일부 볼 수 있다.



▲ 폐염전의 모습(1999년 촬영)

네 번째 만남

민머루해안

벌집 모양과 소세지 모양의 암석 표면을 찾아라!

민머루 해수욕장은 삼산면 매음1리에 있는 석모도의 유일한 해수욕장이다. 백사장은 폭이 50m, 길이가 약 1km이며, 무엇보다도 바닷물이 빠지면 수십만 평의 갯벌이 나타나 학생들의 갯벌체험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희귀조인 저어새의 서식지이자 해안 지역의 암석(편암)을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이 곳의 기반암은 대부분 편암류인데 해안가에는 염풍화작용을 받아 구멍이 생긴 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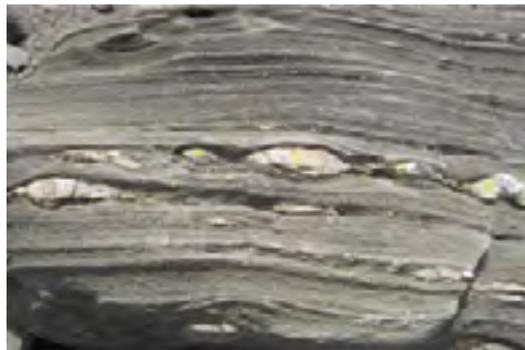
석과 편암에 석영이 소시지 모양처럼 들어간 암석 표면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 민머루 해안 전경



해수욕장의 좌측으로 접근하여 암석을 관찰해보면 별집 같이 구멍이 뚫린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조간대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염풍화작용으로 생긴 타포니(tafoni)이다. 타포니는 우리말로 ‘풍화혈’이라고도 하는데 풍화혈 중에서도 특히 암석의 측면(암벽)에 벌집처럼 집단적으로 파인 구멍을 가리키는 말이다. 타포니는 바다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염분의 풍화작용(염풍화)으로 암석의 광물 입자가 붕괴되어 떨어져 나오면서 형성되었다. 민머루 해안의 암석을 살펴보면 얇은 줄무늬 암석 속에 마치 소시지 모양과 비슷한 모양을 한 석영 성분의 암석을 흔히 볼 수 있다. 과학 교과서에는 이를 ‘부딘(boudin) 구조’라고 한다. ‘부딘’의 생성 원리는 편암 성분 중에 규산(SiO_2) 성분이 존재할 때 만들어진다. 규산은 조암광물 중에서 녹는점이 가장 낮다. 편암에 열과 압력이 가해지면 규산이 녹는점에 도달하여 녹게 되고 주위의 편암들은



▲ 민머루 해안 암석, 타포니(위)와 석영 성분의 부딘 구조(아래)
<출처:인천사랑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2018)>

고체 상태를 유지한다. 열과 압력이 편암이 녹는점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규산 성분들은 소시지 모양으로 둥글게 냉각되면서 부딘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부딘 구조를 이루는 광물은 주로 용융점이 낮은 석영(SiO_2)이 주를 이룬다. 편암 내에 석영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석영맥의 형태로 관입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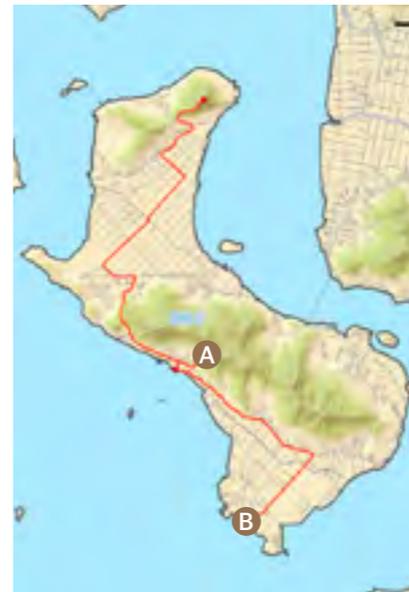
답사활동

01 제시된 모식도는 눈썹바위의 형성과정을 보여준다. 설명글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를 표시해보자.



보문사의 눈썹바위(A)는 (화강암, 편암, 편마암)바위에 (암맥, 절리, 습곡)이(가) 형성된 후 이 틈을 따라 표면이 무너져 내린다. 이때 상단에 있는 부분(B)은 무너져 내리지 않고 남아있어 눈썹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된다.

02 제시된 지도를 보고 다음 활동지를 작성해보자.



활동지(학생)

- ① 지도에서 상주언(제방)과 송가평(간척지)을 기호로 표시해보자.

- ② A지역은 석모도의 대표적인 불교사찰이다. 이 사찰의 이름과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명소 두 곳을 쓰시오.

- ③ B지역은 석모도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이다. 이 지역 해안 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주된 암석의 이름을 쓰고, 염풍화에 의해 형성된 암석의 표면상 특징을 서술하시오.

03 우리 고장에서 다음과 같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간단히 기술해보자.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단원

- (중학교_3학년_역사) 몽골의 간섭과 고려의 개혁, 몽골의 침략을 극복하다.
- (중학교_3학년_사회)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경쟁력, 지역화 전략
- (중학교_1학년_과학) 암석과 순환, 암석과 광물, 풍화와 토양

■ 활동목표

- 고려 사람들이 몽골의 침입에 맞서 어떻게 항쟁하였는지 설명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여러 지역이 지닌 가치와 경쟁력을 조사할 수 있다.
- 화성암의 생성 과정과 풍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습활동

- 활동1 : 석모도 홍보자료 만들기
 - 작성한 글과 찍은 사진 모으기
 -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한 글과 사진 편집하기
 - 모둠별로 선택한 글과 사진으로 홍보 자료 제작하기
- 활동2 : 석모도의 암석 관찰 보고서 작성하기
 - 체험활동을 통한 암석 사진 모으기
 - 화성암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정리하기
 - 교과서를 통해 암석의 풍화에 대한 자료 정리하기
 - 암석 관찰 보고서 제작하기

생각해 볼 거리

학생들과 함께 고문헌이나 고지도를 통해 석모도를 살펴보자. 오늘날의 석모도는 과거 송가도, 석모도, 어유정도로 분리돼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석모도의 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송가평은 북쪽 송가도와 남쪽 석모도 사이에 펼쳐져 있던 갯벌을 이곳 사람들이 오랜 세월 피와 땀으로 독을 쌓고 넘쳐오는 조수와 싸우면서 일구어 낸 간척지임을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이때 석모도만의 간척사가 아닌 전체적인 강화본도의 간척 역사와 함께 석모도와 교동도의 간척 과정을 함께 다루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암석을 주제로 한 과학 수업 시 석모도의 지질도 및 사진 자료 등을 이용해 석모도의 화강암과 편암의 특징들을 이해해보는 수업 설계도 가능하다. 더불어 답사 시 강화본도-석모도 간 연육교가 생기기 전과 후의 석모도의 여러 가지 변화 모습을 주민들에게 인터뷰나 설문지 조사 등을 실시한 후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해 보는 수업 또한 좋겠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터사랑, 2005, 인천땅 '이만큼 알기', 다인아트
- 김기룡 외, 2017, 서해섬으로 떠나는 자연과 역사문화산책, 인천섬유산연구회
- 인천섬유산연구회, 2018, 인천사랑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인천시교육청
- 홍영의 외, 2019, 석모도(역사의 길2), 글누림

영상

- 인천섬유산연구회(윤진수) : 강화 석모도 영상 답사기
- 2017년 7월 21일 YTN 구석구석코리아 '가까워진 섬 속의 섬, 석모도'
- 2014년 12월 1일 한국여행TV, '석모도 보문사 사찰기행'

인터넷 자료

- 인천시 강화군청 <http://www.ganghwa.go.kr>
- 강화문화원 <http://www.ganghwacc.org/>

4-3

교동의 역사

역사 | 지리

체험코스

① 교동읍성 → ② 교동향교 → ③ 봉수대 → ④ 화개산 → ⑤ 화개산성 → ⑥ 연산군적거지 → ⑦ 대릉시장

전체 거리 5.1km(1시간 55분)

구간별 거리 교동읍성 → 교동향교(0.7km/10분)

교동향교 → 봉수대 (1.8km/45분)

봉수대 → 화개산(0.3km/10분)

화개산 → 화개산성(0.3km/10분)

화개산성 → 연산군적거지(0.5km/10분)

연산군적거지 → 대릉시장(1.5km/30분)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1. 우리민족의 형성

고등학교 한국사 2. 문벌귀족사회의 동요와 무신정권의 성립

고등학교 한국사 4.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대응

고등학교 한국사 5. 3.1운동 이후의 국내 민족 운동

키워드

#교동 문화재 #연산군 #대릉시장원 #화강암(눈썹)바위에 조각된 마애석불좌상 #민머루해안일대 암석 관찰

0 0.15 0.3 Km



⑦ 대릉시장

⑥ 연산군적거지

⑤ 화개산성

④ 화개산

③ 봉수대

② 교동향교

① 교동읍성

범례

- 답사지점
- 답사경로
- 구

4-3

교동의 역사

- 간추린 교동 역사
- 교동의 역사문화 유산



교동도 - 한강 유역 차지 및 정치적 안정을 위한 지정학적 요충지

한강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 그리고 유배지 - 교동도

교동도(喬桐島)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에 속한 황해의 섬이다. 마한의 국가 중 하나인 소석삭국(小石索國)이었다. 원래 이름은 대운도(戴雲島)이다. 고림(高林) 또는, 달을신(達乙新)이라고도 불렀으나, 고구려 때 처음으로 현(縣)을 두어 고목근현(高木根縣)이라 하고, 신라 경덕왕 때 교동현이라 한 것이 오늘에 이른다. 고려시대 때부터 수도와 가까워 강화도와 함께 왕과 왕족의 유배지로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 연산군, 광해군이 있으며 연산군은 여기서 죽었다. 그 외에도 임해군, 능창대군, 송선군, 익령군, 영선군(고종의 조카 이준용), 화안옹주 등이 여기에 유배되었다. 전략적 요충지로 이용되어 경기수영 예하 함선과 병력이 항상 주둔하고 있었으며, 인조 시대에는 삼도수군통제사의 지휘에 들어가지 않는 경기, 황해, 평안 수영을 지휘하는 삼도수군통어영이 설치되기도 했다. 고종 32년(1895)에는 읍을 폐하고 강화와 합군하였다가 다음해 7월에 다시 읍으로 하고 군수를 두었다. 그때 당시는 교동 동서남북면 4개 면과 송가면을 합쳐 5개면이었다가 국권침탈 후(1910)에 송가면은 송남면으로 개칭하고, 본도는 4개면 13개로 구획되었다. 합군(1914) 이후, 송남면은 삼산면에 부속되었고 교동은 화개면과 수정면, 2개면이 되었다. 1934년 이후, 화개·수정면을 합면하여 지금의 교동면이 되었으며 현재 법정리는 13개, 행정리는 17개이다. 본도는 인천광역시 서해안에 놓여 있으며 동남은 양사면, 삼산면, 서도면과 마주하고 있으며 서북으로는 불과 5km 밖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군사분계선을 이르고 있어 황해도 연백군이 눈앞에 보인다. 도서라고는 하지만 비교적 평야가 많으며 해안선은 평탄한 편이고 해저는 수심이 얕고 간만의 차가 심하다. 2014년 7월 1일에 교동대교가 개통되어 강화 버스 18번과 자동차로 교동도를 갈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 만남

교동읍성

[喬桐邑城]

도대체, 섬에 읍성을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

교동읍성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577번지에 있는 조선 시대의 읍성으로 인천광역시의 기념물 제23호로 지정되었다. 읍성이란 군이나 현의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적·행정적인 기능을 함께 하는 성을 말한다. 교동읍성은 한 도읍 전체를 둘러싸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았으며, 군데군데 문을 내어 바깥과 통하도록 만들었다. 성의 둘레는 약 779m, 높이는 약 6m로, 동·남·북쪽 3곳에 성문을 두었고, 각 문에는 망을 보기 위해 문루를 세웠는데, 동문은 통삼루(統三樓), 남문은 유량루(庾亮樓), 북문은 공북루(拱北樓)라고 하였다. 조선 인조 7



▲ 교동읍성 모습

년(1629)에 처음 쌓았으며, 영조 29년(1753) 통어사 백동원(白東遠)이 고쳐 쌓았고, 고종 21년(1884)에는 성문을 다시 세웠다고 전한다. 고종 27년(1890) 동문과 북문을 다시 세웠다고 하나, 현재는 3문이 모두 남아 있지 않다. 동문과 북문은 언제 없어졌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남문인 유량루는 1921년 폭풍으로 무너져 반원 형태의 홍예문이 남아 있다. 2018년 남문인 유량루 문루가 복원되었다. 내부에는 조선시대 수군절도사가 있던 수영(水營)터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만남

교동향교

[喬桐鄕校]

교동의 정신적 구심점과 학구열의 메카

교동향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에 위치하며, 인천광역시의 유형문화재 28호로 지정되었다. 고려 인종(仁宗) 5년(1127년)에 창건된 것으로 한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향교이다. 충렬왕(忠烈王) 12년(1286년)에 제거(提擧) 안유(安裕)가 왕을 따라 원(元)에 가서 공자(孔子)와 주자(朱子)의 상을 처음 그려왔고, 김문연 등을 중원에 보내 선현과 72 제자의 상을 그리게 하였으며 각종 제기와 악기, 육경과 제자백가의 책, 역사서를 사들여 고려로 가지고 오게 했는데, 김문연 등은 서해 방면으로 귀국하면서 지금의 교동에 기착, 가지고 온 기물과 책들을 교동향교에 잠시 봉안하였다가 개경으로 이안하였다. 화개산 북쪽 계곡에 있던 것을 조선 광해군(光海君) 원년(1609년) 7월 11일에 교동현감 이직이 당시의 경기관찰사 김신원에게 큰 바람으로 향교의 지붕 기와가 모두 날아가고 나무는 모조리 뽑혔으며, 향교의 명륜당과 동서재(齋)가 한꺼번에 바람에 무너졌음을 첩보하였고, 이에 대성전에서 위



▲ 교동향교 모습

안제를 거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현종(顯宗) 8년(1667년) 각 도의 여러 고을에 배향 신위를 옮겨 정하도록 하면서, 교동현감 구문치가 대성전을 보수하고 양무를 신축하여 10월 5현을 배향하고자 청하면서 위판을 만드는데 필요한 밤나무와 향축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때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영조(英祖) 17년(1741년)에 강화부사 조호신(趙虎臣)이 화개산 남쪽 계곡,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예전의 향교터는 지금의 고구리에 남아있으며, 현재도 구향교골이라는 지명으로 남아 있다). 관학(官學) 즉 국립학교라는 향교의 성격상 기본적으로 수령이 통치하는 관아와 가까운 곳, 읍치(邑治)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했는데, 교동향교와 같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관아와는 다소 떨어진 곳에 향교를 중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고종 27년(1890년)에 동서 재실을 증건하였다. 1931년에 대성전을 중수하였다. 그후 한국전쟁으로 향교 건물이 퇴락한 것을 1960년에 중수하였으며, 동서 재실과 내외삼문의 개건 및 단청 보수가 1981년에 이루어졌다.

다섯 번째 만남

화개산 봉수대

제5로(路)의 해안가 햇불(沿邊烽燧) 통신수단

화개산 봉수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橋桐面) 고구리에 위치하며, 강화군 향토유적 제29호로 지정되었다. 화개산과 잇대어 있는 연봉 정상에 자리잡고 있는데, 봉수대는 무너지고 터만 남아 있다. 터는 돌을 직사각 모양으로 쌓아 단을 만든 것으로 규모는 높이 1.2m, 가로 4.6m, 세로 7.2m이다. 강화군 소재 봉수 중 비교적 유지가 온전하게

남아 있으나, 항시적 또는 비상시에 거화를 위한 연대상부의 연소실이나 연조는 확인할 수 없다. 최초 축조는 고려시대이며 봉수노선과 성격상 5거 직봉노선의 연변(沿邊)봉수이다. 일명 성산봉화(城山烽火)·규산봉수(圭山烽燧)·주산봉수(主山烽燧)로도 호칭되었다.

봉수는 봉(烽:햇불)과 수(燧:연기)로써 급한 소식을 전하던 전통시대의 통신제도였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불을 피워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하였다. 과거 말을 이용하거나 원시적 우편제도와 더불어



▲ 화개산 봉수대 전경

어 신식우편(新式郵便)과 전기통신이 창시되기 이전의 전근대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통신방법이었다. 말이나 사람보다 시간적으로 단축되었고, 신속한 효율성을 발휘하여 지방의 급변하는 민정상황이나 국경지방의 적의 동태를 상급기관인 중앙의 병조에 연락했다. 봉수제는 일반 국민들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나 서신을 전달할 수는 없는 것으로, 국가의 정치·군사적인 전보기능(傳報機能)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봉수제가 가장 발달한 조선시대에는 전국을 5로(路)로 나누어서 서울 목멱산(현, 남산)으로 직접 알리는 직봉체계를 운영하였다. 제1거(햇불, 炬)는 함경도 서수라보 → 함경도·강원도·경기도를 거쳐 서울의 남산에 도착하였다. 제2거(햇불, 炬)는 경상도 동래 다대포 → 경주 → 충주, 제3거(햇불, 炬)는 평안도 만포진 여둔대 → 의주 → 평양, 제4거(햇불, 炬)는 평안도 의주 고정주 → 해주 → 개성을 거쳐서 서울의 목멱산에 이르렀다. 제5거(햇불, 炬)는 전라도 여수 돌산도에서 출발하여 전라도·충청도·인천·강화도·교동도·김포시·고양시를 거쳐 서울의 남산에 도착하였다. 강화 소재 봉수는 이 중에서 제5거에 속한다. 이것은 통진(通津)의 수안산(守安山)에 이르렀다가 강화로 연결되어 대모성산(大母城山) → 진강산(鎭江山, 간봉으로는 강화의 장봉도를 포함) → 망산(網山, 덕산봉수) → 규산(圭山, 교동의 화개산) → 하음산(河陰山, 조선전기에는 별립산, 봉천대) → 남산(南山, 花山, 조선전기에는 송악산 혹은 고려산)을 거쳐 통진의 남산(南山, 조선전기에는 통진 주산)을 비롯한 기타 봉수를 거쳐서 서울의 목멱산 제5봉에 이른다. 강화지역 봉수 각각의 거리는 (김포 수안산) ← 7.2km → 대모산봉수 ← 6.8km → 진강산봉수 ← 7.2km → 덕산봉수 ← 10.5km → 교동 화개산봉수 ← 11.1km → 하음산봉수(봉천대) ← 7.2km → 남산봉수 ← 7.8km → (김포 남산봉수)였다. 이러한 강화지역 봉수간의 평균 거리는 9km로서 전국 평균인 8km보다는 약간 긴 편에 속한다. 각 봉수별로 봉수군이 16~20명이었다. 화개산봉수는 본도의 덕(정)산 봉수에서 연락을 받아 다시 본도의 하음산 봉수로 연락을 보내는 역할을 하였으며, 봉수군은 46명이었다.

세 번 째 만 남

화개산

교동 중심지에
우뚝 선 주산

강화군의 교동면 고구리에 위치하고 있는 산(259.6m)으로 교동도의 주산이다. 이 산을 중심으로 한 강화 교동도는 삼국시대 이래 서해안 해상교통의 요지이며, 고려·조선 왕족들의 유배지로서 조선 중기엔 경기·황해·충청 삼도 수군을 담당하는 삼도수군통어영이 설치됐던 중요 섬이다. 한강·임진강 물과 예성강 물이 합쳐지는 물길 어귀에 교동도가 있는데 드넓은 간척지, 들판과 하늘을 휩쓸고 다니는 철새떼가 몰려다니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해 마을과 산자락에서 옛사람들 흔적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토지가 비옥하여 풍년이 들면 교동 주민이 10년은 족히 먹을 수 있다는 풍요의 섬이며, 천혜의 자연과 단 한 번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을 것 같은 고즈넉한 숲길 등 매력이 많은 섬이다. 대



▲ 화개산 모습

표적 문화유산으로서 화개산성은 포곡식(抱谷式)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산 정상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산 정상에서 서북쪽으로 50m 떨어진 연봉 정상에는 통신수단인 봉수(烽燧)터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었던 봉수라 전해지며 지금도 봉수대의 하부 석축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또한 조선시대부터 왕족의 유배지로 유명했으며, 연산군과 광해군을 비롯해 세종의 3남 안평대군 등이 교동도로 유배당하거나 사사(賜死)

되었다.

네 번 째 만 남

화개산성

(喬桐邑城)

한강 침투(방어) 저지를 위한 전략적 방어시설

화개산성은 교동면 고구리 산145번지에 위치한 석성으로 고려시대 이전에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며 강화군 향토유적 제 30호로 지정되었다. 일명 고구리 산성으로 불리며, 교동도에서 가장 높은 고지로서 사방이 잘 관측되는 매우 유리한 지점에 축조하였다. 이 산성은 전체 둘레가 2168m에 이르는 규모가 큰 석성이며, 내성과 외성의 2중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내성은 그 둘레가 1013m로서 화개산의 정상부를 감싸고 있는데, 이곳은 절벽을 자연 성채로 활용하고 있으며, 내성의 일부를 북쪽으로 길게 빼어 긴 용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 등이 특징이다. 외성은 전체 둘레가 1155m 정도이며, 외성의 석축은 대부분 무너져 잡석만이 성벽 선을 따라 흩어져 있다. 외성의 성벽이 이처럼



▲ 화개산성 모습

많이 붕괴된 것은 1591년(선조 24)에 지현 이여양이 외성을 철거하여 읍성을 축조하는 데 사용하였고, 또 교동이 수군의 중심지로서 부각되었던 까닭에 육상의 산성은 그 규모에 비하여 전략적으로 크게 중요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737년에 산성을 개축하여 통어영의 신지(信地)로 삼았다는 기사로 미루어 볼 때, 화개산성은 적의 침입시 방어를 위하여 사전에 준비된 병력 집결지였으며, 해상에서 적을 격파하지 못하였을 경우를 대비한 육상 예비진의 역할도 겸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산성이 언제 처음 축조되었는가를 알려 주는 기록은 없고 증개축에 관한 기사만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1555년(명종 10)에 왜구의 침입을 당하여 지현 최제운이 증축하고 성내에 군창고를 두었으며, 1591년(선조 24)에는 지현 이여양이 외성을 철거하여 읍성을 축조하는 데 사용하였고, 1737년에 다시 개축하고 군창을 두었다. 화개산성은 축성 재료와 규모의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문헌기록을 종합해 볼 때 꽤 규모가 큰 산성이었던 듯하다. 옛 자료와 최근 실측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산성의 둘레는 2km, 석축 높이는 약 5m 정도로 보인다.

여섯 번 째 만 남

화개산 암각화

선사인들의 원시 예술과
믿음의 형태

암각화란 돌이나 금속제의 도구를 사용하여 바위의 표면을 쪼아 내거나 갈아 파거나 또는 그어서 동물, 인물, 또는 기하학적 문양 등을 새겨놓은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암각화는 울산 천전리 암각화와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발견을 시작으로 대부분 경상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강화도에서 청동기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암



▲ 암각화 전경

각화가 발견된 것은 현재까지 총 2개다. 그중 하나는 변성 화강암에 새겨진 가로 180cm, 세로 85cm, 높이 57cm 크기의 자연 암석 위에 물줄기를 연상시키는 11개의 선과 12개의 구멍이 새겨져 있다. 암각화로 구체적 정물이 아닌 선과 원으로만 구성된 '비구상형' 암각화인데 기원 행위의 하나로 긴 시간 같고 문질러서 완성하는 청동기시대 후기 암각화의 특성을 갖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별자리를 새겨놓은 윗판형이다. 청동기

시대 암각화는 주로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 영남지역이 아닌 곳에서 이 같은 형태의 암각화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암각화는 대체로 강을 바라보는 산의 바위절벽이거나 강 옆이 아니라도 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새겨져 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왜 암각화를 새겼으며, 왜 그 위치에 새겼을까? 암각화 내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천이나 바다와 연결된 산의 바위절벽에 새겨졌다는 것은 암각화가 동일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현재로는 암각화 유적이 신성한 장소에 만들어진 종교적 제의장소로 보고 있다. 암각화가 새겨진 바위면의 밑에는 대부분 약간의 편평한 공간이 있는데, 암각화 앞에서 어떤 의식을 행하는데 필요했던 공간으로 보고 있다. 선사인들에게 물과 산, 태양은 신성한 존재였다. 선사인들은 종족이나 개인의 성공적인 사냥, 풍부한 사냥감, 농작물의 성장과 풍작, 날씨, 다산의 기원 등이 신성한 존재에 의해 지배된다고 생각했으며, 신성한 존재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식과 기원행위를 해야 했다. 암각화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동쪽이나 남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농경에 매우 중요한 태양에 대한 기원과 관련되고, 산과 강을 접하고 있는 것은 수렵과 어로의 성공과 풍요를 기원한 것과 관련된다. 암각화는 이와 같은 기원의례, 제사의례의 과정 속에 새겨진 것이다. 암각화는 주술적·종교적 목적 외에도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선사인들의 생활상의 기록일 수도 있고, 어로와 수렵의 결과물을 기록하여 나중 재생과 풍요를 기원한 종교적 제의 때 제물로써 사용했을 수 있다.

일 곱 번 째 만 남

연산군 적거지

조선의 왕, 연산군이 귀양 살이하던 곳

연산군 적거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산233에 있다. 1986년 강화군의 향토유적 제28호 연산군 적거지로 지정되었다가, 2017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연산군 즉위 초에는 사창, 상평창, 진제창의 설치, 사가 독서의 부활 「국조보감」, 「여지승람」의 간행 등 다소의 업적을 이룩했으나 어머니인 폐비 윤씨가 사사된 후 세자시절을 불우하게 보낸 탓으로 이상 성격이 형성, 점차 향락과 횡포를 일삼아 많은 실정을 저질렀다. 무오사화, 갑자사화를 일으켜 사림파를 대량 학살 숙청했고 성균관을 유흥장으로 만들어 황음을 일삼는 등 갖은 횡포를 자행했다. 연산군은 성종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판봉상



▲ 연산군 적거지 전경

시사(判奉常寺事) 윤기무(尹起畝)의 딸인 폐비 윤씨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지 않아서 공부하기를 권계하는 이가 있었지만,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한다. 왕으로 등극하여 사창, 상평창, 진제창의 설치와 사가독서의 부활, 《동국여지승람》의 간행 등 국방과 내치면에서 다소의 업적을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폐비 윤씨 사건을 계기로 점차 많은 실정을 하기도 했다. 만년에는 주색에 빠지고 도리에 어긋나며, 포박한 정치를 극도로 하여, 대신·대간·시종을 거의

다 주살하여 불로 지지고 가슴을 찢개고 마디마디 끊고 백골을 부수어 바람에 날리는 형벌까지도 자행했다고 한다. 중종반정이 일어나 폐위되어 교동으로 유배된 후 31세에 병으로 죽었다.

여 뉘 번 째 만 남

대룡시장

1960~70년대의 옛 모습을 간직한 전통 시장

교동도 대룡시장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일대에 있으며, 1950년 6.25 전쟁 당시 황해도 연백군에서 피난 온 실향민들이 돌아갈 수 없게 되자 고향에 있는 시장인 '연백장'을 그대로 본 따서 만든 골목시장이다. 지난 50여 년간 교동 경제 발전의 중심지였으며, 시장을 만든 1세대 실향민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장 규모도 축소되었다. 그러나 2014년 교동대교 개통으로 대룡시장을 관광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다. 골목 곳곳에는 벽화, 포스터들과 조형물 등 1960~80년대에 유행하던 오래된 간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영화 세트장 같은 느낌을 준다. 어르신

들에게는 과거의 옛 향수를 자극하여 잠시 멈춰진 과거로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고, 청소년에게는 과거 시장 활동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전통(재래)시장이다. 상점의 개방시간은 상이하 며, 관람소요시간 최소 60분 정도이다. 주요 이용 시설로는 특산물판매처, 상점, 떡거리, 포토존, 이벤트 등이 있으며, 관광 포인트는 교동이발관, 동산약방 등 오래된 가게 앞에서 사진 찍기, 전설의 마녀 촬영지(거북당) 구경하기, 쌀강정 등 전통 주전부리, 옛

날 다방 둘러보기 등이 있다.



▲ 대룡시장 모습

답사활동

01 교동 지역의 문화유산을 정리하고, 서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역사적 가치를 설명해 봅시다.

문화 유산 종류	문화 유산을 정리하고 상호간 설명해 보기(※정리 및 설명 포인트)
교동읍성	1. 교동도의 평지에 쌓은 읍성의 축조 시기와 그 이유를 말해 볼까요? 2. 섬 지역에 교동읍성(평지성)과 화개산성(산성)을 축조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교동의 지정학적 특징을 말해 볼까요?
교동향교	1. 교동향교의 역사, 부속 건물들의 명칭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시다. 2. 향교의 기능을 요즘 학교와 비교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과 소멸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볼까요?
화개산	1. 화개산 답사를 통해 교동도에서 화개산이 차지하는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지리적, 의미에 대해 말해 봅시다. 2. 북한과 마주하는 현 시점에서 화개산의 활용 방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의 말해 봅시다.
화개산성	1. 화개산성의 분류 유형과 축조 시기, 축성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2. 방어 대상 국가(혹은 민족)는 어디일까 서로 의논해 봅시다. 3. 우리나라 성곽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산지 : 테뫼형, 포곡형/ 평지 : 읍성 등)
화개산 봉수대	1. 화개산 봉수의 축조 시기 및 규모를 자세히 알아보시다. 2. 우리나라 봉수 체계(1~5로)를 알아보고, 화개산 봉수대의 사용 체계를 말해볼까요? ※ 봉수대 위에서 기거하며 후방과 봉수 업무를 수행하는 봉수군의 신분은 양인이지만 역할은 천역을 담당하였기에 신량역천(身良役賤)이라 부름
화개산 암각화	1. 암각화란 무엇이며, 무엇을 그렸을까에 대해 알아보시다. 2. 화개산 암각화에 새겨진 그림 형태를 말해보고, 무슨 의미가 담겨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연산군 적거지	1. 조선시대 연산군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교동으로 귀양 온 배경을 말해 봅시다. 2. 유배지로서 교동도를 선택한 이유와 연산군 이외 누가 있는지 설명해 볼까요?
대룡시장	1. 대룡시장이 형성된 계기와 이를 둘러보고 난 느낌을 설명해 봅시다. 2. 과거 우리나라의 전통시장과 현대의 시장을 비교하여 설명해 봅시다.

★ 교동도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중요하데, 화개산의 문화유산을 통해 체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중요한 이유를 간단히 써볼까요?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단원

- 고등학교-한국사-1단원 우리민족의 형성
- 등학교-한국사-2단원 문벌귀족사회의 동요와 무신정권의 성립
- 고등학교-한국사-4단원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대응
- 고등학교-한국사-5단원 3.1운동 이후의 국내 민족 운동

■ 활동목표

- 교동도의 역사적·지리적 환경의 특징을 통하여 강화도의 위상을 이해할 수 있다.
- 교동도의 역사와 사상 관련 문화재를 살펴봄에 강화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 학습활동

- 활동1 : 화개산 정상에서 교동도 주변의 지형을 토론했어 보기
 - 주변 지형을 보고 동서남북 방향 따라 그려보기
 - 서울 방향, 개성 방향을 살펴봄에, 고려와 조선의 도읍을 상상해 보기
 - 역사적으로 교동도가 왜 전략적 요충지였는지 느낀 소감을 갖고 토론했어 보기
- 활동2 : 화개산 암각화를 새긴 암석의 종류와 제작 수법, 도구 사용 등 선사인들의 경험을 상상해 보며 토론했어 보기
 - 암각화의 대상 암석을 자세히 살펴보고 토론했어 보기
 - 어떤 도구와 방법으로 무엇을 그렸을까 토론했어 보기
 - 강화 고인돌과 연관성에 대해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 토론했어 보기
- 활동3 : 화개산성의 축조와 관련해 시기, 방어 대상, 산성 형식 등 토론했어 보기
 - (상기 내용을 통해)교동 읍성과 차이점 알아보기
 - (상기 내용을 통해)강화도 산성과 유사점과 차이점 알아보기
- 활동4 : 교동읍성, 향교, 봉수대, 연산군 적거지 등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통해 교동도의 위상 토론했어 보기
 - 답사활동에서 수집한 자료 정리하기

- 강화향교와 외규장각, 용흥궁의 역사적 사실 조사하기
- 체험활동 보고서 작성하고 서로 확인하기
- 활동5 : 현대 속 과거 전통시장 살펴보기
 - 대룡시장의 가게, 골목, 포스터, 상품, 시설 등 여기저기 체험하며 느껴보기
 - 학생 자신들이 사는 주변 시장과 비교하여 차이점 살펴보기
 - 대룡시장이 형성된 까닭과 이후 관광 명소로 발전하게 된 이유 조사하기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 2015, 신편 강화사 등 다수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2004, 『인천의 섬』

인터넷 자료

- 인천시 강화군청 www.ganghwa.go.kr/
- 강화역사박물관
www.ganghwa.go.kr/open_content/museum_history
- 위키 백과 <https://ko.wikipedia.org/>

기획 이종원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동아시아·평화교육팀 장학관
이경아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동아시아·평화교육팀 장학사

집필 이우평 인천부광고등학교 교감
김석훈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교사
최원길 서인천고등학교 교사
김지용 화도진중학교 교사
조철민 인천재능중학교 교사
이기석 송도중학교 교사
강병숙 인천일신초등학교 교사
윤정 인천병방초등학교 교사
이소영 인천영종초등학교 교사

지도제작 박선영 검단고등학교 교사
검토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 관장
현장검토 권옥란, 김창길, 빈남옥, 이동열
사진 이동열, 홍승훈

인천을 품고 세계로1

인천 탐방길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소 인천광역시교육청 남동구 정각로9(구월동)

전화 (032)420-8259

홈페이지 <http://www.ice.go.kr>

디자인·인쇄 도서출판 다인아트

